

I. 이 책은 國土統一院의 北韓實態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 및 自體研究 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의 言語實態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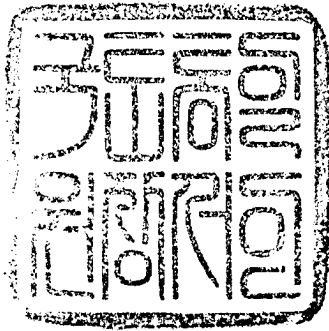
研究責任者

洪 研 淑
(漢 陽 大 教 授)

全 在 昊
(慶 北 大 教 授)

洪 思 滿
(慶 北 大 教 授)

姜 在 倫
(中央日報社 東亞問題
研究 所 副 所 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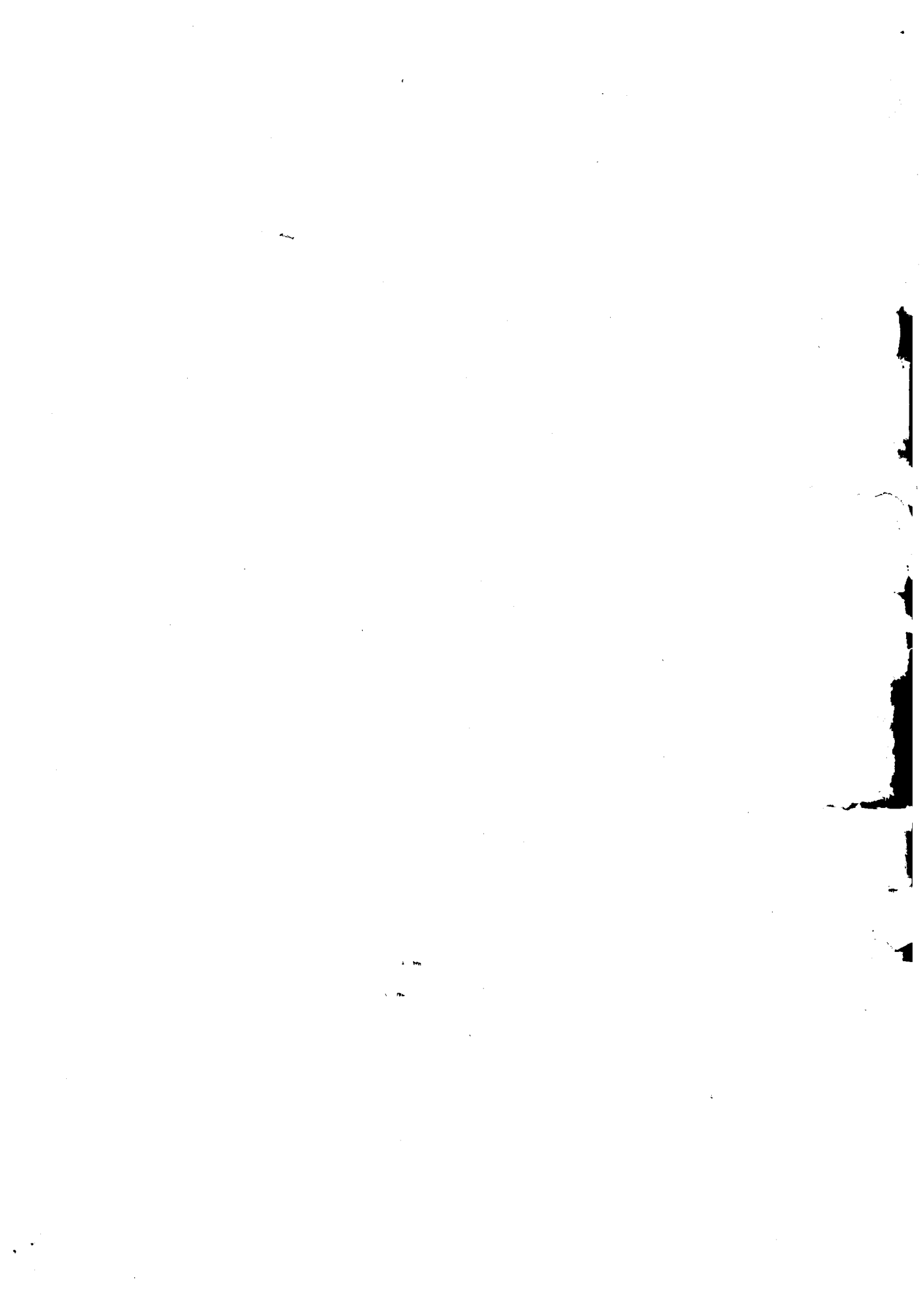


521

刊行責任者

徐 成 雨
(調查研究室 補佐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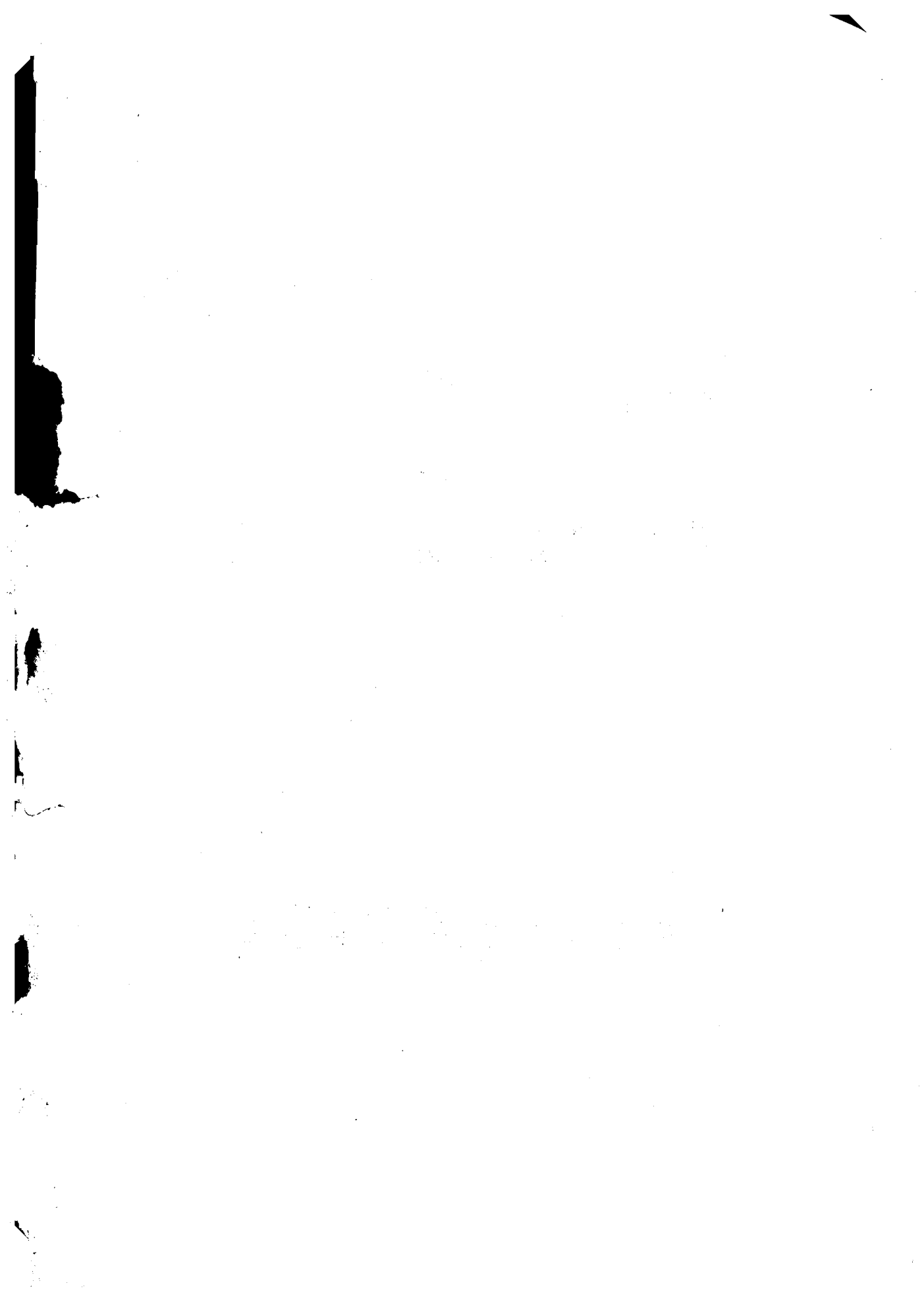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南北韓言語文化 Ⅱ

研究責任者

洪 研 淑
(漢陽大教授)



目 次

I. 서 論	7
1. 북한 - 폐쇄정책에서 개방으로?	7
2. 〈文化語〉는 하나의 방언	9
3. 言語와 意識構造와 가치관	12
4. 意味의 변화	14
II. 北韓言語의 구조적 분석	18
1. 어휘 의미론적 분석	18
2. 음성학적 분석	24
3. 형태론적 분석	28
4. 문채론적 분석	30
III. 北韓의 言語政策	33
1. 漢字폐지 한글전용 실시	33
2. 《조선어 철자법》	35
3. 말 다듬기운동	42
4. 《조선어 문법》	44
5. 김일성의 언어학자들과의 두 담화	46
6. 《조선말 규범집》	52
7. 사전 편찬	55
8. 〈문화어운동〉과 분야별로 다듬은 말	57
9. 말풀이의 한계와 용어의 응집력 문제	91

10. 외국명과 수도명	92
11. 일반 언어학	98
12. 방언 연구	100
IV. 南韓의 言語政策	105
1. 현재의 國漢文 혼용제도	105
2. 한글 전용운동	109
3. 국어 순화운동	116
4. 한글의 기계화운동	118
5. 사전의 편찬과 보유	119
6. 한글 맞춤법의 연구	120
7. 외래어 표기법 및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법의 연구	121
8. 표준말의 연구	124
9. 국어의 조사 연구	124
10. 외래어 정리사업	125
11. 남북한의 주요 국어연구 대조 연표	128
V. 北韓의 言語生活	134
1. 문화구조	134
2. 문예정책	138
3. 문학의 장르	142
4. 존대법과 호칭어	146
5. 은어	149
6. 속담	159

7. 외국어 162

VI. 맺음말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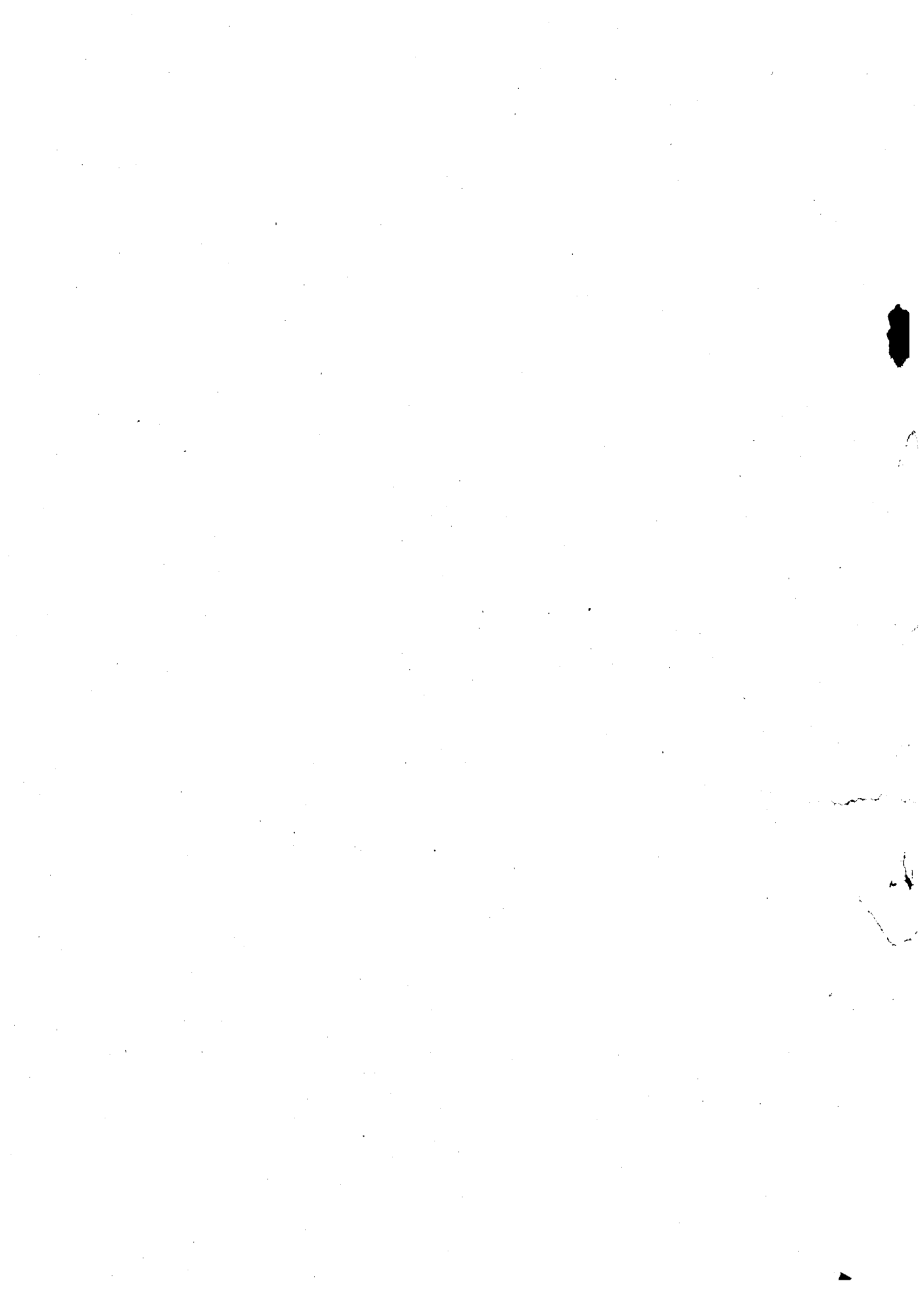
참고문헌 168

기회

본문

등장인물

판어



I. 서 론

1. 북한¹⁾ — 폐쇄정책에서 개방으로?

1945년 해방 후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벌써 36년 — 아마 한반도의 38선처럼 철저한 철의 장막도 세계사에 있어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두 지역 사이에는 서신 왕래나 라디오·텔레비전 교환이 있고, 친지 방문이 가능하며, 우리 것에 비하면 독일의 것은 〈싸리 울타리〉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면만 막히고 문화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호교류가 있어 왔던 것이다.

그후 세계적인 해방 무드를 타고 1971년말 우리 한반도에서 남북대화가 있는 지도 어언간 10년이 지났다. 잠시 반짝했던 남북대화로 인하여 굳게 닫혔던 언어장벽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나, 우리 민족은 처음으로 우리의 공통어가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환자가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끓아 들어가는 만성적 질환을 처음 발견했을 때와 같은 쇼크였다.

「우리 대한민국 적십자사 대표단 일행은 평양에 도착하여 초대소에 머물게 되었다」는 방송이 들려 왔을 때, 〈초대소〉가 도대체

주 1) 이 글에서 〈남한〉〈북한〉이란 용어는 공식적인 국명이나 정치성을 떠난 순수하고 객관적인 문화적 용어임을 밝혀 둔다.

뛰 나고,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 물어왔던 일²⁾, 북한의 대표단이 서울에 왔을 때, 텔레비전을 보던 국민학교 꼬마가 「야! 이북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리고 말도 한국말을 한다!」 하고 환성을 올렸던 일.

어른들은 말이 달라져서 놀랐고, 아이들은 생김새가 같아서 놀라게 된 것이다. 또한 어른들은 왜 아이들이 북쪽 사람들이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했을까, 그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과 한 핏줄을 타고난 같은 겨레라는 사실을 어떻게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있는 지 1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북한상황을 회상해 볼 때 그때와는 이미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즉, 남한이 건국 이래 개방정책을 써 왔다면 북한은 완전한 은둔사회로 존재해 왔다. 그러한 북한이 공산세계의 동향을 따라 고립된 폐쇄사회로서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생존경쟁해 나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극적이거나 문호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 적십자사의 본 회담이³⁾ 열리기 바로 전에 미국의 하바드

주 2) 1971년 11월~12월, 약 두달간 필자는 경향신문에 「남북의 언어장벽」이란 연재 컬럼을 썼다.

3) 남북 적십자사 제 1차 본회담은 1972.8.29~9.2까지 5일간 평양에서 처음 열렸다. 본 회담은 7차에 걸쳐 개최되었던 바 그 장소와 일시는 다음과 같다.

제 2 차	서울	1972. 9.12 ~ 16
3	평양	1972.10.24 ~ 26
4	서울	1972.11.22 ~ 24

대학 교수인 제롬 A. 코언 (Jerome. A. Cohen) 박사⁴⁾ 가족이 북경방문 귀국 도중 평양에 들렀을 때만해도, 외국인의 입국도 강력히 규제했거니와 방문 도중에도 마음대로 상점출입이나 관광을 할 수 없었고, 사진 촬영도 금지되고, 안내가 보여주는 곳밖에는 못 갔다고 한다.

1980 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제한적이거나 외국인들 특히 미국의 정치 학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남북대화에서 이루어진 안전은 하나도 없었으나 간접적으로 피차 양측에 끼친 영향은 컸다고 보며, 특히 북한측에서는 그로부터 10년 후 외국인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북한사회의 일부를 그동안 준비하였던 모양이다.

남한에서는 꾸준히 경제발전을 이루어 발전도상국의 위치에서 이미 세계의 선진국대열에 발돋움하고 있음을 그들은 남북대화 당시 은연중 열심히 관찰해 두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양쪽이 직접 만났고, 보았고, 말을 건넸다는 사실이다. 피부로 접촉하고, 눈으로 보고,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서는 남북의 장벽성을 제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2. <文化語>는 하나의 방언

언어는 정체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고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

주(계속) 제 5 차 평양 1973.3.21 ~ 23

6 서울 1973.5. 8 ~ 11

7 평양 1973.7.10 ~ 13

4) 동아일보, 1972.8.12.

다고 한다. 언어는 흔히 흐르는 물에 비교된다 (natural drift of the language). 흐르는 강물 가운데에 독을 세워 막아놓으면 물은 양쪽으로 갈라져 흐르게 마련이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1945년 해방 후 우리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갈라졌다. 남북한 왕래나 서신교환마저도 전무한 36년간에 걸쳐서 우리의 언어는 두 개의 다른 양상을 띄며 변천해 가고 있다.

옛날부터 우리 한국어에서는 <표준말>⁵⁾을 공식어로 모범적인 말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 남한에서는 아직도 표준말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들의 표준말을 소위 <문화어>라고 개칭했다. 표준말이라면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다고 하여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문화어>는 하나의 방언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한에 걸쳐 사는 우리 민족이 하나이고 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두 개의 표준말이 있을 수 없다.

<문화어>가 <평양말>이 중심이 되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중심>이 된 것이지 평양말 자체가 표준말이 된 것은 아니다. 만약 평양말이 그들의 표준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정거장>을 <덩거당>, <어머니>를 <오마니>, <여자 아이>를 <에미나>라고 해야 할 터인데 그들의 문화어는 <덩거당>이라 하지 않고 <정거장>, <오마니>라 하지 않고 <어머니>, <에미나>라 하지 않고 <여자 아이>라고 한다. <정거장>·<어머니>·<여자 아이>는 모두 다 표준말이다.

<문화어>를 표준어로 주장하기 전에 북한은 서울말을 근본으로

주 5) 표준말: 서울 중류계급의 언어를 가장 많이 내포한 현대 한국 말로서 한국의 여러 방언을 대표할 만한 표준이 되는 말.

하는 표준말을 그들의 공용어로 써 왔다. 현재 평양말이나 함경도 방언이 어휘면에서 문화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들은 넓은 전지에서 볼 때 종래의 표준말을 쓰고 있는 셈이다.

또한 오늘날 북한의 문헌을 보면 漢字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즉, 1949년 이래 북에서는 한자폐지를 단행하고 한글전용 정책을 써 왔다. 남한에서는 문학작품·대중잡지·학생들간에는 한글을 주로 쓰고 있지만 학술지나 기성세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국한문 혼용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두 가지 예를 보더라도 남한의 언어정책은 보수적이고, 언어의 자연적 흐름의 특성을 살려 서서히 언어정화를 하고 있는 반면에, 북에서는 일방적으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언어정책이 처방적·규범적이어서 일단 결정된 사항은 착오없이 시행된다는 점이 남한과 다르다. 즉, 남한에서는 기술문법 (descriptive grammar), 북에서는 규범문법 (prescriptive or normative grammar) 위주이다.

한자폐지를 하고 보니 1950년대에 북한에서는 예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 어려운 한자어가 완전히 우리 말로 변해 버린 어휘가 많아서 어디서부터가 한자어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고유어인지 구별하기 힘든 상태에서 한자어를 풀이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즉, <추수>란 말을 <가을 걷이>로, <운동화>를 <헝겂구두>, <관절>을 <뼈마디> 등으로 고치는 소위 <말 다듬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1954년 《조선어 철자법》이란 책이 나오면서 유독 눈에 띄는 것

은 소위 <사이표>의 사용으로서 <깃발>을 <기발>로 표기하는 것이었다. 6)

그후 1966년에 출판된 《조선말 규범집》이란 새로운 문법책의 등장과 더불어 <조선어 철자법>은 완전히 무효가 되었으며, 동시에 음성학적으로 비과학적인 사이표도 사라져버리고, <말다듬기 사업>의 연장인 소위 <문화어운동>이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변화현상들이 남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단지 남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시적으로 언어 정리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학술서클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이 다르며, 정부와 같은 강력한 추진력이 없어 그 실천이 부진하고 보급이 더딜 뿐이다.

남한에서 쓰는 《쉬운말 사전》(서울: 한글학회, 1967)을 보면 북한에서 다듬은 말과 똑같은 어휘들이 많다. 즉, 매점→가게, 주식→풀이, 홍수→큰 물, 인화지→사진종이, 개방하다→열어놓다, 선회하다→빙(빙)돌다 등은 남한과 북한의 양쪽 말이 똑같다.

3. 言語와 意識造와 가치관

「언어가 없이는 思考가 불가능하다 (no thoughts without language) 7)」라는 말은 조금도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절감한다.

주 6) 사이표는 대수롭지 않은 표기였지만, 필자가 유학 당시 1960년대에 처음 미국 도서관에서 《로동신문》을 보았을 때 신문의 全面이 한글로 되었을 뿐 아니라 가로쓰기(橫書)로 되었고, 또한 삐죽삐죽 사이표가 눈에 몹시 생소했다. 문자 그대로 한눈에 남한 간행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7) Max Muller : 독일의 언어 철학자. 여기서 <思考>란 <고차원의 사고>를 말하며, 즉 추상적 개념의 사유이다.

1755 - ... (1955 - ...)

인간의 언어와 사고와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 二元論적인 道具觀보다도 오히려 一體觀이 오늘날의 우세한 言語觀이라고 할 때 사고가 곧 언어이고 언어가 곧 사고라고 본다.

사고와 언어, 생각과 말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남북한의 말이 서로 달라진다면 같은 생각을 하기가 힘들고, 생각이 다르면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동일민족이라고 하면 혈통·언어·문화가 같은 한 겨레라야 하고 같은 영토에 살아야 한다. 혈통은 같지만 언어가 다르면 그 문화가 다르고, 또 분단된 영토에서 제각기 따로따로 헤어져 산다면 한 겨레라고 더 이상 말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남북한의 언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分岐變遷해 가고 있기는 하나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동일언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다른 언어가 되려면 그 두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야만 한다 (mutually unintelligible). 못 알아들을 단어가 아무리 많이 섞여 있어도 그 문법의 기본구조가 같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기초어휘가 같아서 빙빙 돌려 질문을 함으로써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두 사람은 두 개의 방언 (dialect) 을 하는 동일언어의 구사자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로서 남북의 언어의 격차는 方語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으나, 실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언어장벽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하다.

주로 어휘의 문제로서 그 소리(音)는 그대로인데 그 뜻(意味)이 분단 후 변화된 것들이다. 남북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

게 될 것이다. 反對로 零보다 작은 投資比率을 갖는 資産의 價格은 下落하고 期待收益率은 上昇하게 된다. 따라서, 各各의 모든 資産에 對하여 需要와 供給이 一致하기 위해서는 裁定利潤이 零이 되어야 하며, 이때에 市場均衡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市場均衡下에서 式 (2-6)으로 表示되는 裁定利潤은 零이 된다.

$$\underline{x} \underline{\bar{r}} = \underline{x} \underline{E} = 0 \quad \dots\dots\dots (2-7)$$

無危險裁定利潤이 零이 되도록 하는 均衡狀態가 實現되기 위해서는 式 (2-7) 以外에 投資比率合計 = 0인 條件, 式(2-3)과 體系的 危險 = 0인 條件, 式 (2-5)가 充足되어야 한다.

$$\underline{x} \underline{e} = 0 \quad \dots\dots\dots (2-3)$$

$$\underline{x} \underline{b}_j = 0 \quad (j = 1, \dots, k) \quad \dots\dots\dots (2-5)$$

$$\underline{x} \underline{E} = 0 \quad \dots\dots\dots (2-7)$$

위의 式 (2-3), (2-5), (2-7)으로부터 投資比率벡타 \underline{x} 는 單位벡타 \underline{e} , 要因係數벡타들 \underline{b}_j , 期待收益率벡타 \underline{E} 와 直交的 (orthogonal) 關係에 있다.¹⁰⁾ 따라서 期待收益率벡타 \underline{E} 는 다음 式과 같이 벡타 \underline{e} 와 要因係數벡타 $\underline{b}_1, \dots, \underline{b}_k$ 의 一次結合으로 表示할 수 있으므로 \underline{E} 는 \underline{e} 와 $\underline{b}_1, \dots, \underline{b}_k$ 와 다음과 같은 關係를 갖는다.

註 10) 線型代數 (linear algebra)에 있어서 $X'Y = Y'X = 0$ 및 $X'X \neq 0$, $Y'Y \neq 0$ 일 때 두 벡타 X 와 Y 는 直交的 關係에 있다고 한다. J. Johnston, *Ecometric Methods*,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2), p. 104.

1981년 11월 16일 남한에서는 「남북의 고고학 자료교환 및 제 3국에서의 양측 미술품 전시회」를 가질 것을 북한측에 제의한바 있다. 가장 비정치적인 분야 즉, 체육이건 미술이건 또 어떠한 형태로든 하루 속히 남북의 접촉이 있어야 남북의 우리 동포들이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가 증진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독자에게 알리고 싶은 점이 있다. 우선 본문고는 이제까지 북한언어에 관해 연구된 모든 국내외의 딱딱한 학술논문들을 먼저 학생들이 읽기 쉽게 교양서적처럼 기획해 보았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 글은 주로 북한의 인쇄물을 통해서 연구된 것이므로 실제로 일상 언어생활에 있어 과연 얼마만큼의 <문화어>가 북한 대중에 의해 구어체로 사용되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중 언어사회 (bilingual community) 에서처럼 공적 생활에서는 <문화어>를 쓰고, 가정생활에서는 재래용어를 마음 편히 쓰리라는 추측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북한언어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애로점은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입수할 수 있는 자료도 계통적이 못되고, 또한 북한문헌에 주어진 통계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이다.

주 9) 말 다듬기를 신중하게 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 (《문화어 학습》 1981. No. 3)은 과거의 지나치게 어휘를 풀어 쓴 데 대한 반동적인 글이다. 즉 「학교」 「삼각형」처럼 우리의 말로 굳어진 말은 「배움집」, 「세모꼴」이라고 구태어 다듬지 말고 그냥 두고 써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인민 대중이 이해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은 제 1장에서 북한언어의 구조적 분석을 간단히 다루고, 제 3장에서는 이 문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북한의 언어정책을 자세히 설명한다. 제 4장은 남한의 언어정책인데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충 줄거리만 취급했으며,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만 상세히 다루었다.

제 5장은 북한의 언어생활이다. 이 분야 역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분명히 알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그들의 언어정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은 인쇄물을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 6장은 결론으로 되어 있다.

II. 北韓 言語의 구조적 분석

우리 말인 한국어는 계통 분류상 몽고어·터어키어·만주 - 퉁구스어와 함께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우리 말은 비교적 단일언어로서 발전해 내려와서 고려 이후에 중부 방언이 국가의 공통어로서 표준어가 된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약 36년 동안에 남북의 분단으로 인하여 한국어가 두 갈래로 분기되어 단일언어가 이질화 현상으로 남북한 사람간에 의사소통이 불편하게 되었다. 음성·음운체계와 형태론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고 통사론에서는 별 변화가 없으나, 어휘면에 있어서 특히 의미론적 측면에서 심각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체론에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질화 현상을 보여주는 어휘 의미론적 분석부터 살펴보자.

1. 어휘 의미론적 분석

오늘날 북한어휘에는 남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낯선 어휘들을 몇 개의 예를 들어 체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본다.

(1) 고유어로 다듬어진 말

추수 → 가을걷이

역우 → 부림소

관절 → 뼈마디

파마 → 볏음머리

살균 → 균 죽이기

치자 → 이바퀴

인력 → 끌힘

폐활량 → 폐숨량

다다미 → 누비 돛자리 멸균 → 균 깡그리 죽이기

(2) 형태가 다르고 뜻이 같은 말

채소 → 남새 상호 → 호상
화장실 → 위생실 수표 → 행표
양로원 → 양생원 보증하다 → 담보하다
귀순자 → 의거자 상이군인 → 영예군인
관상대 → 기상 순무국

(3) 형태는 같고 뜻이 다른 말

북한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은 말.

아버지 : 北-상징적으로 김일성을 가리키는 말.

南-친부모

가족주의 : 北-몇몇 사람이 정실관계를 맺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일종의 종파주의

南-가족제도에 입각한 입장에서 국가나 사회의 정책을

주장하는 주의

빨찌산 : 北-혁명적 영웅의 뜻으로 좋은 의미

南-악질적인 공산 계렬라

아가씨 : 北-사또·마님 등과 함께 봉건사상을 나타내는 나쁜 뜻

南-젊은 미혼여성

궁전 : 北-사회적 사명을 띤 훌륭한 건축물

㉠ 소년~, 문화~, 로동~, 아기~.

南-왕의 집

왕(군주) : 北-〈가장 중요한〉이란 뜻.

㉞ 철과 기계는 공업의 ~이다.

예술: 北-기술과 숙련의 뜻이다.

㉞ 피바다는 불후의 ~이다.

군사~을 습득하자.

<궁전>이나 <왕>의 본뜻은 군주제도와 함께 북한에서는 사라진 의미들이다.

(4) 방언이 문화어로 된 말

거위 → 기사니(평안도)

수레 → 달구지(평안도)

상추 → 부루(평안도)

못쓰게 망가뜨리다 → 마스다(함북)

강냉이 → 옥수수(평안도)

(5) 북쪽에만 있는 말

밥공장: 출퇴근하는 주부들이 식권을 맡겨 놓고 끼니 때 밥을 사가는 곳.

노르마: 작업 기준량 단위

공민증: 만 18세 이상 늘 휴대하는 신분증, 북한에는 호적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유일한 신분 확인방법이다.

인민배우: 배우 급수 중 가장 높은 배우

20호: 사람 몸에 기생하는 이(虱)를 가리키는 말로서 북한당국이 <내각결정 20호>로서 이 잡기 운동을 벌인 이래 20호라 부르게 되었다.

사로청(社勞廳):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의 약칭으로 1964년 5월 12일 민청(民靑)을 <사로청>으로 개편하여 개칭하였다.

독보회(讀報會) :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모임으로서 주로 신문이나 김일성의 연설문을 읽고 이 모임을 가진다.

기업소(企業所) : 생산·교통·운수·유통 기타 경제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체.

계관상(桂冠賞) : <월계관>의 뜻으로 여러 사람 중에서 특출하여 일정한 영예상으로서 예컨대 문학작품 중에서는 <인민 계관상 작품> 따위가 그것이다.

국제열차 : 평양과 모스크바간 혹은 평양과 북경간의 직통열차를 말하는 것으로 모두 주 2회 운행한다.

밭머리총회 : 북한의 농촌에서 하루의 작업이 끝난 후 농민들을 밭머리에 모아놓고 진행하는 작업평가회의를 말한다.

셋벌보기운동 : 북한에서 성행하는 많은 운동 중의 하나로서 농민들이 새벽벌을 보면서 일터에 출근했다가 저녁벌을 보면서 귀가한다는 운동.

11호 병원 : 북한 인민군의 종합병원을 가리키는데 6.25 때 사용하던 명칭

10호 상점 : 당 및 정부 고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상점으로 평양 역전에 있다.

주탁아소·월탁아소 : 주부가 일주일 혹은 한 달씩 어린 아이들을 맡기는 곳.

(6) 외래어

<소련어>

그룹→그루빠

주제→제마

개→싸바카

집중사업→깜빠니아

종합공장→콤비나트

공동집단→콤무나

소년단→삐오네르

<영 어>

엔진·텔레비죤·메달·미터·와이샤쓰·서클·카메라

<외국 지명>

헝가리→웡그리아

루마니아→로르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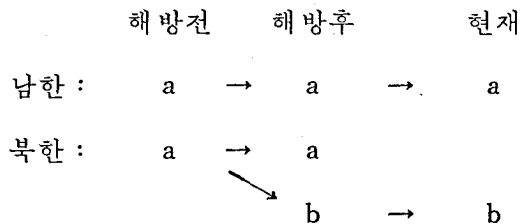
북경→베이징

월남→웡남

체코슬로바키아→체코슬로벤스꼬

위의 예는 견본에 지나지 않는다. 좀더 충분하고 분야별로 다듬어진 용어들은 제 3장에서 다루겠다.

특기할 것은 <형태는 같고 뜻이 다른 말>이다. 남북의 분단이후 남한에서는 본래의 의미가 그대로 현재까지 전해 내려온 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얻은 낱말의 예들이다. 즉, 북한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가 변함에 따라 그 환경에 맞는 은유적 의미가 살아나서 확대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 현상을 보편화해서 아래와 같이 의미변화를 표시해 본다.



즉, 북한에선 본래의 의미 (a)와 새로운 의미 (b)가 공존해 있으

2. 음성학적 분석

음성·음운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음과 자음에 있어서 남북의 언어의 차이가 있다.

(1) 모음 변화

a) ㅣ로 끝나는 음절 앞에서 ㅜ는 ㅜ로 쓰고 발음한다.

견더기 → 견데기	구더기 → 구데기
꾸러미 → 꾸레기	구덩이 → 구뎅이
누더기 → 누데기	무더기 → 무데기
우렁이 → 우렁이	엉덩이 → 엉뎅이
검부러기 → 검부레기	능구렁이 → 능구뎅이
찌르러기 → 찌르레기	부스러기 → 부스레기

b) ㅣ로 끝나는 음절앞에서 ㅗ는 ㅗ로 쓰고 발음한다.

곰팡이 → 곰뎡이	꼬랑이 → 꼬뎡이
논장기 → 논쟁기	마상이 → 마생이
싸라기 → 싸래기	딸랑이 → 딸뎡이
바스라기 → 바스래기	본토박이 → 본토뎡이
자세하다 → 재세하다	나무가장이 → 가무가쟁이

c) ㅜ나 ㅡ는 ㅣ로 쓰고 발음한다.

수줍다 → 수집다	기주떡 → 기지떡
부수다 → 부시다	부스스 → 부시시
비슬거리다 → 비실거리다	마무르다 → 마무리다
노가주나무 → 노가지나무	두루몽실하다 → 두리몽실하다

d) 귀는 ㅍ로 쓰고 발음한다.

위에	→ 우에	백다귀	→ 백다구
결귀	→ 결구	문어귀	→ 문어구
귀룽나무	→ 구름나무	귀룽자리	→ 구름자리

e) 기와 ㅍ는 ㅍ로 쓰고 발음한다.

먼지	→ 몬지	버선	→ 보선
복새	→ 북새	오줌	→ 오쭼

f) 외는 ㅍ나 ㅍ, 이로 쓰고 발음한다.

물외	→ 물오리	쇠고기	→ 소고기
----	-------	-----	-------

g) 레는 레로 여는 ㄹ로 쓰고 발음한다.

치레	→ 치레	결레	→ 쥬레
버럭	→ 버럭	계면쩍다	→ 계면쩍다
케케묵다	→ 케케묵다		

h) 모음조화를 파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말들의 예

거저리	→ 거자리	갈고리	→ 갈구리
거머리	→ 거마리	차갑다	→ 차집다

위의 모음변화에서 두 가지 원칙이 작용한다. 첫째, 북한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현실에 가깝게 발음하고,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즉, 발음되는 대로 적고, 또 사투리에 가까운 발음이라 해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을 채택하여 문화어의 수준에 올려 놓는 것이다. 둘째, 모음조화를 파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문화어도 있다.

위에서 a)와 h)가 그것이다. 발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발음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 중의 한 가지는 a)와 b)는 前音化(frontalize) 현상이고(ㄱ→ㄲ, ㅋ→ㆁ), d)와 f)는 後音化(back vowel) 현상이다(ㅣ→ㅓ, ㅜ→ㅛ). 모음발음은 양극화시키므로 발음이 분명해진다.

(2) 자음 변화

① 경음화 현상

분명한 발음을 하려는 노력은 북한말의 자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자음에서는 발음되는 대로 쓰는 원칙이 우세하고 된소리를 많이 쓴다.

논둑	→ 논뚝	고니	→ 꼬니
숙새	→ 쭉새	술다(벌레가)	→ 쓸다
원수	→ 원쑤	복수	→ 복쑤
그그제	→ 그끄제		

② 表音的경향(어원에 상관없이 발음대로 쓰는 예)

넉두리	→ 녉두리	들입다(밀다)	→ 드립다
벗나무	→ 뵈나무	넙적다리	→ 녉적다리
밟다듬이	→ 발다듬이		
밀두리코두리	→ 미투리코투리		

③ 表音的경향(이외에도 ㅅ→ㅎ으로 표준화하는 경향이 있다.)

고갯십	→ 고개힘	셈들다	→ 험들다
다리십	→ 다리힘		

④ 과장된 규칙화 경향 (또한 첫소리 ㄹ의 지나친 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ㄹ → ㄴ의 교정

룩두 → 녹두

룩말 → 녹말

로망 → 노망

로곤하다 → 노곤하다

나) ㄹ → ㅇ의 교정

련어 → 연어

령락없다 → 영락없다

룽마루(지붕의) → 용마루

료정을 내다 → 요정을 내다

⑤ 남북한의 첫소리 ㄴ, ㄹ과 사이표의 사용법 대조

남·북	南의 예	北의 예
ㅇ·ㄹ	이해(理解)	리해·리순신·력사·량심·료금·류학·리유·례의
ㄴ·ㄹ	노력(努力)	로력·로동·롱담·랭면·락원·루각·룽묘·래일
ㅇ·ㄴ	여성(女性)	녀성·뉴대·념원·녕변·뇨도(尿道)·니탄(泥炭)
ㅅ·'	깃발(旗)	기'발·머리'말·둥'불

ㄴ, ㄹ의 頭音법칙이 무시되는 이유는 북한에서는 한자어 기원의 단위에서 본음이 ㄴ, ㄹ일 때는 어느 위치에서나 본음대로 적고 발음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954 ~ 1966년 동안에 사용되었던 사이표는 된소리를 나타내는 사이시옷의 역할을 한다. 1966년 이후 <기'발>은 <기발>로 적는다.

⑥ 그 외에 다른 말

맞춤법에 있어서 남한에서 <— 습니다>로 쓰는 것을 북한에서는 <— 습니다>로 쓴다. 그 예로, <입습니다·없습니다·하였습니

다>로 각각 쓴다.

또 <-었다>를 북에서는 <-였다>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기
였다·개였다·배였다·되였다·쥐였다·희였다·하였다, 즉, 어간의 모
음이 (1) 개·배·되·쥐·희·하 인 경우와 어간이 <하>일 때 그렇게
적고 그외에는 북에서도 「-었다」로 적는다.

⑦ 複數개념의 강화

한국어는 본래 숫자에 대한 개념이 희미한데 최근 북한에서는
명사의 複數를 강화하여 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엿보인다.

예: 「말을 다듬는 데서 단어들의 뜻과 결합관계를 고려할 데 대
한 김일성동지의 교시해설」,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들
을 이룩했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3. 형태론적 분석

형태론이란 形態素가 그 단위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낱말>이
나 <어휘>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몇 개의 형태소가 북한말 구조에서 생성적인 발달을 보
이고 있다. 이것들을 유형별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남한에서 침체되어 있는 어미들이 북한에서 개발되어 생성적
인 형태소를 이루고 있다.

예 -히다 : 잡히다·생각히다 (생각이 나다·생각이 되다)·깊히
다 (깊게 하다)

-지다 : 그늘지다·기름지다·장마가 지다·차레지다 (차레가 가
다·차레가 오다)·주렁지다 (주렁주렁 열리다)

-차다 : 습차다 · 힘차다 · 영광차다 · 희망차다 · 부람차다

-맞다 : 방정맞다 · 급해맞다 · 바빠맞다

-겹다 : 눈물겹다 · 힘겹다 · 정겹다

-롭다 : 해롭다 · 슬기롭다 · 저주롭다 · 영예롭다 · 고르롭다

-적 : 인민적 · 당적 · 조직적

-성 : 소심성 · 대담성 · 당성 · 실천성

-운동 : 북한에는 소위 사회주의 경쟁운동으로서 <<북한용어
대백과>>에 실린 것만 해도 6백 13가지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고도로 생성적인 요소를 이룬다.

㉞ : 새벽별 보기 운동 · 고속도 굴뚝기 운동 · 국 안 먹기 운동 ·
뚜껑벗기기 운동 · 물주머니만들기 운동 · 붉은 주머니차기 운동
· 빈 손 퇴치 운동 · 여성호 탱크 헌납 운동 · 천 삼 뜨고 허
리펴기 운동 · 한짐 더지기 운동 · 장기 시집가기 운동 · 호랑이
잡기 운동

㉞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진 형태소들로서 전통적인 패턴에 맞
게 구성된 것.

-어 나서다 (동사) : 떨쳐 나서다 · 도와 나서다 · 궂기하여 나
서다 · 지지하여 (반대하여) 나서다

-어나다 (형용사) : 부러워나다 (부러워지다) · 좋아나다 · 더워나
다 · 당황해나다

-을 데 대하여 (동사) : 전통적인 표현방법은 「-는 데 대
하여」이다.

㉞ :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협조할 데 대하여…」

-을 대신에 (동사) : 표준말로 표현하면 「-어야할 텐데」에

해당된다.

㉔ : 「어른들이 갔을 대신에 아이들을 보냈다」

가랑 (명사) : 가랑비 · 가랑파 (가는 파)

날 (명사) : 날고기 · 날바늘 (실을 꿰지 않은 바늘)

③ 명사가 사람이거나 생명이 있는 것에만 사용하던 형용사나 동사를 생물이 아닌 물건이나 추상적인 사상을 수식하는 경향이 있다. 「생활이 …을 보여주다」(즉, 생활을 통해 …을 알 수 있다), 「준엄한 시기」, 「부르짖 사상과 투쟁하다」, 「믿음직한 초소」, 「경험이 어리다」, 「사회정치적 성격을 띤 올림말에는 ☆를 하고… 교시를 얹히었다」

④ 외국어구의 차용번역으로부터 생성된 예.

「놀다」(소련어구 ‘play a part’) : 작용을 놀다 · 역할을 놀다 · 방해를 놀다.

4. 문체론적 분석

(1) 북한 글의 제목의 서술적 경향

북한의 문헌을 보면 남한 사람의 눈에는 그들 글의 제목들이 다분히 서술적인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남한 사람이 쓴 글은 대개 제목이 文句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북한글의 제목은 과반수가 서술적인 문장으로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장황하고, 격려 내지 선동적인 특징을 보인다.

남한글의 예 : <남북연방제도론의 진단> ·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계의 분석 · 북한의 정치문화 등

북한글의 예 :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유능한 언어학전문가는 튼

튼히 준비해 나간다.]

「언어문제는 정치적 립장에 관한 문제이다.」

「언어는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을 국어교육분야에서 활짝 꽃피우자.」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언어사용의 빛나는 규범을 따라 배우자」등이 그것이다.

(2) 방송언어나 연설문·잡지 제목의 호소적 경향

또 방송언어나 연설문·아동교육잡지 같은 데의 제목을 보면 대중이나 독자를 향한 객관적인 평서문이 아니고 마치 神(김일성?)을 향해 직접 호소하는 식으로 충성을 서약하는 느낌마저 풍긴다. 예를 들면, 「새해에는 다듬은 말을 널리 써 나가렵니다.」 「학교에서부터 어학혁명을 힘있게 벌리렵니다.」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송이나 연설문을 들어 보면 그 억양은 더욱 호소적이고 애처롭다.

(3) 文章體보다는 句語體를 애용하는 경향

문장체와 구어체를 각각 북한에서는 <글말>·<입말>이라고 한다. 즉,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 문풍을 따라 배우자」라는 칼럼에 「입말투의 토를 살려 쓰시여」라는 글이 있다(문화어 학습 1976. No. 3).

이 글에서 저자는 소위 「인민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말인 입말

이 가지고 있는 알기 쉽고 소박하며 구수한 특성을 우리말의 귀중한 재부로 여기시고 수많은 고전적 로작들과 교시들에서 입말투의 우수한 요소들을 훌륭히 살려 쓰시여 알기 쉽고 구수하게 문장을 짜는 본보기를 보여주셨다」고 전제하고, 예를 들면 입말투의 토 < -리라 >의 효과를 찬양한다.

「앞으로 투쟁 속에서 더욱 작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라든가, 「그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하는 김일성의 어투는 좀더 딱딱한 문장체인 <작성될 것이라고>·<물러갈 것이라고>를 피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언어가 문장체보다는 구어체로, 세련되고 위엄있는 글이기보다는 비공식적인 회화체로 변모해 가는 경향에는 김일성의 개인어(idelect)나 그의 언어습관을 모방케 하려는 그들의 언어정책이 크게 작용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Ⅲ. 北韓의 言語政策

북한언어 변화에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검토해 보면
서 그때마다 어떠한 언어정책이 수립되고 또 그 정책들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나를 살펴보자.

1. 漢字폐지 한글전용 실시

북한 언어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들은 대개 맞춤법 개혁·새로운 문
법책의 발행·김일성의 언어학자들과의 담화가 그 계기가 되어 왔
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남한과 북한은 양측이 다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제정 발표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계속 사용하는
국한문 혼용제도를 지켜 왔다.

그러다가 1949년 북한에서는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와 동시에 한
자폐지를 단행하고, 한글전용정책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자 漢字폐지에서 오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새
로운 국어정화사업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것이 소위 <말
다듬기운동>이란 것이다.

한자를 모르는 새 세대 학생들이 한자어를 그대로 우리글로 표
기하게 되니까 <식사를 한다>대신 <식사를 먹는다>고 하기도 하
고, <두통이 난다>대신 <두통이 아프다>하기도 하는 등 한자어
의 誤用이 잦고, 또한 어려운 한자어의 同音異意語를 우리말 표기
로만은 그 뜻의 구별이 힘들게 되었다. 즉, <명문>이라면 名門·
名文·明文·命門 중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漢字語를 될 수 있는

한 고유어로 풀이해 놓는 말 다듬기사업의 동기가 된다.

단지 한문교육은 전공과목으로써 극소수의 전공하는 학생에게만 한문학으로 가르치고 연구하게 하여 전문가로 육성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고전을 현대문으로 번역하게 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한글전용정책은 또한 1950 년대의 북한의 교육체제와도 직결된다. 1930 년대의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한국민의 68%가⁹⁾ 문맹이었다고 한다. 1948 년에 북한당국은 당시 북한인구의 거의 1/4 인 약 2 백 30 만명의 문맹을 퇴치하는 성과를 과시했다고 하는데¹⁰⁾ 한글전용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즉 한글전용정책은 북한언어의 사회화(Socialization)에 기여한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국민학교의 국어시간이 주당 6 시간(전과목 시간의 25%)인데 반해 북한은 13 시간이며, 즉 전체시간의 50%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국어교육에 전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60 년에 발행된 《국어독본》¹¹⁾ (성인학교용·청년학교용·중고편입생용)의 내용을 잠깐 드러다보는 것도 흥미있다. 활자는 특대자로 그 크기가 사방 5 밀리가량 되고 굵게 인쇄하여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과 소위 <수령님>에 관한 내용인데 유일하게 제 17 과는 <을지문덕장군>이고 제 18 과는 <리순신장군과 거북선>이다.

주 10) Kim Chin-W. p. 13.

11) 《국어독본》, 성인학교용·청년학교용·중고용·편입생용, 동경: 학우서방, 1960.

봉건사회제도라 하여 <조선왕조>시대를 인정하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이순신장군을 소개했나 하는 것이 궁금했다. 「이순신장군은 어렸을 적부터 총명하고…」식으로 막연히 시작하여, 이왕조(李王朝)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이라 하고, 「왜적 풍신수길이란 자가 5만의 군사로…」등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역사적 인물로 등장시켰다. 독자는 단지 그 내용에 두어진 연대 1592년이라든지 이순신장군이 전사한 1598년 등으로 미루어 역사를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북한에서는 그들의 공산주의 이념과 노동당 정책을 일반대중에 하루 속히 전달하고 세뇌하기 위하여 한자교육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일찌기 대중문화권 내에서의 언어교육은 한글전용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터득했던 것 같다.

대중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국어교육을 시켜온 것까지는 좋았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 한계를 모르고 언어를 사상투쟁의 무기화하는 극단적 언어정책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 《조선어 철자법》

(1) 대내외적 배경

1949년 한글전용을 실시한 북한은 1954년에 《조선어 철자법》을 출판함으로써 한자폐지 후 5년간에 일어난 모든 부작용을 한편의 책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그 당시 이 책이 나오게 된 국내의 동기는 위와 같았거니와 대외적인 분위기 또한 새로운 언어학적 연구와 결정체가 나올 만하였다.

1950년 공산세계의 주종국인 소련에서 30여년간 추앙받던 공산권의 <마르 언어학>이¹²⁾ 스탈린의 신랄한 비판을 받고 무너지는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다.

스탈린은 마르 사상인 언어의 이데올로기성과 프롤레타리아 國際語를 부정하고 민족어를 향상·발전시킬 것등을 천명하였다. 그는 「언어가 인간의 사상을 교환하는 수단이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언어의 계급성이나 언어의 전인민성을 전적으로 부인하였다.

동시에 소련에서 유물론적 언어학이 무너지고 소련 언어학이 西歐 언어학으로 복귀되는 일대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무렵 북한의 이웃인 중공에서도 한자개혁문제가 중국민족발전의 역사적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1949년 중국대륙이 공산화된 이후부터 줄곧 큰 관심을 집중시켜 온 한자개혁문제는 「세계의 모든 文字가 表音文字化하는 일반적인 추세를 따라 한자도 개혁되어야 한다」는 1951년 당주석 모택동의 지시에 의거, 그 이듬해 기본연구가 시작되었고, 1958년에는 수상 周恩來가 3단계 한자개혁지침을 밝혔다.¹³⁾

이 3단계개혁은 ① 字形의 간소화를 위해 획수를 줄이고, ② 常用漢字의 발음을 北京語 중심으로 보편화하고, ③ 궁극적으로는 한자를 로마자의 알파벳으로 표음화하는 것을 말한다.

주 12) 《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 《北韓文北論》, 제 4장 (金敏洙), pp. 217~222.

13) 《조선일보》 1975.8.20. 「중공 漢字改革 본격추진」 중국 한

이 3 단계 중 제 1, 제 2 단계가 완결되려면 아직도 많은 세월을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1975년 9월부터 한자의 궁극적인 철폐를 목적으로 본격적인 알파벳 표음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보도되었었다.

2~3년이 아니라 20~30년 또는 수 세대가 걸릴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문자개혁을 위해 수년 전부터 중공의 각급 학교에서는 알파벳으로 표기된 한자가 사용되어 왔고, 또한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상점이나 공장간판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도 알파벳 표기 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1971년부터 유엔우표에도 중공의 文華바람이 불어 대만식의 漢字를 몰아내고 중공식의 略字가¹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조선어 철자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간단히 요약해 본다.

자의 총수 5만여字 중에서 일상어는 약 5천字이며 무식을 면하기 위해 암기해야 할 字數는 최소 약 1천 5백字로 족한다. 모택동선집에 수록된 총자수는 66만語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된 기본한자는 약 3천자에 지나지 않는다.

- 14) 《경향신문》 1971.11.11. 「유엔우표에도 文華바람」 원래 유엔우표는 5개국어 - 영어·불어·스페인어·소련어·중국어 - 로 표시되는데 종래의 <聯合語>에서 첫자와 끝자가 중공이 1950년대부터 내놓은 1천 8백개의 한자약어에 속하므로, 예를 들면 첫자는 5획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갑>

<을>

세계

세계

제도

제도

채류

채류

폐회

폐회

그러나 <揭>만은 본음대로 <게>로 적는다.

예 : 게시판

② 한자어 기원의 단어에는 모음 <니, ㅣ>가 들어 있는 음절로는 <회>·<의>만을 인정한다.

례 :	회의	희망
	유회	유회
	의학	의의

③ 단어들도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례 : (갑을 취하고 을은 버린다)

<갑>

<을>

말씀

말씀

벌써

벌써

그러나 토에 있어서는 비록 <ㄹ>다음에 된소리를 내더라도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례 : (갑을 취하고 을은 버린다)

<갑>

<을>

-ㄹ가

-ㄹ까

-ㄹ수록

-ㄹ쭈룩

-ㄹ지라도

-ㄹ찌라도

-올시다

-올씨다

④ 어간이 <아·어·여> 또는 <았·었·였>과 어우를 적에는
모음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잘라 적는다.

어간의 모음이

<아, 야, 오, 아으, 오으>인 경우: 아, 았

<어, 여, 우, 으, 어, 어으, 우으, 으으, 이으>인 경우: 어, 었

<이, 애, 예, 외, 위, 의>인 경우 및 어간의 끝소리가 <하>
인 경우: 여, 였

가) <아>, <았>으로 적을 경우

막다	막아	막았다
얹다	얹아	얹았다
오다	와	왔다
따르다	따라	따랐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나) <어>·<었>으로 적을 경우

겪다	겪어	겪었다
넣다	넣어	넣었다
두다	두어	두었다
크다	켜	켰다
거르다	걸러	걸렸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치르다	치러	치렀다

다) <여>, <였>으로 적는 경우

개다	개여	개였다
----	----	-----

기다	기여	기였다
되다	되여	되였다
배다	배여	배였다
쥐다	쥐여	쥐였다
희다	희여	희였다
하다	하여	하였다

⑤ 「합성어의 사이에 첫번째 어근의 끝소리가 모음이거나 <ㄴ>, <ㄹ>, <ㄱ>, <ㅇ>인 때의 재래의 소위 <사이스>소리가 나는 것과, 둘째번 어근의 첫소리가 <야>, <여>, <요>, <유>, <이>인 때에 다시 구개음화한 <ㄴ>나 <ㄹ>가 나는 것은 그 중간에 <사이표>(')를 둔다.]

가) 소위 <사이스>소리가 나는 것

례: 그믐'달	기'발	길'짐승
나'루배	날'짐승	낚시'대
내'물	당배'대	들'것
들'돌	들'보	들'춤
등'불	디딜'방아	뒤'간
문'간	물'것	밭'새
보리'짚	불'길	배'전
손'등	초'불	코'날코
움'집	일'군. 등	

나) 소위 <사이스> 소리와 다시 구개음화한 <ㄴ>나 <ㄹ> 소리가 나는 것.

례: 겹'이불	공'일	낮'일
---------	-----	-----

논'일	낯'요강	담'요
들'일	대'일	물'약
밤'이슬	밭'이랑	버'들잎
부엌'일	베개'잇	속'일
жат'옛	콩'옛	편'웃
홀'이불	꽃'일	앞'이마
어금'이	웃'입자	이불'잇

다) 한자어로서 이에 준할 만한 경우에도 <사이표>를 둘 수 있다.

례 : 군'적(郡的)	도'적(道的)
대'가(代價)	리'과(理科)
호'수(號數)	수'자(數字)

접두사와 어조 사이에도 <사이표>를 둔다.

례 : 덧'이	새'노랗다
깃'이기다	시'누렇다
홀'이불	해'꼭식
헛'일	해'조

3. 말 다듬기 운동

북한의 말 다듬기운동은 1949년 한자폐지 이후 꾸준히 벌여 온 운동으로서, 그 내용은 어려운 한자어를 쉽고 아름다운 우리 고유어로 풀이해 (Nativization) 쓰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휘정리사업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준하여 행하여졌다.

- ① 한자어와 고유어가 있을 때 가능한 한 우리의 고유어를 쓴다.

예 : 근래 → 요즘 수차 → 여러 번

과거 → 지난날

② 한자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풀이해서 쓴다.

예 : 주지의 → 다 아는 씨브 → 던지기 불

독백 → 혼자말 스파이크 → 순간 타격

③ 기본적인 한자어는 그냥 쓴다.

예 : 동·서·남·북·강산·법률·교육·산업·학교·조국

④ 고유어로 풀이할 때는 어휘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반대말·비슷한 말·합성어 구성이 어울려야 한다.

예 : 피경 → 덩이줄기 근경 → 뿌리줄기

근사(영화 용어) → 가까이 찍기

대사 → 크게 찍기

원사 → 멀리 찍기

⑤ 합성어일 때는 어느 한쪽만 다듬어도 된다.

예 : 전기용접 → 전기 뿔

⑥ 외래어는 라디오·미터·샤쓰와 같이 국제화된 용어 외에는 기본적으로 고유어로 바꾼다.

⑦ 일어의 잔재를 근절한다.

예 : 운동화 → 형접 구두 시아게(仕上) → 끝손질

이러한 말다듬기 운동은 1966년 이후 새로운 문화어운동으로 발전해서 더욱 철저하게 전개되어 갔다.

이 말다듬기는 한자어와 일어 및 그 문체들을 주대상으로 한 것인데 문화어에는 모든 외래어를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4. 《조선어 문법》 15)

일리노이대학교의 교수인 김진우는 그의 논문에서 북한 언어학자들의 2차대전 후 3대엽적 중의 하나가 바로 1960-61에 2권으로 나온 《조선어 문법》이라고 하였다(두번째가 같은 해에 나온 6권의 《조선말 사전》이고, 세번째 나온 것이 김일성의 두 담화를 현실화한 북한의 언어정책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언어학자들이 공저로서 해방 15주년 기념저서였다.

《조선어 문법》의 요점을 적어 본다.

(1) 모음

모음은 홀모음 10개와 겹모음 11개를 인정한다.

홀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ㅢ

겹모음 :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ㅢ

다음은 모음 도표이다.

입	혀	前	舌	中	舌	後	舌
달	힘	ㅣ (ㄱ)		—		ㅌ	
반 달	힘	ㅑ (ㄴ)				(ㅕ)	
반 열	림	ㅓ				ㅗ	
열	림			ㅕ			

주 15) Kim Chin-W. pp. 4~9. 여기에서 논하는 《조선어 문법》(1960)은 저자가 제 1권만 보고, 제 2권은 보지 못했음을 밝힌다.

()는 圓喉音이다. 보통 중설음으로 간주되는 ㄱ가 북한에서는 후설음으로, 남한에서는 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는 ㄱ과 ㄴ가 단모음으로 취급되는 것이 특이하다. ㄷ도 강조할 때만 약간 원순성이 있고, 보통은 ㅈ 음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1979년판 《조선문화어문법》(p.29)에는 또다시 (ㄷ)로 하여 원순음으로 분류하였다.

(2) 자음

자음 도표는¹⁶⁾ 다음과 같다.

구 분	입술사이	혀 끝	앞입천장과 혀바닥사이	혀 뿌리	후 두
순 환 소 리	ㅁ ㅂ	ㄴ ㄷ ㄹ	ㅅ ㅆ	ㅇ ㄱ	ㅇ
된 소 리	ㅃ	ㄸ	ㅅㅅ ㅆㅆ	ㄲ	
거센 소 리	ㅍ	ㅌ	ㅈ	ㅋ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ㄴ, ㄷ과 같이 齒音(dental)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진우는¹⁷⁾ 「ㅅ, ㅆ, ㄹ을 <앞 입천장음

주 16) 《조선어 문법》, 상계서, p. 16.

17) Kim. Chin-W. 상계서 p.6. "One interesting point is that, s, ss and I(, ,) are classified as prepalatals together with c, ch and cc(, ,). It has been traditional to group them together with t and n(, ,) as dentals. I am not sure if the chart reflects the pronunciation of the standard (Pyongyang) dialect. There are 13 diagrams showing various tongue positions (whether they are actual X-ray tracings is nowhere specified), but none substantiates the claim that s, ss and I are prepalates."

(前硬口蓋音 - prepalatal) > 으로 간주하여 ㅈ, ㅉ, ㅊ과 함께 분류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전통적으로 그것들은 ㄴ, ㄷ과 같이 처음으로 간주하는데 아마 이 도표는 평양말의 발음을 반영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을 보면 《조선어 문법》(1960년도 판)은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보는 자음 도표와 다른 도표임이 틀림없다.

《조선어 문법》 제 2 권에서는 문장론을 다루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a) 낱말의 문법적 관계 (내포문 · 삽입문 등)
- b) 문장의 종류 (평서문 · 의문문 · 명령문 등)
- c) 문장의 구조 (단문 · 복문)

마지막 <문장의 구조>는 제 2 권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pp. 94 - 289), 북한 언어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주로 문장 종류의 명칭과 분류에 역점을 둔 작업이다.

5. 김일성의 언어학자들과의 두 담화

1949년의 한자폐지 · 한글전용의 단행과 더불어 1964. 1. 3에 김일성이 언어학자들과 가졌던 담화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와 1966. 5. 14의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기 살려 나갈 데 대하여」의 두 담화는 북한 언어 정책사상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같이 근단적인 일인 독재체제하에서 김일성의 지시는 소위 <敎示>라¹⁸⁾ 하여 국민의 절대적 복종을 요하는 위력을 가졌

주 18) 《조선문화어 사전》(1973)에 주어진 뜻: [명] ① 《혁명
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혁명과 건설

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표된 사항들은 즉각 실천에 옮겨진다. 이에 따르는 새로운 문법책과 사전들이 나오고,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며 학교와 노동기관을 통하여 최단기일에 대중에게 보급되게끔 되어 있다. 남한에서처럼 어떤 언어정책이 발표되면 각민간단체 연구기관에서 반대성명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박논문이 발표되는 등의 일이 북한에서는 전혀 없는 줄로 안다.

첫 번 담화가 발표된 이후 1966년 7월에 《조선말 규범집》이란 새로운 문법책이 나와 1954년의 《조선어 철자법》을 대체하게 되었다. 또 18만 단어의 《조선말 사전》(1961년 판)을 대체하는 《현대 조선말 사전》이 1968년에 편찬되었다. 후자에는 일상 용어 중심으로 5만 단어만 실었다.

동시에 <화어>란¹⁹⁾란 용어가 새로 쓰이면서, 강력한 처방적 언어정책 (prescriptivism)인 소위 <문화어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1964. 1. 3 담화 요지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란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요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에서 지침으로 되는 말씀》을 정중히 높이여 이르는 말.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을 깊게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②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가르침》을 높이여 이르는 말.

19) 김일성 자신이 주조해서 그의 1966. 5. 14 담화에서 처음 쓴 용어.

① 문자 개혁 문제

첫째, 문자개혁은 민족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북한에서만 일방적으로 문자개혁을 하게 되면 남북통일이 된 후에 양측에 서로 편지도 못 읽고, 신문·잡지도 이해 못 하게 되면 단일민족의 민족적 공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겠기 때문이다.

둘째로, 문자개혁을 갑자기 하면 과학과 문화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온 국민이 새 문자를 익히는 동안 과학기술·문학예술활동이 잠시 중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국제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세계 공통적인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민족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²⁰⁾ 「민족의 앞날도 과학기술의 발전도 고려하지 않고 다만 공명심에 사로잡혀 새 문자를 만들어 당장 보급하려 든다」고 김일성을 비난했다.

다만 지금 문자문제를 연구해 두었다가 남북통일이 된 다음 문자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漢字語 문제

첫째, 사회발전에 따라 새 단어의 필요성이 커진다. 새 단어를 만들어 내는 데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체계 중에서 가능한 한 고유어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뽕잎>·<뽕밭>·<뽕나무>라 하면 될 것을 구태여 <상엽>·<상전>·<상목>이라 할 필요가 없다.

주 20) 여기에서는 글자개혁을 고집하다가 1958년 3월에 숙청된 金料奉 일파를 지칭함.

젊은 한글세대들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우리말로 굳어 버린 한자어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학교>·<삼각형>같은 말을 구태여 <배움집>·<세모꼴>로 고칠 필요는 없다. 또 業이란 말도 없앨 수 없다. <사업>·<농업>·<공업> 등과 같은 복합어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련합회>·<분과회>도 그냥 써야 하고, 특히 정치술어는 한자어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 중국잡지 같은 것을 통하여 들어온 중국식 단어들인 <공작보고>·<火車站>·<工人階級>은 쓰지 말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훌륭한 우리말인 <사업보고>·<정거장>·<로동 계급>이 버젓이 있기 때문이다.

③ 외래어 문제

첫째, <이데오르기야(이념)>니 <에꾸자멘(시험)>이니 하는 소련어나, <우와기(양복 저고리)>라는 일본어, <템포(속도)>라는 외래어 등은 이에 해당하는 우리 말을 써야 한다.

사과 이름이나 술 이름은 그 생산지명을 따서 우리 말로 새로 붙이는 것이 좋다. <옥>이니 <축>대신 <북청>·<황주> 라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트락또르>같은 우리 나라에 없던 과학 기술용어는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른 나라 고유명사는 그 나라 본래의 발음을 따르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외래어를 통제하고, 정리하여 우리 말을 살려 쓰는 것이 우리 민족어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④ 단어의 표시

첫째, 단어는 띄어 써야 한다. 서양 글처럼 가로 풀어써야 단어 형태가 고정될 텐데 우리 글은 네모 글이라 띄어 쓰기와 구뚝점을 사용하여 조절하면 어느 정도 눈에 잘 들어온다.

⑤ 어휘 정리

문자문제나 철자법에 앞서 어휘정리가 가장 시급하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통계를 내고, 버려야 할 한자어는 과감히 버리고, 그런 단어들은 사전에서도 빼 버려야 한다. 김일성은 당시의 《조선말 사전》(1960)은 한자어가 너무 많아 「중국의 옥편과 같다」고 꼬집었다.

<어문학 연구소>를 어휘 정리사업의 중재기관으로 한다.

끝으로 국어교육을 제도적으로 개선,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2) 1966.5.14 담화

제목은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피 나갈 데 대하여」이다.

① 외래어 제거

<오침(낮잠)>·<공작시간(일하는 기간)>등의 중국식 말이나, <오차(차)>·<오봉(차반)>등의 일본식 말, <헤게모니야>와 같은 러시아 말 등은 쓰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은 간도의 우리 교포나 일본의 교포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외래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이 문제라고 했다. 「지금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서 한자말과 일본말·영어를 빼 버리면 우리말은 <을>·<를>과 같은 토만 남는 형편」이라고 김일성은 과장하고 있다.

② 방언에서 좋은 말을 찾아 쓰도록 한다.

③ 지명과 버 이름도 고유어로 한다.

「석교동」은 <돌다리골>이라고도 하는데, 후자가 더 듣기 좋다.

④ 선진국의 과학기술 용어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제 때에 우리말로 고치면 된다. 그런데 학술용어는 너무 풀어쓰지 말아야 한다.

⑤ 한자어와 고유어가 그 뜻의 폭이 다를 때에는 둘 다 사용해야 된다.

즉, <지하>와 <땅속>, <심장>과 <염통>이 그 예다. 만일 <지하투쟁>을 <땅 속 투쟁>이라 하거나, <평양은 나의 심장>을 <평양은 나의 염통>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어색할 것인가.

⑥ 북한의 표준말을 <문화어>로 한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는 것같은 인상이므로 김일성은 「혁명의 수도인 평양 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 말을 <문화어>라고 부르자」고 했다.

⑦ 일상용어부터 서서히 다듬는다.

일상어나 학교에서 쓰는 5천~6천개의 단어부터 다듬어서 5~10년에 걸쳐 써 보면서 자주 다듬어 나가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국민학교에서 그 새로운 말들을 배워 주도록 한다. 그렇게 하여 가정에서 어른들이 잘못 <오침>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낮잠>이라고 고쳐 주도록 한다.

⑧ 고전 번역에 있어서도 어려운 한자말을 현대화하여야만 한다.

<춘향전>·<랑반전>·전설집·史話集도 한글세대가 즐겨 읽도록

충분히 쉽게 번역하여야 한다.

김대에 고전 문학과를 두어 몇십 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기간은 4~6년으로 하도록 한다.

⑨ 가로쓰기와 기계화 문제에 관해서도 간단히 다시 언급하였다.

《주시경 유고집》에서 가로 풀어쓴 예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평하면서 김일성은 그것을 세련시켜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통일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반복했다.

⑩ 띄어쓰기

김일성은 단어가 한눈에 안겨 오도록하기 위하여 띄어 쓰기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글자들은 좀 붙이는 경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사회주의 건설>은 전부 붙여 쓰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띄어 쓰는 것보다 독서능률이 오른다고 했다.

끝으로 《조선말 규범집》 초안은 그대로 발표할 것과 자모의 수는 24자보다는 40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6. 《조선말 규범집》

1964년 1월 3일 담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규범집은 1966년 5월 14일의 담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의 최종 승인을 받아 1966년 7월에 발표되었다. 이것은 1954년의 《조선어 철자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강력한 규범문법이다.

1966년 이전에는 북한의 사회과학원 내의 어문학 연구소가 모든 어휘정리사업 등 언어문제를 다루도록 김일성이 지시했었는데, 이 《조선말 규범집》은 내각 직속 <국어 사정위원회>에서 공포한 것을 보면 종전보다 이 규범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히

시행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1966년은 전면적인 기술혁신과 문화혁명을 수행하고 일반국민의 생활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려 발달된 사회경제 공업국에 도달한다는 임무를 띄고 1961년부터 시작한 7개년계획의 후반기에 해당된다.

《조선말 규범집》은 맞춤법(28항)·띄어쓰기(23항)·문장부호법(19항)·표준 발음법(43항) 등의 4부로 나누어져 있다.

(1) 맞춤법

《조선어 철자법》과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좀더 체계화하고 구체적이다. 출판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제 18항에서 사이표(')를 없앤다는 것이다. 즉, 그믐'달 → 그믐달, 기'발 → 기발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26항에서 한자어는 음절마다 한자의 현대 소리에 따라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 국가·혁명·녀자·락원.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한자어의 변한 소리는 그 소리대로 적는다.

례 : 라팔 → 나팔, 라사 → 나사, 람색 → 남색, 로 → 노, 류리 → 유리

(2) 띄어 쓰기

명사들이 토 없이 직접 연결될 때에는 한덩어리로 묶여진다.

예 :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일으켰다. 만경대위생편의봉사사업소에서 왔다.

이와 같이 복합명사가 긴 경우, 저자가 생각하기는 한두 군데 띄

어 썼으면 독해력 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즉 <만경대 위생편의봉사 사업소>로 적었으면 더 좋은 것 같다. 즉, 하나의 긴 명칭은 내부에서 또다시 <만경대>·<위생편의봉사>·<사업소>라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이중 중간부분은 또다시 마치 통사론에서 구성구조 분석(immediate constituent analysis)의 절차처럼 <위생>·<편의>·<봉사>라는 세 단위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나 잘게 띄어 쓰면 오히려 독서의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하나로 적을 때 <만경대위생편의 봉사사업소>로 <편의> 다음에 띄어 읽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第一讀에 제대로 띄어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띄어 읽어 보게 되어 오히려 늦어진다. 그러나 중간에 한두 군데 띄어 놓으면 一讀으로 정확히 읽어 내려가게 되어 독서가 좀더 빠르게 된다고 믿는다.

(3) 문장 부호법

문장부호의 종류와 이름은 다음과 같다.

· 점	? 의문표
: 두점	! 감탄표
; 반두점	- 이음표
, 반점	_____ 풀이표
… 줄임표	○○ 숨김표
≪ ≫ 인용표	〃 같은 표
< > 거듭 인용표	~ 물결표
() 반달괄호	… 밀점
[] 꺾쇠괄호	

(4) 표준 발음법

<의>의 발음은 겹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 2 항), <위>는 홑모음으로 한다 (제 3 항). <리>과 <니>은 모든 모음 앞에서 그 음가대로 발음한다 (제 5, 6 항)

예 : 리론, 론문, 니탄, 뇨소

그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말의 발음을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다. 즉 <덩거당>·<덩서방(鄭)>·<하디 아니하다>의 발음은 평양식으로 규범화하지는 않았다.

7. 사전편찬

(1) 사전의 종류

뒤에 나오는 <남북한의 국어연구 대조연표>에 보면 대강 알 수 있지만, 해방 후 1960년에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 해인 1961년에 완성한 《조선말 사전》(전 6권)이 북한 언어학자들의 가장 최초의 사전이다. 이 사전에는 18만 어휘가 실렸는데 남한의 《국어대사전》(이희승편, 1961년, 23만 어휘 수록)과 대단히 흡사하다.

그후 1969년판 《현대 조선말 사전》에는 일상용어 5만여 단어가 실렸다. 이 사전에는 <말다듬기 운동>의 결과로 漢字가 한 자도 없고, 학술 전문용어·옛말·사투리·퇴폐적 사상 표현(예: 사교댄스·아가씨·대감)·고유명사 등은 다 빠졌다.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특히 공산주의 사회의 정치성을 띤 일부 어휘에는 별나게 별(☆)표를 하고 김일성의 인용구를 굵은 활자로 장황하게 덧붙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 조선말 사전》을 발행 후 각 전문 분야별로 사전을 만

안 보인다. 페이지마다 서너 개 단어에 김일성의 교시를 굵은 활자로 길게 인용해 놓은 것은 《현대조선말 사전》(1968)이래 변치 않은 점이다.

8. <문화어운동>과 분야별로 다듬은 말

(1) 문화어운동

<문화어운동>이란 1950~1960년대의 <말 다듬기운동>과는 약간 달리, 후자가 한자말을 우리의 고유어로 정리하려는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전자는 한자말뿐 아니라 모든 외래어를 정리하는 작업이고, 나아가서는 옛말이나 방언에서도 좋은 말은 골라 문화어의 위치에 끌어올리는 일과 소위 「김일성의 혁명적 문풍」이라는 문장체와 구어체를 일반대중에게 교육시키는 운동이다.

북한은 1966년 《조선말 규범집》이 나온 이래 내각 직속 국어 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국어 사정지도처 및 언어학연구소 산하 18개 전문용어 분과위원회를 동원하여 해당분야의 용어들에 대한 말다듬기 연구토론을 추진했다. 20개 가량의 어느 한 분야의 용어를 매주 2~3회에 걸쳐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이란 신문지상에 게재하고 이들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곤 했다. 한번이 아니고 마땅한 용어가 없을 때에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사정해 나가는 것이다.

동시에 언어에 관한 잡지에도 <다듬은 말>이란 칼럼을 두고 조금씩 실어 독자에게 발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국어정책은 남한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많은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바로 그 사실은 남북의 언

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단어들의 의미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나 민족의 감정도 이질화되어감을 피할 길 없는 것 같다.

(2) 18개 전문용어 분과위원회

전 문 용 어	분 과 명 단
일반어	일반어 용어 분과위원회
의약학·의학	의약학 "
금 속	금 속 "
생 물	생물학 "
농 학	농 학 "
물리·수학·화학	자연과학 "
건설·수리	건설·수리 "
전기·채신	전기·채신 "
기 계	기 계 "
경공업	경공업 "
상품이름	상품이름 "
문학예술	문학예술 "
사회과학	사회과학 "
체 육	체 육 "
수산·해양	수산·해양 "
운 수	운 수 "
지질·지리·광업	지질·광업 "
임 학	임 학 "

(3) 분야별로 다듬은 말

그러면 전본 삼아 아래에 분야별로 다듬은 문화어를 나열해 본다.

<일상용어>

가죽이김공장(피혁공장)

경어(輕語·가벼운 말)

거리나무(가로수)

나드는 곳(출입구)

손기척(노크)

물맞이찬(샤와실)

내민대(발코니)

얼음꼴(아이스크림)

직관물(전시물)

얼음과자(아이스케키)

골신(쓰리빠)

천구호(프랑카드)

벽신(벽보)

창문보(카텐)

인민위원회(도청)

대비하라(비교하라)

학습하다(공부하다)

볶음머리(파마)

문화일(토요일)

수갑(장갑)

부화방탕하다(풍기가 문란하다) 담보하다(보증하다)

지어(심지어)

겉꼭식(피곡·겨를 벗겨내지 않은 곡식)

끔바르다(마음이 좀스럽고 야멸치다)

곽밥(도시락밥·밥곽에 넣어 파는 밥)

꾸리다(꾸미고 설비하다·장식하다)

기본고리(전체를 좌우하는 중요부분)

나비내기(누에씨를 받기 위해 종자고치에서 나비를 나오게 하는 일)

벽소설(벽에 부치는 간단한 풍트)

소리판(레코드)

알림판(게시판)

전기종(벨)

인민학교(국민학교)

공민증(주민등록증)

알촉만년필(볼펜)

큰물(홍수)

담공장(양계장)

내오다(마련하다)

두리에(둘레에·주변에)

비날론(나일론의 일종)

여성광부(여자광부)

우에서(위에서)

행표(수표)

옥쌀(옥수수가루쌀)

전사(사병)

일떠나다(우뚝 솟다)

젖(우유)

애기궁전(탁아소)

직승비행기(헬리터)

추리(자두·과실)

학습하다(배우고 읽히다)

휘황히(황히)

수매소(상점)

꽃댕기(리봉)

들모임(원족·소풍)

사무원(공무원)

격술(태권도)

호상(상호)

대한밭(왕가물)

다락논(다랑이로 된 논)

담알(달걀)

뚝딱단추(호크)

몸매머(코르세트)

신심(信心·믿는 마음)

우심하다(더욱 심하다)

남새(채소)

인민(국민)

사회안전부(경찰서)

군관(장교)

일본새(일하는 본보기)

소년궁전(어린이회관)

직일(直日)

진흙(니토)

초대소(영빈관)

헛충(공포)

문화어(표준어)

소식영화(뉴스 영화)

또락또르(드랙터)

묘아댄다(떠들어댄다)

조선어(동양화)

휴식일(일요일)

접대화(안내원)

회전반(다이얼)

분탕국(당면국)

종합편의(목욕탕·이발소)

다그치다(재촉하여 내몰다)

떨쳐나서다(일어나 앞서다)

놀다(역할·작용방해 등의 단어와 결합하여 <한다>의 뜻. 예 :

큰 역할을 놀다·귀중한 작용을 노는 기계부속이다)

늑거리(정가보다 싸게 파는 물건)

량강도(兩江道, 북한의 도단위 행정구역 재조정에 의해 자강도와 더불어 새로 생긴 도명)

량권(糧券, 국가에서 발행된 식량을 대신하는 증표)

매고리(중점, 예 : 사건의~)

매대(賣台, 상품을 벌여놓고 파는 자리. 간단하게 꾸민 매점)

복쭈(復讐, 양갓음하려는 생각, 복쭈와 복수는 구별한다)

비라리(구구한 말로 남에게 무엇을 청하는 것)

사양공(가축의 사양을 맡은 노동자)

선동하다(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뜻으로 쓰이며,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대중의 자각과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행사를 말한다)

옆어마리(냉면의 곱배기, 지조 없는 여자를 일컫는다)

원수(怨讐, 자기 또는 자기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원수와는 구별한다)

이악하다(깜찍하고 영리하다·기를 쓰고 달라붙는 기세가 굳세고

끈덕지다)

기름떡(부침 또는 뭇뿌라)

조동(調動, 행정부 조치로서 일자리를 옮긴다는 뜻, 전근·전직)

쪽잠(잠깐 자는 잠, 예: 의자에 앉아서 쪽잠을 자면서까지)

주일탁아소(직장여성을 위해 일주일간 아동을 맡겨 두는 곳, 일요일에만 애를 데려간다)

철직(직위에서 내쫓기는 행정처분)

체현하다(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내다)

초물제품(草物제품, 돗자리·비·광주리·나막신 따위의 제품을 말한다)

통신원(우편배달부 통신사의 기사)

홀시하다(소홀하게 보다)

형제나라(북한이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를 부르는 용어이다)

흑색금속(철·강철·철합금속 등을 유색금속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사람 이름 짓기 >

여자: 꽃분이·미나리·진달래·은별·꽃송이·참매·젓순·새날·봉산
·시내·새순·방실·송이·달래.

남자: 금돌·한범·슬기·보람·용한·억새·바위·솔이·노을·수리·
아침·세찬·한모·무쇠.

<둘 립 자 >

남자이름: 한솔(이) 한길(이)

 한범(이) 한산(이)

여자이름: 금별(이) 은별(이)

 새별(이)

< 접미사를 맞춘 것 >

남 : 철이 · 범이 · 힘이

여 : 옥이 · 분이 · 숙이

< 경제 용어 >

본래 말	다듬은 말	본래 말	다듬은 말
위약금	어김 돈	전도금	미리 준 돈
전수금	미리 받은 돈	적립금	새운 돈
원가	본값	보수	손질
감가상각금	닿은 몫 · 메꿀 돈	기금	밑돈
수입	들이기 (부기에 한해서)	지출	내기 (부기에 한해서)
결제	치르기	분할결제	나누어 치르기
환치	옮겨 놓기	수체	값 달기
계시안	셈자리표	대응계시	맞셈자리
입고	들이기	출고	내기
이관	옮겨주기	경영손실	밑진 돈
철수재산	거두어들인 재산	출금	돈내기
대부금	꾸어준 돈	차입금	꾸 돈

< 학교 생활 용어 >

본래 말	다듬은 말
가감법	더덜기
가법	더하기
감법	덜기

본래말

감탄부
 겸비하다
 공고화
 공고화수업
 구두로
 구술
 국명
 금주
 기습교재
 기습지식
 개별독
 게시판
 계명창
 계산척
 계수기
 독후감
 동심
 동음이의어
 동의어
 등교생
 등교하다
 등식
 등학교시

다들은 말

느낌표
 다 갖추다 · 갖추다 · 함께 갖추다
 다지기
 다지기수업
 입으로 · 말로
 말하기
 나라이름
 이번 주
 배운 글
 배운 지식
 혼자 읽기
 알림판
 도레미화 부르기
 셈자
 셈세개
 읽은 느낌
 어린마음 · 숫진마음
 소리같은 말
 뜻같은 말
 (학교에) 나온 학생
 학교에 가다 · 학교에 오다
 같기식
 학교에 오갈 때

본래말

등하교하다
 대출하다
 리봉
 명칭
 모의수업
 목차
 목록
 문단
 문장해석
 미등교생
 반달괄호
 반복
 반복법
 반의어
 발취독
 범독
 별행잡기
 보폭
 본령
 베르 (벨)
 산법
 서법
 성명

다듬은 말

학교에 오가다
 빌려주다 · 빌리다 · 빌려내다
 꽃대기
 이름
 해보기수업
 차례
 속읽기
 글토막
 글뜻풀이
 (학교에) 안 나온 학생
 반달류음표
 되풀이 · 거듭
 되풀이법
 반대말
 추려읽기
 본보임읽기
 줄바꾸기
 더딤너비
 시작종
 전기종
 셈법
 쓰기
 이름

본래말

소년단집회
수공지
새지식전수
작문
원족
전출생
전입생
정독
조회
주제유회
지명독
지시봉
질문하다
제수
제창독
체육유회
취재작업
타종
타종표
관서
표음문자
표의문자
하교하다

다듬은 말

소년단모임
색종이
새지식 주기
글짓기
들모임
 옮겨간 학생
 옮겨온 학생
따져읽기
아침모임
생활놀이
짚어읽히기
가리킴대
 물어보다 · 묻다
나눔수
함께 읽기
체육놀이
글감찾기
종치기
종시간표
칠판글씨 · 칠판글쓰기
소리글자
뜻글자
집에 가다

본래 말

학령
합독
해석적독법
화법
암기
오르강(올겐)
음절문자
예령
의문표
의미해석
원족

다듬은 말

학교나이
모여읽기
새겨읽기
말하기
외우기 · 따로 외우기
풍금
마디글자
차비종
물음표
뜻풀이
들모임

※ () 속은 남한말

<문학 예술 용어>

본래 말

각색
간색
결말
경사무대
고유
고음
국부조명
금관악기
기량

다듬은 말

옹겨 지음
사이색
마무리
비탈무대
제색
높은 음
몰아비치기
쇠관악기
재간

본래 말

농담
내면특색
네가
단상
단색
독백
동물화
동시
동시록음
드라마
등장
디테일
대화
라지오드라마
런속화(연목화)
런시(연시)
리듬
레코드
레파토리
면막
명암
모노로그
모사

다듬은 말

질음새
속말
뒤관
토막생각·토막글
한색
혼자말
김승그림
어린이시
그 자리 록음
극
나오기
잔데
서로말
방송극
이야기그림
이음시
흐름새(문학)·장단(음악)
(축음기) 소리판
올림종목
앞막
검밧기
혼자말
 옮겨그리기

본래말

모자이크
모찌브
묘사
무채색
목화·수목화
발단
발라다(발라드)
보조광
부감도
분
산수화
3월색
서정토로
서한체소설
소도구
소재
속대사
슈제트
슈제트요소
스절
습작
시행
시어

다듬은 말

쪽무이그림
계기·동기
그리기
민색
먹그림
실마리
이야기서
덧빛
굽어본 그림
말음
경치그림
세원색
서정풀이
편지체소설
작은 불이
감
숨은 말
엷음새
엷음새매듭
투
익히기
시출
시말

본래말

색감
색도
색배합
색상
색조
색채
생략기호
자막
자세
장식화
장르(장르)
저음
절정
조명
조명기
조식
조색칼
종말
주선
지문
지속음
채료
채색

다듬은 말

색맛
색세기
색섞기
색모습
색어울림
색갈
출입표
글자막
몸가짐
치레그림
갈래
낮은음
큰마루
비치기
비치개
조생김
겉칼
마무리
원줄기
바탕글
끝소리
색감
색그리기

본래 말

채색화
 촬영
 쥘
 콘테
 크라이막스
 투명색
 프블로그
 프로트
 허구
 현상
 현악기
 후시록음
 회구
 꼬삐
 씨나리오
 아이로니
 안료
 안쌘불
 암전
 옥타브
 유모아
 음정
 음역

다듬은 말

색그림
 찍기 · 찍음
 쪽그림
 색초연필
 큰마루
 비침색
 머리이야기(문학) · 머리막(연극)
 줄거리
 꾸밈
 깨우기(사진)
 줄악기
 뒤록음
 색감
 판
 영화문학 · 영화극본
 비양
 색감
 짜임새
 끄기
 돌이
 우스개
 (소리) 사이
 소리너비

본래 말

인물화
에스키스
원경

다듬은 말

사람그림
초안
먼 보임새(영화)
먼 경치(미술)
※ () 속은 남한말

<상품의 이름>

본래 말

가스테라
각다반
간유
건과자
건시
경옥고
구홍
계산척
계수기
과실
과즙수
남바링
다이트스카트
담쁘라스위치(?)
도레스(드레스)
도배지

다듬은 말

설기과자
모쟁반
애기름
마른과자
꽃감
인삼치황(약) 옛
입술연지
셈자
셈세개
과일단졸임
과일단물
번호짜개
좁은통치마
들림(식) 여달이
나리웃
도배종이

본래 말

도강용솔
 도화지
 동화
 대필
 량면 톱(양면 톱)
 톱과스
 리봉
 랭차(냉차)
 레스
 레코드
 마분지
 마후라
 마이깡
 메리야스
 반런치약
 반창고
 방안지
 비가
 빗케스
 빙수
 백사탕
 백지
 샤프심

다듬은 말

칠솔
 그림종이
 겨울신
 큰북
 량천톱
 매미옷
 꽃댕기
 찬단물
 무패그물
 (축음기) 소리판
 관종이
 목수건 · 머리수건 · 목도리
 맞걸개
 뜨개속옷
 녹은 이땀이약
 붙임띠
 채눈종이
 젓사탕
 빗집
 단(물) 얼음
 흰사탕
 흰종이
 연필알

본래말

소편
수공지
스위치
시링그
식탁
세발빚
세발액
세안크림
잠바
장식단추
장판지
자켓트
전병
접속두
접철
조색분무기
증명서케스
지방성크림
지철기
창지, 창호지
창출고
쥬브치약
치분

다듬은 말

작은 붓
색종이
여단이
천장꼭지
(밥) 상
굵게빚
(머리) 물비누
세수크림
외투저고리
치레단추
장판종이
뜨개덧저고리
바삭과자
꽃계
나비쇠
색칠뿌무개
증명서집
기름크림
문건매개
문종이
삼주(약)엿
짜는 이뒹이약
이뒹이가루

본래말

치술
 치약
 체경
 체온계
 코드선
 콘센트
 콤파스
 케이프
 파마용그리프
 평상구홍
 표백분
 한지
 향고
 호르다
 호치키스
 호크
 호크
 횡선지
 빠루
 뽀찌 (뽀찌)
 빠라그 (플러그)
 압정
 연고

다듬은 말

이술
 이뒤이약
 몸거울
 열재개
 방안(전기)줄
 (꽃개집)
 원그리개
 날개옷
 머리말개
 괄입술연지
 바람가루
 조선종이
 들밥통
 (전등) 갓끼우개
 문전매개
 살저갈
 맞단추 · 걸단추
 (가로)줄칸종이
 ① 지레대, ② 지레못뿔이
 구멍따개
 꽃개
 (납작못)
 무릎 고약

본래말

연지
오화탕
은차
유모차
유액크림
육고추장
육만두
원주만년필

<건설 용어 >

본래말

간지석
건조실
격자식기둥
결박
결박방법
경간
팔조
팔채
공기집합기
공복식기둥
관람홀
권양갈구리

다듬은 말

불연지
무지개사탕
더운 단물
애기차
물크림
고기고추장
고기만두
알(축)만년필
※ () 속은 남한말

다듬은 말

빨돌
말림칸
살창식기둥
류기·매기
류는법
결침사이
뼈대
속감
공기모음통
속빈 기둥
구경칸
들갈구리

본래 말

권양고
권양고리
권양능력
난방
다공질벽돌
다공판
다털식쌓기
런쇄식쌓기
매물심도
매물작업
매물토
매설심도
보온재
사전인장
사후인장
삼련창
샤와실
석회
수유실
세탁본
세탁장
전실
절토

다듬은 말

들높이
들고리
들힘
방덱히기
잔구멍벽돌
구멍판
여러줄쌓기
엇물러쌓기
메움깊이
메우기
메움흙
문움깊이
열막이감
미리당김
나중당김
세묾음창
물맞이칸
(회)가루
젓먹이칸
빨래칸
빨래터
앞칸
흙따기

본래말

접착제
 주택
 중공벽돌(?)
 착의실
 측장
 치석
 침실
 탈의실
 탕수실
 트라스
 피복
 흡연실
 흡음
 흡음력
 흡음재
 힌지
 힌지접합
 회전창
 환기창
 열공급
 열풍난방
 옥내
 옥상
 옥외
 응접실
 이동식휘틀
 일체식

다듬은 말

붙임감
 살림집
 구멍벽돌
 옷입는 칸
 옆창
 돌다듬기 · 다듬돌
 자는방
 옷벗는칸
 더운물칸
 살틀
 씨움
 담배칸
 소리잡이
 소리잡는힘
 소리잡이감
 돌이
 돌이이음
 돌립창 · 가로돌립창 · 세로돌립창
 공기창
 열보내기
 공기방덥히기
 집안
 지붕마당 · 지붕우
 바깥
 손님맞이방
 옮김휘틀
 통짜식

〈 체육 용어 〉

근중체육 (생산력을 증가하기 위한 체육)

집단체조 (마스게임)

로동체육 (등산 · 야영 · 중량들기 · 팔굽펴기 · 천 샅뜨기 등 노동력 증가
를 위한 체육)

가위발뛰기 (공중에서 가위처럼 다리를 돌리면서 뛰는 넓이뛰기의
일종)

달리기 대회 (마라톤 경기 같은것)

국방체육 (사격 · 활쏘기 · 무선통신 등 국방 위한 체육)

민속경기 (우리 민족 고유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네 · 씨름
널뛰기 · 궁술 · 줄당기기 · 석탄 · 팽이치기 · 연 띄우기 등을 말
함)

〈 축구 용어 〉

오른쪽 공격수 (라이트 윙)

오른쪽 중간 방어수 (라이트 하프 백)

왼쪽 공격수 (레프트 윙)

중앙 공격수 (센타포드)

중앙 방어수 (센타하프)

모서리킥 (코너 킥)

오른쪽 방어수 (라이트 풀 백)

좌내 공격수 (레프트 인너)

왼쪽 방어수 (레프트 풀 백)

중앙으로 꺾어차기 (센터링)

< 농구 용어 >

가슴연락 (체스트 패스)

긴 연락 (롱 패스)

< 배구 용어 >

던지기 뿔 (씨브)

순간 타격 (스파이크)

< 농업용어 · 사과 이름 >

북청 (국광, 동기는 地名에서)

송화 (축, 지명)

덕성 (인도, 지명)

단풍 (왜금, 색깔)

황주 (홍옥, 지명)

구월 (옥, 계절)

허천 (딜리셔스, 지명)

향사과 (스테몬와인애플, 냄새)

< 의학 용어 >

본래말

다듬은 말

청진

들어보기

촉진

만져보기

시진

살펴보기

모세혈관

실피출

소순환

작은 (피) 돌기

폐순환

폐 (피) 돌기

순환장애

피잘안돌기

살균

균죽이기

관절

마디

주관절

관절근

관절강

관절외

발전제

해열제

진정제

완하제

절창

할창

좌창

일광욕

타진

망진

문진

대순환

체순환

호흡

폐활량

혈균

견갑관절

고관절

관절낭

관절순

팔굽마디

마디살

마디안

마디오목이

땀내기약

열내림약

가라앉힘약

약한 설사약

베인 상처

빠개진 상처

찌낀 상처

해빛 쬐이기

두드려보기

바라보기

물어보기

큰(피)돌기

몸(피)돌기

숨쉬기

폐습량

균 깡그리 죽이기

어깨마디

넙적다리마디

마디주머니

마디시울

관절지
지한제
수렴제
조혈제
강장제
자창
혈창
해수욕
광선욕

마디가지
땀뭇이약
가다들임약
피만들기약
보약
찢린 상처
깨진 상처
바다물미역
해빛 쪼이기

〈 물리학 용어 〉

본래말
용량
열용량
비습
비전하
비체적
감도
광원
초점
전기용량
비중
비저항
비점도

다듬은 말
들이 (량)
열들이
견줄 누기
견줄 전기량
견줄 부피
느낌도
빛샘
모임점
전기들이
견줄무게
견줄저항
견줄끈기

비열

건증열

광

빛

랭광

찬빛

허초점

허모임전

〈 화학 용어 〉

본래말

다듬은 말

유욕

기름짐질

플라스크

실험병

(화학실험에 쓸 수 있도록 만든 병)

공기욕

공기짐질

평저플라스크

평 밑 실험병

삼구플라스크

세아구리 실험병

비커

실험고뿌

알콜램프

알콜등잔

표백

바래기

응고

엉겨굳기

수증기욕

김짐질

사육

모래짐질

구저플라스크

둥근 밑 실험병

(밑 바닥이 둥근 플라스크)

분기플라스크

가지 달린 실험병

(가지 달린 플라스크)

레토르트

김잡이 실험병

(김잡이하거나 또는 공기를 통과시키지 않고 물질을 가열하는데 쓰는 병, 아구리가 대포의 포신처럼 옆으로 뺀어나와 있다)

〈 생물학 용어 〉

본래말

중장

전위

후위

조학

경맥

전중맥

둔맥

호맥

분맥

기문

유충

환절

동면

변태

불완전변태

피부선

피지선

후장

중위

다듬은 말

가운데뺨

앞먹이주머니

뒤먹이주머니

새학

어깨줄

앞가운데줄

불기줄

활줄

갈라진줄

숨구멍

새끼벌레

고리마디

겨울잠

모습같이

덜된모습같이

첨질샘

기름샘

뒤뺨

가운데먹이주머니

어류학

포유동물학

주맥

후중맥

횡맥

지맥

간맥

성총

측간

체절

하면

완전변태

선

유선

한선

물고기학

짐승학

엄지줄

뒤가운데줄

가로줄

가지줄

사이줄

엄지벌레

더듬뿔

몸마디

여름잠

완전모습같이

샘

젓샘

땀샘

〈 수산 · 해양 용어 〉

본래말

과도

과속

과저

과동

과형

과정

다듬은 말

물결

물결속도

물결골

물결움직임

물결형

물결마루

과방향
단과
해안과
과장
과고
과압
과력
과면
과동선
장과
풍과
천해과
심해과
맹수대
온수대
풍성류
경사류
투명도
한류
난류
표층류
중력류
수심도
수색

물결방향
짧은 물결
기습물결
물결길이
물결높이
물결압력
물결힘
물결면
물결마루선
긴물결
바람물결
얕은물결
깊은물결
찬물줄기
더운물줄기
바람흐름
비탈흐름
맑음도
찬물흐름
더운물흐름
걸층흐름
무게흐름
물깊이지도
물빛

〈언어학 용어〉

음운론

북한

소리마디

소리마루

꼬트머리소리

(홀소리 *)모음

(닿소리 *)자음

(몸말→)체언

(쓰말→)용언

등근 입술소리

억양

소리빛깔

말소리

첫머리 소리

어음론

음성학

말소리

단어

길고 짧음

높고 낮음

보통 입술 소리

갈래

남한

음절

악센트

어말음

모음

자음

체언

용언

원순음

억양

음색

음운

어두음

음운론

음성학

음운·음소

단어

장단

고저

평순음

종류

형태론

북한

말뿌리

말꼬리

첫머리

꼬트머리

앞불이

소리본뜸말

형태론

품사

수사

동사

관형사

감동사

말뭉 *
말뭉 *

말뭉 *

가운데

덧불이

뒤불이

모양본뜸말

뜻덩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남한

어근

어미

어두

어말

접두사

의성어

형태론

품사

수사

동사

관형사

감탄사

어간

어원

어중

접사

접미사

의태어

형태소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형태론

통사론

복한
글줄기
치레말
견중급 *
자리바꿈
벌림
문장론
물음문장
시킴문장
(임자말→)세움말
(보어→)보탬말
이음말
끼음말
옮김법
풀어옮김법
서로말
글대목
으뜸급 *
따옴표 *
매임

부사
형태론

남한
문맥
수식어
비교급
도치
병렬
통사론
의문문
명령문
주어
목적어
접속사
삼입어
話法
간접화법
대화
문단
최상급
인용표
중속

알림문장	서술문·평서문
추김문장	청유문
느낌문장	감탄문
풀이말	동사
부름말	호격
보임말	동격
복합문	복합문·重文
바로움김법	직접 화법
문장론	통사론

* 이 용어들은 남한에서도 일부 사용된다(특히 최현배).

이 외에도 많은 용어가 분야별로 다듬어져 사용되고 있으나 대개 견본으로 이만 해 둔다.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수집한 관계로 분류한 양상도 가지각색임을 양해 바란다.

위에서 <본래말>이라 함은 북한에서의 다듬기 전의 단어들이므로 대개는 남한의 어휘와 같다. 단지 사소한 철자법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나 단어가 아주 다른 경우에는 ()속에 남한 말을 표시해 넣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 다듬기운동은 지금도 계속되는 작업으로서 한자말을 고유어식으로 풀이해 써보다가 그 다듬은 용어가 너무 지나치게 풀어져서 한 단어의 개념이 얼른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대중이 사용할 때 이해가 곤란한 것들은 다시 옛날 한자어로 쓰도록 하였다. 그러한 예는 특히 언어학 용어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 같다. <모음>이라는 말을 <홀소리>로 다듬었다가 다시 근래에 와서는 <모음>이라고 쓴다.

9. 말풀이의 한계와 용어의 응집력 문제

동양문화권에 있어서 漢子를 고유의 문자와 병용하는 나라면 어느 나라이고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자를 몇 자 정도 우리 문자인 한글과 같이 병용하여야 하느냐는 문제가 해방후부터 오늘날까지 거론돼 왔다. 한자를 우리나라에서도 병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한글전용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 4장에서 다루겠기에 여기서는 제쳐 놓고 한글로 표기하더라도 본래 한자어인 <학교>·<선생>·<강산>등의 낱말들을 어디에다 한계를 두고 어느 정도까지 풀어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상용 漢子語數를 정하는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것은 틀림없다.

1979년판 《조선문화어문법》책의 용어를 대강 훑어보면 풀어쓰기의 정도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 추세가 대개 짐작이 간다.

국민학생들이나 일반 대중에게까지도 익히 알려진 용어 예를 들면, 모음·자음·단어·품사·명사·대명사·동사·문장론·어음론·형태론 같은 용어는 1950~60년대에 다듬어서 홀소리·닿소리·대이름씨 등으로 고쳐 쓰다가 1970년대에 후반에는 다시 명사·대명사로 환원되었다.

그다음 한 차원 내려서 한문을 모르는 대중에게 잘 이해가 안 될 용어-말소리(음운)·소리마디(음절)·높고 낮음(고저)·뜻덩

이(형태소)들은 풀이한 말을 채택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한계선을 북한에서는 막연하게 「인민대중이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두고 있다. 그러한 애매한 기준보다도 말풀이를 해 놓았을 때 그 용어의 개념의 응집력이 어느 정도로 확고한가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원양어선의 시간>이라는 라디오 프로를 풀이해 놓으면 <먼 바다 고기잡이 어부들의 시간>이 되는데 후자는 전자보다 하나의 의미로서 응집력이 부족함은 물론, 복합어를 형성하는 造語力에 있어서도 곤란한 점이 있다. 즉, 복합어를 위해서는 <業>이란 한자를 없앨 수가 없다. <사업·기업·공업·산업·농업·경공업> 등 많은 일상용어가 그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의 극단적인 말풀이를 했던 말다듬기운동시대보다도 1970년 후반에 와서 북한은 문화어운동을 통해 약간의 한자어를 복구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다. 언어는 그 속성대로 편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 <문화어운동>은 <말 다듬기운동>에 비하면 내용에 있어 훨씬 더 정치성을 띠고 있으며, 문체도 <김일성의 혁명적 문풍>을 따르게 하고 있다는 점은 슬픈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말 다듬기>시대에는 비교적 순수한 언어정리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외국명과 수도명

북한은 소위 내각 직속 국어 사정위원회에서 1965년 2월 13일에

세계의 국명과 수도명을 고쳐서 외국의 국명과 수도명은 원명대로, 혹은 원명에 가장 가깝게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음은 북한의 외국명과 수도명을 남한의 것과 비교 대조해 놓은 도표이다.

지역		북한명		남한명	
		국명	수도명	국명	수도명
아	1	월남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2	몽골	울란바타르	몽고	울란바토르
	3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4	수리아		시리아	다마스쿠스
	5	끼쁘로스	니코시아	키프로스	니코시아
	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7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8	파키스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9	아프가니스탄	카불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	10	이라크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
	11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루살렘
	12	예멘		예멘	사나
	13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스	브양트얀
	14	부탄		부탄	팀부
	15	시킴	강토크		
	16	브루나이	브르나이		
	17	타이		타이	방콕

지역		북한 명		남한 명	
		국명	수도명	국명	수도명
아	18	말 디 브			
	19	중 국	베 이 징	중 국	베 이 징
	20	일 본	도 요	일 본	토 오 코 오
	21	버 마	랑 군	버 마	랭 구 운
	22	세 일 톤	콜 롬 보	스 리 랑 카	콜 롬 보
	23	이 란 테	헤 란	이 란 테	헤 란
	24	인 도	뉴 델 리	인 디 아	뉴 우 델 리
	25	쏘 련	모 스 크 바	소 련	모 스 크 바
	26	캄 보 자	프놈펜	캄 보 디 아	프놈펜
27	요 르 단	암만	요 르 단	암만	
유럽	28	르 므 니 아	뿌꾸레슈머	루 마 니 아	부크레시티
	29	폴 스 까	와 르 샤 와	폴 란 드	바 르 샤 바
	30	체코슬로벤스꼬	쁘 라 하	체코슬로바키아	프 라 하
	31	벌 가 리 아	쏘 피 아	불 가 리 아	소 피 아
	32	포르투갈		포르투갈	리스본
	33	에스파냐	마 드 리 드	에스파냐	마 드 리 드
	34	스 위 스	베 른	스 위 스	베 른
	35	이탈리아	로 마	이탈리아	로 마
	36	스웨덴		스웨덴	스톡홀름
	37	핀란드	헬싱키	핀란드	헬싱키
	38	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39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

지역		북한명		남한명	
		국명	수도명	국명	수도명
	40	단 마 르 크		덴 마 아 크	코 펜 하 겐
	41	벨 지 꼬	브 류 쉘	벨 기 에	브 튀 셸
	42	유고슬라비아	베 오 그 라 드	유고슬라비아	베 오 그 라 드
	43	알 바 니 아	티 라 나	알 바 니 아	티 라 나
	44	독 일	베 를 린	도 이 칠 란 드 (독 일)	베를린(본)
	45	헝 그 리 아	부 다 뻬 슈 트	헝 가 리	부 다 뻬 스트
	46	영 국	런 던	영 국	런 던
	47	화 란	암 스테 르 담	네 델 란 드	암 스테 르 담
	48	오 지 리	원	오 스트 리 아	비 인
	49	회 략		그 리 이 스	아 테 네
아 프	50	상 아 해 안	아 비 장	코르디브와르	아 비 잔
	51	콩 고	브 라 자 빌	콩 고	브 라 자 빌
	52	알 제 리	알 제	알 제 리	알 제 이
	53	까 메 룬	야 운 데	카 메 루 운	야 운 데
	54	기 네	꼬 나 크 리	기 니	코 나 크 리
	55	다 오 메	뽀 르 또 노 브	베 냥	포 르 토 노 브
	56	뚜 니 지	뚜 니 스	튀 니 지	튀 니 스
	57	마 로 꼬	라 바 트	모 로 코	라 바 트
	58	가 봉	리 브 르 빌	가 봉	라 브 레 빌
	59	모 리 따 니		모 리 타 니	누 아 코 트
	60	또 고	로 메	토 고	로 메
	61	상 부 불 따	와 가 두 구	오 트 불 타	와 가 두 구

지역	북한명		남한명		
	국명	수도명	국명	수도명	
리	62	시에라레온	프리타운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63	소말리아		소말리아	모가디시오
	64	니제르		니제르	니아메이
	65	수단	하르툼	수단	카르툼
	66	중앙아프리카	방기	중앙아프리카	방기
	67	가나	아크라	가나	아크라
	68	말리		말리	바마코
	69	우간다		우간다	캄팔라
	70	리비아		리비아	트리폴리
	카	71	차드	포르라미	차드
72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라고스
73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프로토리아
74		세네갈		세네갈	다카르
75		탄자니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라암
76		아련	카히라	이집트	카이로
아 메	77	베라	까라까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78	파나마	파나마	파나마	파나마시티
	79	칠레	산티아고	칠레	산티아고
	80	과테말라	과테말라	구아테말라	구아테말라
	81	파라과이	아순시온	파라과이	아순시온
	82	니카라과	마나과	니카라과	마나과
	83	메히코	메히코	멕시코	멕시코시티

지역	북한명		남한명		
	국명	수도명	국명	수도명	
리카주	8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85	온두라스	테구시갈빠	온두라스	테구시갈빠
	86	코스타리카	산호세	코스타리카	산호세
	87	에콰도르	끼또	에콰도르	끼또
	88	페루		페루	리마
	89	콜롬비아	보고타	콜롬비아	보고타
	90	쿠바	아바나	쿠바	아바나
	91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92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93	미국	워싱턴	미국	워싱턴	
대양주	94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원명에 따라서 외국명과 수도명을 새로 사정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중국이나 일본 같은 몇몇 나라들은 그대로 쓴다고 하였다. 그런 나라이름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다시 본명대로 고치면 많은 혼란을 가져 올 것이라 생각되어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21)

주 21) 만약 일본을 원명 그대로 <닛뽕>이라 하면 이제까지 단어 결합관계에서 우리가 써 내려오던 한일문제·일제시대 등 복합어를 사용하기 힘들다. 영국·미국·중국·독일·불란서 등도 그대로 쓰는 편이 英辭典·中日戰爭·中蘇紛爭 등 복합어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그러한 나라가 10 여개국에 있는데 버마·세일론·이란·인도·조선·알바니아·독일·헝그리아·영국·화란·오지리·회람·아련·상아해안·미국 등 17 개국이다. 이 중에서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 이름은 헝그리아를 들 수 있는데, 원명을 마자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헝가리라고 부른다. 〈아련〉은 아랍 연합 공화국의 준말이다. 상아해안은 불어로 상아해안이란 뜻이다.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그대로 쓴다고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외국명과 수도명을 나열함에 있어서도 북한명단을 보면 미국과 워싱턴을 맨 마지막에 놓은 것은 미제국주의자로 통칭되는 미국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이 얼마나 깊은가 알 수 있게 해준다.

끝으로 남한에서 아시아·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아시아·구라파라고 한다. ²²⁾

11. 일반 언어학 ²³⁾

북한에 있어서 일반 언어학, 즉 서구의 언어학은 별로 발달되지 못했다. 그 분야에 저서도 별로 없고, 북한과 같은 정치지상주의 체제에선 별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주 22) 북한의 것은 「새로 사정된 세계의 국명과 수도명」《말과 글》1965. No. 4 (평양: 사회과학원)를, 남한의 것은 《중학교 사회과부도》(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0)를 참고하였음.

23) Kim Chin-W. p. 1~2 “*General Linguistics in North Korea*”를 요약해서 번역하였음.

김진우를 인용하면, 「출판년도와 출판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두 권의 책을 보긴 하였으나—한 권은 그 저자가 송서용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 권은 부다고프 (R. A. Budagov) 의 언어학 개론인데 그 이외에는 1950년 이래 일반 언어학에 관한 저서로 발행된 것을 한 권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외국서적의 번역판 조차도 못 보았고 북한에서 나온 잡지·논문도 서구의 언어학과 거의 접촉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외국서적을 인용한 것도 거의 모두 1950년 이전의 학설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한다.

비교언어학에서도 두 편의 논문을 발견하였는데, 하나는 홍기문의 〈조선어와 몽고어와의 관계〉 (《조선어문》 1959. 6. 77~82) 이고, 다른 하나는 최정후의 〈우랄 알타이 가설의 발생과 발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조선어학》 1964. 3. 71~77) 이라고 한다. 전자는 홍기문이 1959년 9월 1일~8일에 평양에서 열린 국제언어학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서 참가국은 9개국으로 중공·체코슬로바키아·동독·헝가리·몽고·폴란드·루마니아·소련·북한이었다고 한다.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국제대회는 북한에서 그것이 유일한 것이었고, 그후 북한에서 혹은 다른 공산주의국가에서 국제회의가 더 열렸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최정후의 논문이야말로 그 분야에 있어서 발달된 최근의 서구 비교언어학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가를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하였다. 그의 논문에서 최정후는 한국어가 알타이어계에 속한다고 처음 주장한 람스테드 (Ramstedt) 박사를 가리켜, 모든 것을 왜곡시킨 「알타이어계의 색안경」을 낀 학자라고 비난하면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동계의 어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일본의 학자들의

의견을 < 제국주의적·식민주의적 >이라고 혹평하였다. 그는 이어서 1970년 스트랄렌버그(Stahlenberg)의 학설 이래 우랄 알타이어계의 동계학설은 2백 여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랄 알타이어 연구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폼페(Nicholas Poppe)나 남한의 언어학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참고로 북한 언어학계에서 그 이름을 자주 들을 수 있는 학자들을 24) 나열해 본다. ()속은 전문분야를 가리킨다.

홍기문(역사언어학)·김병제(방언학)·김수경(역사언어학)·리극로(음성학·음운론)·정렬모(통사론)·김백련(문법의 범주)·김영환(역사언어학·비교언어학·음운론)·리창근(문법의 범주)·리근영(어휘론)·리세용(음운론)·림종률(문법의 범주)·원응국(음운론).

12. 방언 연구

방언에 관한 북한의 주요참고문헌은 김병제가 지은 《조선어 방언학 개요》3권(제1권, 1965: 제3권, 1975년)과 1980년에 발행된 《방언사전》이 있다. 그리고 독일학자 잣세(Verner Sasse)가 쓴 논문 <북한에 있어서의 방언 연구>(1980)는 객관적 견해로서 좋은 자료다.

《조선의 방언학 개요》 제1권은 방언의 음운론적·역사 언어학적 이론을, 제2권은 자세한 형태론적 현상을 제3권은 문장론과

주 24) Kim, Chin -W., p.34

어휘론을 각각 다루었다. 이 세 권은 북한서적에서 드물게 자세한 색인부와 주석 등 훌륭한 과학적 서적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어 놓았다. 이 방대한 방언연구에 대한 책은 17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써어진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북한 언어정책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그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 1권과 제 2권은 순수한 학술서적의 모든 면모를 잘 갖추고 있으나, 제 3권은 그 성격이 현저히 바뀌어 북한의 당 정책과 사상성·혁명성 등을 강조하는 언어정책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기능을 다분히 띠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방언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언 중에 좋은 말을 골라서 문화어로 승격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방언 자체로서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방언은 쓰지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색인부와 방언·고어명단을 제외하고 보면 제 2권은 본문이 250페이지인데 반해, 제 3권은 1백페이지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론>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북한측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본다.

객관적인 학술연구 태도, 학자 개인의 독창적인 이론의 발전 — 이러한 순수학문의 탐구는 북한에서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다.

주 25) Sasse, p. 928. "All [three] books are very well edited, complete with quite extensive indices, a feature usually missing in North Korean publications."

대략 1965 년까지만²⁶⁾ 해도 학자의 객관적인 개인 연구가 가능했던 것 같다. 즉 1965 년에 나온 제 2 권도 그런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위에서 언급했거니와 언어학 용어도 재래식으로 거의 모두 썩어졌다. 즉 서론·명사·대명사·어근·주격·호격·서술법·의문법·접속형 등 남한독자가 읽어도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있다. 1975 년도판 제 3 권에는 그 용어가 머릿말·문장론·어휘론·입말·

주 26) Sasse, p. 923. "Linguistic research in North Korea today just like any other scientific activity seems to be only done in case it has a comparatively narrowly defined relevance for the society, this relevance being judged on the basis of present or near future needs. It is not the individual scholar who attempts to answer questions he feels are in need of investigation the researcher instead is assigned tasks in the frame of an overall cultural policy. Academic life thus is an integral part of politics and politics is leading the way.

This has not always been the case. The little reading I have done gives the impression that up to about the second half of the sixties research was diverse in terms of subjects and basic questions and very much in the tradition of the kind of scholarship that develop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ime. It has never been free of political flavoring, but the political level-nationalism, anti-Japanism, later chuche-ism—was more a superficial general mood than an expressed policy. But nowadays the goals are clearly defined, they are set by Kim Ilsong's and the Party's cultural policy: Linguistics today means the formation and putting into general use of the "cultural language" (munhwao), the new Standard North Korean."

· 땀음 풀이말 · 뜻다른말 · 소리같은말 · 합침법 · 덧붙이법 · 앞붙이 · 뒷붙이 등 소위 그들의 문화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나온 《방언사전》은 「학문의 정치화의 경향을 더욱더 여실히 반영해 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전 5백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처음 2백페이지는 제1편(방언에 대응하는 문화어), 나머지는 제2편(문화어에 대응하는 방언)이다.

이 책의 편성을 보면 어떤 것이 문화어이고 어떤 것이 방언인가를 일반 대중에게 분명히 알려서 문화어는 빨리 배워서 사용하도록 하고, 방언은 버리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인상을 준다.

다시 《조선의 방언학 개요》로 돌아가서 일러두기에 보면 김병제는 제2권에서,

「이 책에 인용한 방언자료는 저자가 8·15 전후를 통하여 직접 현지에 나가 조사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각지의 대학 및 중학교 어문학 교원들이 보내 준 자료와 김일성종합대학 어문과 학생 등의 집체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함경북도 방언자료들을 많이 리용하였다.

남반부지역의 방언자료는 오늘의 현실로는 현지조사는 물론, 질문표에 의한 조사도 불가능하다. 해방후 출판한 조선 고어 방언사전에 의거하면서 현재 북반부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방언 보유자들에게서 그 자료들을 확인하기에 노력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3권에는 그가 직접 현지에 나가 조사한 것은 기본으로 하고 언어학연구소에서 각 지방에 보낸 질문표에 대한 대학 및 중학교 교원들이 보내준 자료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학과 학생들

이 조사한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남한 방언자료는 역시 8·15해방 전에 조사한 재료를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방언학이란 본래 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띤 말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방언 개체의 독립성과 그 특수성을 연구·분석하여 잘 살려 나아감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언어 연구에 공헌하게 되어 있다. 가장 가까이하는 역사 방언학·국어사 연구·비교 언어학 등에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이러한 본래의 목적은 무시되고 북한에서는 단지 문화어의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방언학이 존재하고 있다.

1977년까지 문화어로 승격된 방언의 수가 3천1백개에 이른다.²⁷⁾ 이러한 작업은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어학잡지에 실린 글에서 알 수 있다. 「방언에서 좋은 낱말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합시다」나²⁸⁾ 「방언에서 찾아내어 새로 문화어로 정한 말」은²⁹⁾ 그 좋은 예이다.

방언이 새로 문화어로 승격된 말 중에 상당수가 일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³⁰⁾ 이러한 현상은 남북한의 언어의 격차를 장차 더 크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 27) Sasse, p. 930

28) 《문화어 학습》, 1977, 4 : 46 ~ 47

29) 정영호 상계서, 1978, 1 : 46 ~ 47

30) Sasse, p. 930

IV. 南韓의 言語政策

1. 현재의 國한문 혼용제도

언어란 본래 두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대중간의 의사소통 및 계몽이고, 둘째는 학문 예술을 발달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북한에서 전자에 치우쳐 있다고 한다면, 남한은 후자에 기울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단적인 예로서 북에서는 이미 대중을 위해, 아니 북한주민에게 신속히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시키기 위해 한글전용을 단행해 온 지 30년이 넘었다. 그 반면 남한에서는 아직도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면서 일반 대중의 문화성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엘리트 학자들의 언어생활에는 한자혼용이 당장 편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귀족적인 언어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남한의 현황을 보면 학교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한자는 72년 8월 문교부가 제정한 <교육용 기초한자> 1천 8백자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9백자씩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 한문 교과서와 국어 및 국사 교과서 등의 본문 괄호 안에 넣어 가르치고 있다.

1주 1시간씩 가르치는 한문 교과서는 1-2-3학년까지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1권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이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어 각 학년에서 평균 3백자씩 배우도록 되어 있다.

한글 전용법이 처음 공포된 것은 1948년 이에 따라 자유당 말기 한때 한글전용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면적인 한글전용이 이루어진 것은 5·16혁명 직후였다. 모든 공문서와 법원 판결문에 이르

기까지 한글이 전용되는등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68년에 한글전용 5개년계획이 세워져 70년도부터 모든 교과서에서 한자가 일제 삭제되었다.

그후 학계 일부에서 한자교육 부활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72년도 2학기부터 중·고교에서 한자교육을 다시 시작했다. 75년 이후에는 중·고교의 국어 및 역사교과서 본문 괄호안에 한자를 넣어 註記하였고, 한 때 국민학교 4-5-6학년에서 6백자 정도의 한자를 가르침으로써 한자교육 방침이 다시 굳어지는 듯 했으나, 국민학교 한자교육만은 곧 백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남한 국어학계에서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측은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교수 허응(한글학회 이사장), 연세대(언어철학) 교수였던 현 이규호 문교부장관 등과 그의 신진 언어학자들이고, 한자혼용의 선봉자는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회장인 남광우교수와 고려대의 김민수교수 등이다.

표면적으로는 남북한의 언어 변천과정의 양상이 판이하게 다른것 같으나 사실은 남한에서도 북한의 <말 다듬기운동>이나, 말을 고유어화하는 운동, 새로운 용어제정 등과 똑같은 작업을 해왔다. 그 주역은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다. 단지 북에서처럼 강력한 정치적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적인 사회에서 소위 <百花齊放>³¹⁾

주 31) “Let a hundred flowers blossom: let a hundred schools of thought contend” 일찌기 모택동이 중국의 문화발전을 위해 취하였던 문화정책.

격이라고나 할까. 남한에는 실로 여러 국어학파가 있어서 자유롭게 이론을 주장하고 경쟁적인 발전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글학회 중심의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 놓았는가?

하나의 언어 즉, 한국어가 비록 분단된 두 지역에서 각기 변화하였다고는 하나, 어려운 한자어를 풀어쓴다는 점에서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의 결과로 다듬어진 말이나 남한의 <쉬운말 사전>

(1967)에 나오는 낱말들은 크게 다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다음의 명단은 남북 양측이 똑같은 어휘다. 32)

본래말	다듬은 말
개재하다	끼어있다(끼어들다)
첨가하다	덧붙이다·(덧)보태다.
개방하다	열어놓다
취급하다	다루다(다루어지다·다루게 되다)
빙자하다	핑계하다(핑계삼다)
발로하다	드러나다(들쭉내다)
선회하다	빙(빙)돌다
매 접	가 게
주 석	플 이
보주지(보루가미)	판지(종이)
인화지	사진종이
홍 수	큰 물
침수하다	물에 잠기다

주 32) 《한글새 소식》, 1974. 2. 5, 허응, 《남북한의 언어와 언어정책》p.3

색 인	찾기 (찾아보기 · 찾아내기)
땀뿌라	(기름) 튀김
재 단	마름질 (마름개질)
전망증	잇음증 (잇음기)
정 미	알속 (실속 · 알짬)
전정거 (전정톱)	가지 (치기) 톱
선불하다	미리 치르다

다음과 같은 말들은 꼭 같이 다듬어지지는 않았으나, 서로 비슷해서 양쪽이 서로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본래말	남한	북한
침전하다	양금얕다	가라얕다 · 양금이 얕다
방불하다	비슷하다	비스듬하다
파급되다	미치다 · 번져가다	미치다 · 번지다 · 퍼져가다
배합하다	섞다 · 어울려 맞추다	섞다 · 어울려 섞다
유인하다	피다 · 피어내다	피다 · 호리다
비등하다	끓다 · 끓어오르다	끓어 오르다 · 들끓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듬어져서 양쪽이 전혀 다른 말을 쓰게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으나, 양쪽이 다 고유한 우리 말로 다듬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되지 않는다.

본래말	남한	북한
날조하다	가짜만들다 · 생으로 꾸미다	꾸며내다 · 지어내다

본래말	남한	북한
편성하다	짜다 · 엮다	짜다 · 묶어짜다 · 벌러짜다
과중하다	너무 무겁다	지내무겁다 · 힘겁다 · 벽차다 아름답다
족박하다	닥치다 · 바작 닥치다	몹시 급하다 · 바투 닥치다
베레모	베레모	핀지모자
벤또	도시락	밥곽 · 곱밥
방출하다	풀어내다	내보내다
초월하다	이월하다	넘기다 · 넘어가다
분무기	뿜개	뿌무개
연륜	나이테	해돌이 · 해무늬

북한에서 한글전용이 일찍 되었다고 하여 마치 북한이 그 분야에서 앞서 있는 것처럼 오해할지 모르겠기에 특히 한글학회에서 펴낸 《쉬운말 사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의 언어정책은 우리 독자에게 생소한 분야이므로 자세하게 설명하려 노력하였으나, 우리 남한의 언어변화 과정이나 정책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요점만 추려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글 전용운동 33)

(1) 한글 가로 풀어쓰기

갑오경장의 개화기부터 일어난 이 운동은 한글의 제모습을 찾아 주려는 것으로, 학회는 창립 당초부터 한글 가로 풀어쓰기를 계몽

주 33) 《한글학회요람》, 서울: 한글학회 1981. p. 3. <일과 업적> 참고.

하고 시안을 공모해서 <사정한 표준말 모음> (1936)의 찾아보기에 적용해 보기도 했다. 그 이상적인 시안은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으나 지금은 기관지인 《한글》의 속 표지에 제목을 풀어쓰기로 적어서 그 변함없는 숙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한글의 기 계획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업이다.

(2) <한글날>의 제정

훈민정음의 반포일을 세종 28년(1446)음력 9월 29일로 잡고, 1926년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처음으로 <가갸날>이라 이름해서 기념하기 시작했다. 1928년 음력 9월 29일에는 이름을 <한글날>로 고쳤고, 1932년에는 양력(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해서 10월 29일로 정했으며, 1934년에는 양력(그레고리오력) 10월 28일로 고쳐 정했다가, 1945년에 이르러 1940년 7월에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의 <전통 11년 9월 상환>을 음력 9월 10일로 잡고 양력으로 환산해서 10월 9일로 확정했으며, 한글 반포 5백돌인 1946년 10월 9일부터는 한글날인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다.

(3) <세종날>의 제정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1397년 음력 4월 10일을 양력 5월 15일로 환산해서 1949년 5월 15일부터 <세종날>로 정해 오늘까지 기념하고 있다.

(4) 한글만 쓰기 운동

1948년 10월 9일 공포된 한글전용법에 힘입어 1949년 6월 12일 <한글전용 촉진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강연회·강습회·가두계몽·건의문·성명서·소책자·전시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써서 기운차게 펼쳐 오고 있다.

남한에 있어서 한글전용의 필요성과 하루 속히 한글전용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한글학회의 꾸준한 주장을 저자도 완전히 동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본다. 34)

〈국어정책에 관한 우리의 주장〉

1. 우리나라 고유한 민족 문화의 창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문화의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의 글자 생활을 한글만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

(1) 한글은 배우기 쉽고 간편한 글자로서 세계에 첫째 가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쓰기 힘든 글자로서 또한 세계에서 첫째 가는 글자입니다. 우리의 글자 생활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를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 인쇄술의 발달은 현대문명의 수준을 잴 수 있는 한 계량기입니다. 그런데 한자가 들어 있으면 인쇄가 매우 더디어 집니다. 한글만으로 된 글은 인쇄하기가 매우 간편합니다.

(3) 현대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글 타자기·한글 텔레타입이 실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자의 기계에 한자가 끼어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기계가 가속도로 문화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버리지 않았다가는 국제적인 경쟁에서 점점 더 뒤떨어지게 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입니다.

주 34) 「언어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당국,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께—국어교육정책에 관한 우리의 주장—」한글학회, 1981.9.10.

그러므로 한자를 쓰는 나라치고 한자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애 쓰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월남은 한자를 버린 지 오래고, 일본도 한자를 없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표기방식의 후진성 때문에 무척 난관에 빠져 있고, 중국도 백년이나 전부터 한자를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갈음될 만한 글자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가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중국대륙에서는 로마자를 쓰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 노신이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 국민이 망한다」고 말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겪고 있는 고민의 씨는 우리에게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자를 없앨 수 있는 훌륭한 한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버리지 않는다면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더 불리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4) 토박이 말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한자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역사의 진전에는 보수적인 일부 세력의 반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글은 만든 세종대왕에게까지 한글을 포기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갖은 힘을 다하여 한글전용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반대 이유를 들고 나섭니다. 그들은 :

(1) 한글만으로 적어 놓으면 읽기 힘들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것은 일제시대에 정상적인 국어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편견

입니다. 해방 뒤에 국민학교 때부터 정상적인 국어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한글만으로 적은 글을 읽는 데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한자가 들면 오히려 글 읽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2) 동음이의어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것은 그 문맥에 의해서 바른 뜻이 파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쓸 데 없는 한자어가 많아서 동음어가 늘어나 있습니다. 한자폐지로 말미암아 <公席>과 <空席>이 구별되지 않거든 하나를 <빈자리>로 고칠 것이며 <空間>과 <槓杆>이 혼동되거든 하나를 <지레>로 바꾸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3) 중요한 개념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버려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개념>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고유한 우리말은 대개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란 말입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4) 한자어도 국어이니까 버리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 그렇습니다. 한자어도 국어입니다. 누가 한자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한자어도 국어이니까 고유한 국어와 구별없이 한글로 적자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아이들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다 같은 우리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 같이 한글로 적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자어는 한자로 적어야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국어 안에 이질적인 말이 두 가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도 국어입니다. 그러므로 고유한 국어와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5) 한자어는 한자로 적히지 않으면 언어가 아니라고 극언하기

도 합니다. — 그들은 언어와 글자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교과서에는 많은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언어 아닌 그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심한 폭론입니다.

(6) 한자어에는 조어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 조어력이란 어떤 말에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글자 이전에도 있는 현상입니다. 어째서 한자어에만 조어력이 있는양 떠들어대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말에도 풍부한 말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를 한글로 적었다고 한자어의 조어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의 <노>에 <늙은>의 뜻이 있음을 가르쳐 놓으면 <늙은 총각>을 <노총각>이라 부르는 힘드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자는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이 전체의 뜻을 알아차리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弟子>는 <아들의 아우>가 아닙니다.

(7) 전통의 고아가 된다고 염려합니다. — 우리는 지금 동양적인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중학교에서부터 그 어려운 한문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문은 국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국어와 분리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한문이 꼭 필요한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에게만 한문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하여 일반 국민은 번역을 통해서 그 사상을 섭취하면 족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서에는 문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말 번역을 통해서 충분히 그 사상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도 한 가지입니다. 최근 불교의 경전도 우리말과 한글만으로 번역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한문경전 자체가 범어원전의 번역이란 점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학교를 나와도 신문을 못 본다고 한탄합니다. — 중학교때부터의 한문교육은 그러한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꼭 한자를 섞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차차 한글이 많아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한글만으로 신문을 만들기는 힘드는 일입니다.

또 사람 이름·땅 이름이 한글로 적혀서 안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거리의 간판이 한글로 되었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일본 관광객뿐입니다.

(9) 한자 문화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자를 버릴 수 없다 합니다. — 일본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이런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양 삼국 너른 줄만 알고 세계 너른 줄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외국 나갈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외국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국민교육의 방침을 정하자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장차 서양 잘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서양 사람을 위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서양 외래어에는 적다 로마자를 병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중공의 8억 국민이 쓰고 있는 한자란 것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0) 한자를 가르치면 지능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의 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잘 개발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사람 자신이 이것을 애써 버리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11) 일본은 한자를 쓰면서도 잘 사는데, 무얼 그리느냐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글자의 기계화를 권장하고 있고, 국방부나 체신부나 법원에서는 글자의 기계화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 뒤만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뜻있는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한글전용의 성공적인 추세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한글만으로 적은 글에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전용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9월 10일 한글학회

3. 국어 순화운동

(1) 우리말 도로 찾기와 말 다듬기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오늘까지 일반 용어와 각종 분야의 전문용어 가운데 어려운 한자 말과 일본식 용어나 외래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권장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남한에서는 국어 순화운동의 골자로 <바른말·고운말> 쓰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 운동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아는 대중운동이다. 그리고 한글 세대를 위하여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사람이름·땅(고장)이름도 되도록이면 순 국어로 만들기를 권장하여, 서울대학교 국어운동 학생회에서는 해마다 고운 이름을 모집하는 〈예쁜 이름짓기 대회〉를 열어 상을 준다. 대학가에도 〈우리말 가꾸기 운동〉이³⁵⁾ 요즈음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우리말 사랑 모임〉이란 서클을 중심으로 1967년 이래 꾸준히 우리말 발굴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런 우리 말을 아십니까?〉라는 게시판을 걸고, 우리 말뿐 아니라 영어·한자어도 순화시켜 나가고 있다.

실감나는 낱말 한두 개의 예를 들어보면 〈곶송그리다〉(놀라거나 겁이 나서 몸을 잔뜩 오그리다), 〈발탄 강아지〉(할일 없이 짹짹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우물지다〉(뺨에 보조개가 생기다) 등이 있다.

그동안 발굴해 정리한 단어가 4만~5만 정도인데, 앞으로 10만 단어가 되면 순수 우리말 사전을 펴낼 계획이라고 한다.

연세대학교에서도 국어학생운동을 주축으로 이와 비슷한 국어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2) 한글전용 특별 심의회 위원회

주 35) 《중앙일보》, 1981.11.27. p. 8. 「대학가에 번지는 우리말 가꾸기 운동」

1962년 4월 1일 문교부 한글전용 특별 심의회의 일을 도맡아 위원회를 조직하고, 1만 4천 1백 59개의 어려운 낱말을 쉬운 낱말로 고쳐 1962년 7월 23일부터 1963년 8월 10일까지 회보 제 1집, 제 2집으로 펴냈다.

(3) <<쉬운 말 사전>>의 발행

우리말 도로 찾기의 한 마무리로 1967년 1월 30일 발행했다.

4. 한글의 기계화 운동

(1) 한글날 기념 전국 한글타자 경기대회

1953년 한글날부터 1969년 한글날까지 해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2) 한글 기계화 연구소

1962년 3월 17일 학회 부설기관으로 창설되어 우여곡절을 겪고 1976년 11월 12일 해산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

㉠ 한글 타자기 통일 글자판 : 창설 당초에 착수해서 1962년 11월 1일 발표했다.

㉡ <<한글 기계화>> : 기관지로 1962년 11월 1일 창간하였다.

㉢ 전국 타자기 기능공 급수 검정시험 : 1966년 11월 1일부터 1971년 5월 12일까지 18회에 걸쳐 주관하다가 노동청에 넘겼다.

(3) 한글 기계화 전시회

1971년 12월 3일~10일 학회 창립 신 돌 기념행사의 하나로,

1975년 10월 9일~15일 529돌 한글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열였으며, 앞으로도 열 예정이다.

(4) 한글 기계화 연구 발표회

한글 타자기의 개량·컴퓨터의 한글 처리문제·한글 글자꼴의 개발·한글 가로 풀어쓰기 등을 주제로 삼아 해마다 두 번 정도씩 열기로 하고 있다.

5. 사전의 편찬과 보유

(1) 《큰 사전》

483돌 한글날인 1929년 10월 31일(음력 9월 29일) 조직된 〈조선어 사전 편찬회〉의 사업을 넘겨 받아 왜정의 악랄한 탄압을 겪으면서 원고를 완성했으며, 1947년 1월 9일 첫째 권을 발간하고, 1948년 5월 미국 록펠러 재단의 원조를 받아 1949년 5월 5일 둘째 권을, 1950년 6월 12일 세째 권을 발간하고는, 6·25사변과 한글 파동으로 갖은 곤경을 치르다가 1956년 9월~11월 미국 록펠러 재단의 두번째 원조를 받아 1957년 10월 9일 국배판 6권의 규모로 완간했다. 1967년부터는 국고의 보조를 받아 이 큰 사전을 보유하는 일을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어서 1986년 경에는 새로운 큰 사전을 발간할 예정이다.

(2) 《중사전》

1957년 11월 1일 착수해서 1958년 6월 15일 일반용 국판 1권으로 발행했다.

(3) 《소사전》

1958년 9월 20일 착수해서 1960년 4월 30일 학생용 사륙판 1권으로 발행했다.

(4) 《새 한글 사전》

1960년 5월 1일부터 중사전을 수정하고 이름도 고쳐서 1965년 4월 15일 중사전과 같은 크기로 발행했다.

(5) 《쉬운 말 사전》

1963년 7월 19일 착수해서 한글전용 특별 심의회의회보 제1집—제5집에 발표된 쉬운 낱말 1만 4천 1백 59개에 새로운 학술용어 1천 7백 65개를 보태서 어려운 낱말과 대조하여 1967년 1월 30일 발행했다.

(6) 《국어학 사전》

1981년에 착수했다.

(7) 《우리말 발음 사전》

1981년에 착수했다.

6. 한글 맞춤법의 연구

(1)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0년 12월 13일부터 18인의 위원들이 3년 동안 125차의

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을 487 돌 한글날인 1933년 10월 29일 발표했다.

(2) 《한글 맞춤법 통일안, 원본 및 고침판 모음》

1980년 7월 30일 그 동안 수정되고 개정되어 온 6종의 통일안을 위의 원본과 함께 영인해서 한 권으로 묶어 발행했다.

(3) 한글 맞춤법

1979년 1월 16일부터 11인의 수정위원회가 26차의 회의를 거쳐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을 1980년 8월 28일 발표했다.

7. 외래어 표기법 및 우리말 로마자 표기법의 연구

(1)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1931년 1월 24일부터 각계의 권위자 45인으로 조직된 <외래어 표기법 급 부수 문제 협의회>로부터 위탁을 받고 3인의 책임위원을 두어 국내의 음성학 전문가와 음성학 분야의 학술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1938년 가을 ① 외래어 표기법 ② 국어음 (일본어음의 한글) 표기법 ③ 조선어음 로마자 표기법 ④ 조선어음 만국 음성기호 표기법의 원안을 작성하고, 2년 동안 각종 출판물에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각계 권위자 3백여명의 비평을 받은 다음 결국 10년만에 최종안을 얻어 1940년 6월 25일 발표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본말의 한글 표기법,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법, 우리말의

만국 음성 기호 전사법이 끼이게 되었다.

(2) 지명(地名)을 위한 통일된 로마자 표기법

문교부는 지금까지 지명표기에 있어서 혼란을 빚어 왔던 우리나라 地名의 로마자 표기법을 통일시키기 위해 새로 《대한민국 주요지명일람표》와 《대한민국지도》를 작성했다.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토대로 만든 이 로마자와 지명은 구(區)·면(面)이상의 행정구역별 지명 1천 7백 93 개소와 주요관광지 92 개소 등 모두 1천 8백 85 개소이다. 문교부는 서울시의 행정적인 간판·역이름·고속도로번의 지방·경제기획원발간의 한국통제연감·교과서 등은 59년에 제정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과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에 따르고 있으나, 민간단체와 일반에서는 꼭 이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로마자와 지명 일람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명이나 옥호(屋號)는 간섭 없기로 했다. 문교부가 제정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원칙은 아래표와 같다.

예 : 서울 : Seoul, 부산 : Busan, 한라산 : Hanra Mt., 제주도 : Jeju I., 대한민국 : DAEHAN MINGUG.

모 음		자 음	
한 글	로 마 자	한 글	로 마 자
ㅏ	a	ㄱ	g
ㅑ	ya	ㄴ	n
ㅓ	eo	ㄷ	d
ㅕ	yeo	ㄹ	r.l.
ㅗ	o	ㅁ	m
ㅛ	yo	ㅂ	b
ㅜ	u	ㅅ	s
ㅠ	yu	ㅇ	ng
ㅡ	eu	ㅈ	j
ㅣ	i	ㅊ	ch
ㅞ	ae	ㅋ	k
ㅙ	yae	ㅌ	t
ㅚ	e	ㅍ	p
ㅜ	ye	ㅎ	h
ㅜ	wa		
ㅞ	wae	ㅍ	gg
ㅜ	oe	ㅌ	dd
ㅜ	weo	ㅂ	bb
ㅜ	we	ㅅ	ss
ㅜ	wi	ㅈ	jj
ㅜ	eui		

8. 표준말의 연구

〈사정한 표준말 모음〉

1934년 여름부터 서울 중심에 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출된 73인의 사정 위원들이 3차의 독회와 여러 차례의 수정 위원회를 거쳐 사정한 표준말을 409돌 한글날인 1936년 10월 28일 발표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 말의 변천이 심한 만큼 표준말의 재사정이 요청되고 있다.

9. 국어의 조사연구

(1) 한국 지명의 조사

1964년부터 남한 전역의 땅 이름과 그 유래를 문헌과 현지 답사를 통해 조사하고 그 내용을 지역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발행하고 있다.

《한국 지명 총람》	1 (서울편)	(1966)
《한국 지명 총람》	2 (강원편)	(1967)
《한국 지명 총람》	3 (충북편)	(1970)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 상)	(1974)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 하)	(1974)
《한국 지명 총람》	5 (경북편 1)	(1978)
《한국 지명 총람》	5 (경북편 2)	(1978)
《한국 지명 총람》	6 (경북편 3)	(1979)
《한국 지명 총람》	7 (경북편 4)	(1979)
《한국 지명 총람》	8 (경남편 1)	(1979)

- 《한국 지명 총람》 9 (경남편) (1980)
- 《한국 지명 총람》 10 (전남편) (1980)
- 《한국 지명 총람》 11 (전북편) (1981 예정)
- 《한국 지명 총람》 12 (전북편) (1981 예정)

(2)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1970년 2월 19일 문교부의 위촉을 받고 한글학회와 6개 학술단체 및 문교부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으로 조직해서 ⑦ 한글 맞춤법의 사용 실태 조사 ㉠ 표준말 재사정을 위한 기초조사사업을 1977년에 마쳤다.

(3)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 낱말찾기 조사》

1981년 10월 9일 발행했다.

10. 외래어 정리사업

남한에서 당면하는 외래어 문제는 주로 중국에서 받은 최초의 한문화의 영향과 더불어 한자어가 중심이 된다. 2,000여년 전부터 우리가 받아들인 한자어 중에는 우리말에 녹아 들어서 완전히 우리의 국어가 된 것이 많다. 한자를 버리고 한글전용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때 어려운 한자어는 역시 외래어로 보아 우리의 고유어로 가능한 한 다듬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로 일본문화에서 받은 일제시대의 유물인 일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에 이르러서 서구문화의 유입과 함께 영어의 범람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내려가듯이 언어도 그에 따

라 흘러 내린다. 인간생활이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고 국제화됨에 따라 어휘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어휘는 풍부할 수록 좋다. 그러나 외국어의 차용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외래어를 우리 국어의 주체적 입장에서 분류해 보면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³⁶⁾

첫째는 우리말로서도 잘 표현이 되는데 필요없이 들여 온 외래어가 있다. 이러한 외래어는 안 쓰는 것이 좋겠다. <센세이셔널>이란 말을 쓰면 좀 더 멋있는 것처럼 생각되는지 <선풍적>이란 좋은 우리 표현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외래어를 즐겨 쓴다.

둘째, 원래 우리 말에 없어서 들어오기는 하였지만은 조금만 유통하면 우리 표현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 우리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순 국어를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타이프라이터>도 <타자기>다.

라고 하면 국어만 아는 일반대중에게 더 잘 이해가 된다.

셋째, 우리는 외래어를 적다 몰아낼 수는 없다.<베스트 셀러>같은 말은 우리의 고유 표현으로 생각해 내기도 전에 이미 우리 문화에 들어와서 자리가 잡히고,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버렸다. 지나치게 배타적이면 너무 어휘가 폐쇄적이 되어 버려 유통성 있는 표현도 불가능하고, 우리의 문화가 초라한 문화로 후진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외래어 사용의 한계는 어디다 둘 것인가? 과연 언어의

주 36) 허 응, 《우리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 p.254.

조절은 가능한가?

언어의 혁신은 가능하다. 물론 음운이나 문법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바랄 수 없지만 어휘를 조절하는 일은 가능하다.

터어키 경우처럼 성공적인 문자개혁의 사례가 있지만 문자의 개혁도 한 민족의 정신을 혁신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래어의 사용 한계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보급에 있어 문교부 같은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그 실제작업을 하는 사정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어야 하며, 실천에 있어 온 국민의 정신적 참여가 필요하다.

해가 거듭할 수록 국제사회가 좁아지고 지구는 한 가족같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과학 기술용어와 외교·유행에 대한 서구의 표현들이 활짝 개방해 놓은 남한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외래어 정리사업을 각 전문분야에서 용어제정 작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글학회에서도 1945년부터 군부의 용어를 비롯하여 수학·채광·문리·화학·천문·기상·항공·요업·건축·토목·농학·농업·경제·양잠·축산·화폐·전기·교통·음식·미용·당구 및 법령·경찰·금융·증권·조폐·농산물 검사 용어와 신문·인쇄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직접 제정 또는 감수하여, 우리나라 문화의 터전을 닦아 놓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11 . 남북한의 주요 국어연구 대조 연표 37)

남	한	북	한
1921.12. 3	〈조선어 연구회〉〈한글학회 전신〉 창립.		
1931. 1.10	조선어 연구회를 〈조선어학회〉로 고침.		
1931	여름방학을 이용하는 한글 계몽순회 강연회 개시(3년간 계속).		
1931. 5. 1	학회 기관지 《한글》 창간호 발행.		
1933.10.29	한글맞춤법 통일안 발표.		
1934. 1.25	〈한글〉을 통해 맞춤법 계몽시작.		
1936.10.28	〈사정한 표준말 모음〉 발표.		
1940. 6	〈외래어 표기법〉 발표.		
1942.10. 1	소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인하여 《큰사전》편찬 중단, 회원 27명 흥원경찰서에 감금됨.		
1943.12. 8	이운재 옥사.		
1945. 8.15	해방과 더불어 기소된 회원 풀려나옴.		
8.25	임시총회를 열고 기구를 정비함.		
9.11	한글 강습회를 열고, 국어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11.20	《한글첫걸음》《초등국어교본》(상)을 편찬.		
1946. 1. 5	《초등국어 교본》(중·하), 《한글교수지침》(교사용), 《학문에 한글독본》(고급학년용)을 편찬.	1946. 1.25	성인 학교, 한글학교 설립, 국어교육· 문맹퇴치 시작.

남	한	북	한
1.18	한글강습회 사범부 수 료자 1,836 명을 냄.		
3.	《조선어 표준말 모 음》 발행.		
7.	《외래어 표기법 통 일안》 발행.		
9.10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함.		
1947.10. 9	《큰사전》 제 1 권 발행.	1947. 2. 3	〈조선어문 연구회〉 가 김일성대학에 설치됨.
1948.10. 1	〈한글전용법〉 국회 통과, 법률제 6 호로 공포.	1948. 1	김두봉이 6 자의 새 글자를 포함한 새문자를 제 안함.
1949. 9. 5	〈조선어학회〉를 한 글학회로 고침.	1949. 3	《조선어연구》 창간 호 출판. 한자폐지와 함께 한 글전용정책을 채택. 국어 정화 운동 시작 (말다듬기 운동).
1950. 6.25	〈6.25 사변〉 일어남.	1950. 6.25	〈6.25 사변〉 일어남.
		1952.12. 9	〈조선어문 연구소〉 가 과학원에서 설치됨. 후에 문학과 분리되어 〈조선어학 연구소〉가 됨.

남	한	북	한
1953. 4.27	국무총리 훈령으로 〈한글간소화〉 발표. 5.24 위 발표에 대한 반 대성명 발표.		
1954. 7.24	문교부에서 한글 간 소화안 강행 보류.	1954. 9	《조선어 철자법》 출판, 선포.
1955. 9.19	이대통령 한글 간소 화안 철회.		
1957.10. 9	《큰사전》 제 6 권 발행으로 《큰사전》 전 6 권 완성.	1956. 1	〈외래어표기법〉 발표. 10 〈문자개혁연구위원회〉 발족.
1958. 6.18	《중사전》 편찬 발 행.	1958. 1.17	〈새 글자〉에 대한 공청회가 있는 후 김두봉의 숙청. 2. 《말과 글》 창간호 발행.
1960. 4.30	《소사전》 편찬 발 행.	1960-1961.	《조선어 문법》 발행. 《조선말사전》 전 6 권 발행.

주 37) 남북한 사회문화 현황 비교 ; pp.69~72.

남	북
<p>1962. 3.27 한글기계화연구소 부설.</p>	<p>1964. 1. 3 <김일성의 언어학자들과의 담화> 발표.</p>
<p>1965. 4.15 <<새한글사전>> 편찬 발행.</p>	
<p>1966. 2.28 지명총람<서울편> 편집 발행(각 지방별로 계속)</p>	<p>1966. 5.14 <김일성의 언어 학 자들과의 두번째 담화> 발표. 7.30 <<조선말규범집>>출판, 선포.</p>
<p>1967. 1.30 한글전용을 위한 <<쉬 운말 사전>> 편찬 발행.</p>	
<p>1968 - 1969 은행용어·농업용어 등 분야별 전문용어 사정 시 작.</p>	<p>1968. <<현대 조선말 사전>> 발 행. 1968. 3 <<문화어학습>> (계간지) 창간호를 냄.</p>
<p>1970. 3.23 최현배 서거.</p>	
<p>1971.11. 1 한글학회 50돌 기념 으로 <<한글전용에로의 길>> 발행. 12. 3 - 7 <<한글학회 50년 사>>·<<50돌 기념 논문집>></p>	<p>1971. <<철학사전>>·<<정치용어 사전>>의 출판.</p>

남	한	북	한
발행. 제 1 회 국제 언어학자 대회.			
1972. 9. 5 《한글 새소식》 창간 호 발간.		1972. 《문학예술사전》 발행. 《력사사전》 2 권 발행.	
12.31 사전편찬, 전문용어 125, 336 말수 풀이 끝냄. 국어 조사위원회 맞춤법 제 1 차 수 정안 재심 착수.		1973. 《경제사전》 2 권 발행. 《정치사전》 발행. 《조선문화 어사전》 발행.	
1974. 8. 3 <한글문화협회> 결성.			
1975.12.14 월례발표회를 갖기 시 작-제 1 회.			
1977.10. 8 한글회관 준공식.		1978. 《조선어 문체론 연구》 발행.	
1979. 3. 3 맞춤법 개편회의 시작.		1979. 《조선 문화어 문법》 발행.	
1980. 3. 6 맞춤법 수정회의 시작.		1980. 《조선어 어휘론 연구》 발행. 《방언사전》 발행.	
3.13 새 헌법 표기 및 표 현에 관한 성명서 발표.			

남	한	북	한
1980. 10. 25-26	534 돌 한글날 기념 전국 언어학자 대회.		
1981. 1. 8	텔레비 전방영에 한자 금지 건의안 제출.		
11. 16	《국민 학교 국어교과서 낱말 찾기 조사》 발행.		
12. 3-4	제 2 회 국제언어학 자 대회.		

- ◆ 이 연표의 <남한>은 《한글학회 50년사》(pp.543~549)를 참고 했고(1971년까지), <북한>측은 김진우(1978. pp.32~33)를 참고했다(1968년까지). 북한에서는 정권차원에서의 일원적인 연표이지만, 남한은 언어학 연구가 민간단체 위주이므로, 각 대학이나 독립된 연구소의 업적이나 활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해 둔다. 1971년 이후는 북한의 주요 간행물 몇편 나열하는 정도이고, 남한의 것은 한글학회의 한글지 특집호 《60돌 기념논문집》 원고를 참고했다.

V. 北韓의 言語生活

1. 文化구조

인간의 문화활동은 거의 다 언어로써 표현된다. 학문연구 · 교육 · 종교 · 문학 · 예술, 이 모두가 언어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일반 대중의 언어생활을 반영하는 북한의 문화구조는 어떠한 배경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 보기로 한다.

북한문화의 형성과정은 시기별로 나누어 ① 형성기 (1945 ~ 1953) ② 성장기 (1954 ~ 1960) ③ 정착기 (1961 ~ 1970) ④ 유일체제강화기 (1971 ~ 현재) 로 대충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제 1기는 8.15 해방부터 1953년의 휴전시기까지로 6.25 동란은 남북에 갈라져 있던 우리 민족을 한 차례 뒤섞어서 양자택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수 많은 북한주민의 월남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만큼 북한에서 반발요소가 제거된 셈이어서 북한정권과 월남인 양측에게 다 좋은 결과가 되었다.

문예정책에 있어서는 1951년 6.25 동란 직후 김일성은 인민군의 영웅성을 강조하는 대중적 영웅주의와 <적에 대한 불붙는 증오심>을 선동했으며, 그 대상은 주로 미제국주의자들이었다.

제 2기 성장기 (1954 ~ 1960)는 6.25 동란 전후복구 시기이다.

1958년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 관해 언급하면서 김일성은 일반 지식 수준향상을 위해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할 것을 다짐하고 특히 농촌문화사업을 강조했다.

1960년 천리마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을 창조하기 위하여 <영화

와 음악에 있어 사상적 내용의 빈약>을 지적하면서 「연애문제를 취급한 영화는 심검기 짝이 없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작가·예술가들을 <사람을 흥분시키는 생활과 투쟁이 있는 공장으로 농촌으로> 내몰았다. 아울러 문학과 예술을 한데 묶어 연합 조직적인 <문예총>으로 재조직하고 당의 직속으로 두게 하였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1970년에 집체적 창작활동이 전개되게 된다.

제 3기 (1961~1970)는 정착기로서 북한의 제 1차 7개년 경제계획 기간이다.

이 기간에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자주로선·김일성의 개인숭배와 우상화 등 정책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1964년 김일성은 「조국통일이 최고의 목표인데 남반부의 인민 생활과 투쟁을 취급한 작품이 매우 적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남한의 인텔리를 자극할 만한 작품을 쓰라고 지시하였다. 작품소개는 북한과 남한에 관한 비율을 4:1 정도로 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즈>는 미제들이 북한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한 <사상적 무기>라고 경고했다. 용기를 주는 음악이라야 혁명을 하고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문예활동에 관해서도 「노동계급적 선이 똑똑히 선 혁명적 문학 예술 작품들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었으며... 우리의 문학 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었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어 있다」라고 문예활동이 정치목표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나섰다.

1968년에 북한 공산당의 <인텔리 정책>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인텔리들은 소심하고 보신주의·이기주의이고, 부르주아 사상의 잔재인 낡은 사상에 연민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인텔리들은 노동계급을 위해 일하고 당의 혁명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복고주의는 절대 배격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른 문화의 장점은 따오라고 하면서도 타문화의 소개나 접촉은 금지해 왔다.

제 4기(1971~현재)에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을 더욱 강화한다. 최근에 와서는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은 또한 북한이 6개년 경제계획(1971~1976)을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자본기술을 활발히 도입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채롭고 감개무량했던 역사적 남북대화를 진행시켰던 시기이기도 하다.

문예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寫實主義)> 창작방법의 구현과 <당성·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최근에 와서는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을 그리는 것을 혁명적 문학예술의 중심내용으로 하라」고 김일성이 지시하고 있다.

1975년 이래 북한에서는 소위 <사상이 높은 노래>나 <군중무용>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고된 노동과 획일적인 일과에서 균중을 쉬게 하는 단체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미술에 있어서도 민족적·대중적 방향으로 장려되고 있다. 회화에도 조선화·유화·벽화·출판화가 있으며, 안경·김홍도·신유복·김두량 등 역대 화가를 꼽는다.

1978년 이후는 북한의 제 2차 7개년 경제계획(1978~1984)에 해당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변화를 전망해 본다면, 그

주요내용은 현대화를 위한 과학과 외국어의 장려로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서구의 여러 선진국의 자유사상·퇴폐풍조 등을 북한의 젊은 세대가 처음으로 외국의 유학이나 학술교류를 통해 맛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문화의 구조적 특징은 첫째, 북한문화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사회체제가 전체주의적 집단주의적 유일체제인 만큼 북한문화의 특징도 남한문화와 같이 자율적이고 민주주의적 문화 공동체의 성격을 띠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북한문화는 폐쇄문화다. 민주사회의 개방문화와는 정반대다. 셋째, 북한문화는 다양성이 결여된 단일적·획일적 문화이다.

넷째, 북한문화는 타율적 - 즉, 강제 조성되고 당의 통제하에 조직·동원된 개성이 전혀 무시된 문화이다.

생태적 특징을 보더라도 우선 비인간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당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그들의 신조처럼 북한문화는 독선적이고 직선적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북한헌법 제 49 조)에서 보듯이 공동의식이 강하다. 작품 하나를 쓰더라도 저자가 개인이 아니고 <집체작>으로 출판된다. 즉, 당의 지시에 따라 문학연구소에 어떤 제목을 주면 그 직원이 공동으로 집필하게 된다.

그의 북한 지도자층은 의심이 많고, 집념이 강하며, 금욕적(성욕·물욕에 있어 적어도 외부적으로는)이고 현실적 여건을 중시한다.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언변적·감정적·전투적·호전적임을 알 수 있

고 대부분이 과거 보다는 미래지향적이다.

2. 문예정책

(1) 기본방향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일반적 목적은 자
유롭고도 순수한 내심(內心)의 욕구에 의하여 <미(美)의 창조
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문예활동은 이와 같은
일반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예
술을 계승, 발전시켜 문예증흥을 이룩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보다 정
서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예정책 역시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과 외국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우리 문화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문예활동의 목적은 당(黨)정책 구현·공산주
의 선전과 찬양·공산주의적 인간개조, 그리고 노동의욕 제고와 김
일성가계(金日成家系) 우상화 등으로 되어 있으며, 문예정책 역시
선전과 선동의 수단으로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본내용 및 방향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작방법을 구
현하고 <당성·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고수하며 사상혁명과 <문
화혁명> 수행의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일성은 제5차 당대회 보고에서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
주의적으로 교육하면, 온 사회를 혁명화·노동계급화하는 데 큰 역

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특히 역설한 바 있다.

(2) 창작활동

북한의 작가·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이점을 나타낸다.

첫째, 북한의 문예활동은 이른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것>이어야 한다. 미(美)의 창조보다는 당정책의 선전선동에, 창작보다는 모조에 주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문예인들은 <작품제작을 현지에서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장·광산·건설장·농어촌 등에서 직접 일하면서 군중을 당주위에 집결시키는 선동요원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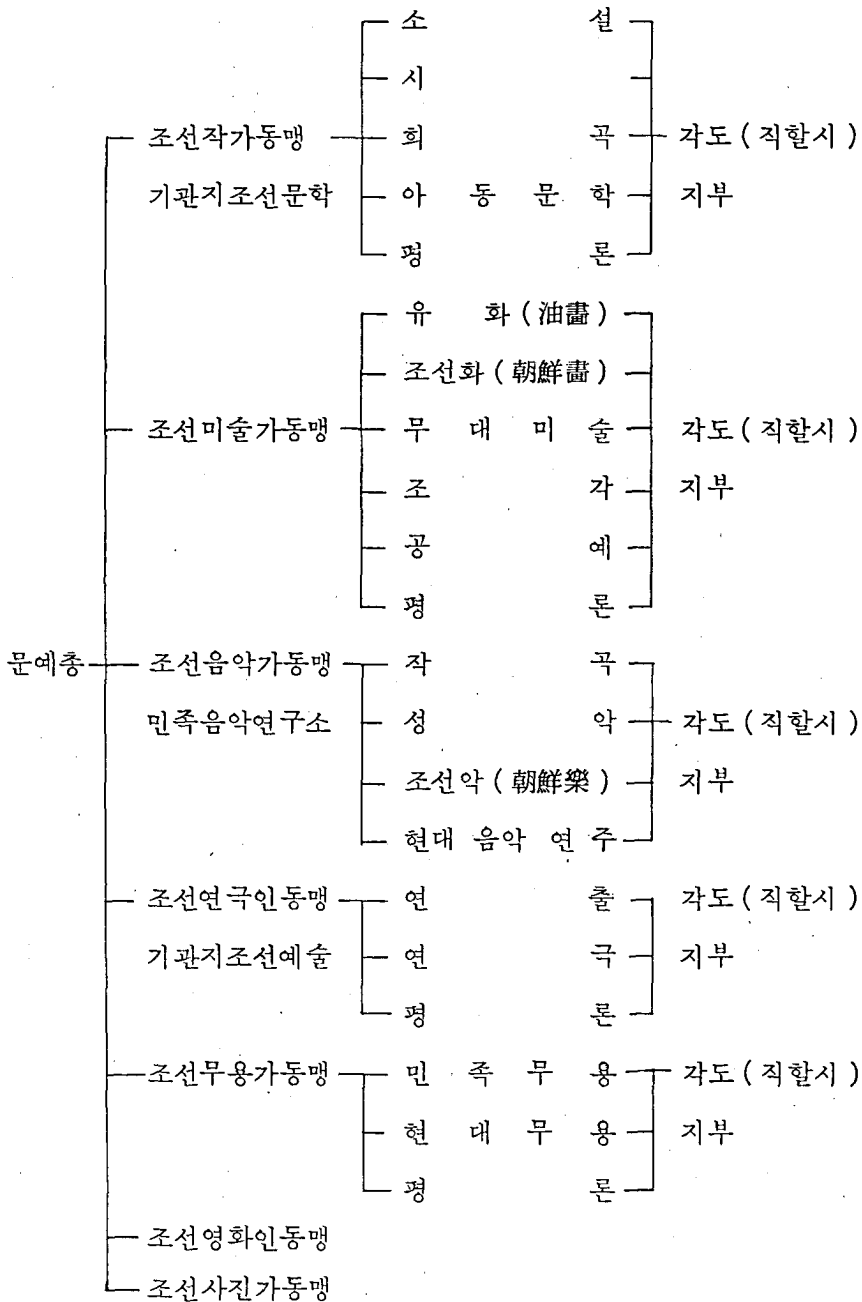
셋째, 모든 작가·문예인들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망라시켜 단체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창작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집단적 창작>을 의무화하고 복수의 인원에 의한 공동제작을 위주로 하며,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집단, 즉 당(黨)의 의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모든 정맹원(正盟員)들에게 주제별 작품제작 책임량이 정해져 있어 주제 선택권마저 없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문예활동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소위 <예술소조(藝術小組)>의 운영이다.

<예술소조>는 지역별·자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 생산직장별이나 부대별·학교별·기관별로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1977년 당시 북한 전지역에 무려 11만 2천개나 조직되었다고 한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문예총) 기구³⁸⁾ 분과위원회



주 38) 홍연숙, 《북한체제 및 사회예측 - 문화편》 - p.50.

예를 들면, 고전(古典) 평가에 있어서도 계급투쟁적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부전》을 착취계급과 인민과의 대립투쟁이라고 해석하여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홍길동전》을 봉건적 신분제도에 반대하는 농민의 봉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춘향전》의 경우에도 이도령의 존재를 무시하고 방자와 춘향모(母), 춘향의 순(順)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 소설이 마치 계급투쟁을 묘사하는 것처럼 각색하고 있다.

북한의 소설작품을 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저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개인의 이름이 소설의 표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문예총기구에서 나타난 분과 위원회나 지부의 명의로 출판되며, 이런 작품들을 통칭해서 <집체작>이라고 한다.

(3) 신문·잡지

북한 사람들은 어떠한 신문·잡지들을 보고 사는가?

필자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만 들어 본다.

신문 : 로동신문·민주조선

잡지 : 월간지 - 아동문학·청년문학·대학생·천리마·조선문학·조선예술.

계간지 - 문화어 학습.

영문잡지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Korean Youth and Students

- Foreign Trade

- The Korean Trade Unions

- Korea Today

- Women of Korea

아마도 북한 주민은 이런 간행물을 거의 못보고 사는지도 모른다. 특히 영어로 된 것은 대외홍보용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위에 나열한 것들은 우리만 보고, 또 북한 주민이 매일 보는 간행물은 우리가 접할 수 없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3. 문학의 장르

북한에 있어서 글짓기의 형태는 다음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³⁹⁾ 소설·희곡·서정시·동요와 동시·담시⁴⁰⁾·가사·동화·우화·수필·기행문·영화문학·노래이야기 대본·일기·편지·보고문·맹세문·축하문과 축전·선전글·웅변원고·감상문·수기·실화·정론·벽보글·벽소설·벽신문

이 중에서 남한 독자에게 생소한 것은 벽신문·벽소설이다.

벽소설이란⁴¹⁾ 원래 벽에 붙여서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읽게 하기 위하여 쓰는 소설인데 최근에는 벽소설이 신문·잡지를 비롯한 출판물들에도 널리 실리고 있다. 원고용지로 보통 20장 안팎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벽소설의 특징은 당면한 당정책 관철에서 나서는 긴요한 문제를 종자로 잡되 생산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주 39) 창작의 벗, p.1~2.

40) 譚詩 : ballade

41) 《문화어 학습》, 1981. 2 : 31 ~ 32.

하나의 인간성격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여야 한다. 간결해야 하므로 극적 갈등이 심화되는 대목부터 심리묘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당정책은 일반 대중의 표면적인 행동보다는 근본적인 의식구조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구에서 〈종자〉라는 말도 남한 사람의 귀에는 대단히 생소하다. 〈글의 주제·소재〉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만 북한 정책자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리론》이라는 책에 정의를 보면, 「종자리론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작품의 생명을 규정하는 사상적 알맹이로서의 종자를 핵으로 하는 문학예술작품창작의 합법칙적 과정을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리론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종자〉란 그 본래의 뜻 〈씨앗〉의 은유적 의미를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뜻도 되고, 또한 그 작은 알맹이가 씨처럼 나중에 나무와 잎사귀,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선동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⁴²⁾ 라는 글을 보면 북한에는 선동문이라는 것이 문학의 한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선동문이란 무엇인가? 다음의 인용문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옮겨본다.

진공적인 선동 공세를 들이대는 것은 온 나라를 사회주의 대건설의 양양된 분위기로 들끓게 하며 대중의 혁명적

주 42) 김영철, 《문화어 학습》, 1975. 2, p.21~22.

열의를 높이 불러 일으켜 생산과 건설에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창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선동사업의 이러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당 중앙은 사회주의 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선동사업, 특히 경제 선동을 힘있게 벌린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밝혀 주었다.

선동 사업을 실속있게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인 선동문을 잘 써야 한다.

그러면 선동문이란 어떤 글인가?

선동문은 짧은 시간 안에 격동적이며 호소적인 방법으로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나서는 당면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로 균중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기 위한 글이다. 강한 전투성과 높은 호소성·간결성과 통속성은 선동문의 중요한 특성으로 된다.

선동을 위한 글에는 선동문·선동 연설문·선동 격문과 같은 몇 개의 유형이 있다.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서 기동적인 정치 선동과 경제 선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선동문이다.

선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 임무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회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대담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데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전투적 무기로 되게 하는 데 있다.

다음에는 북한에 있어서의 서정시(抒情詩)에 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1979년에 북한에서 나온 《해방 후 서정시 선집》이란 시집을 보면 177편의 시가 실려 있다.

제목만 한눈에 보아도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시가 거의 전부임을 알 수 있다.

- 아버지 수령님께 드리는 헌시
-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
- 4월의 아침에 드리는 축원의 노래
- 만민의 태양
- 크나큰 사랑의 품
- 만수대 언덕
- 어디서나 보이는 집
-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 봉화리 박우물

제목이 약간 순수한 것 같아 그 시의 내용을 뒤져보면 그 속에는 반드시 〈수령님〉이란 말이 나오곤 한다. 177편의 시중에서 단지 마지막의 8편 가량만이 〈김일성 수령님〉이란 내용이 없다. 그 시들은 〈저주의 노래〉를 비롯하여 일제·미제국주의자들을 증오하는 내용이 담긴 분노의 시들이다.

북한에는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순수한 서정시는 없는 것일까? 한마디로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서정시가 있긴 있되, 그 용어의 뜻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의미하는 서정시는 <김일성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다.

4. 존대어와 호칭어

북한의 존대법 체계에⁴³⁾ 대하여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 존대의 -시-는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어 중심으로 문장이 전개되고 있어서 -시-의 출현이 상당히 자주 나타난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상대 존대는 소위 「웃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여 동지들과 친구들을 존중하면서도 다정하게 지내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생활 감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대 큰대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a)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위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높임법>이 사용된다.

-보다 남자에게 많이 쓰이고, 정중한 맛을 주는 어미: -버니다,

-버니까, -버시오 등.

-좀더 여자들에게 많이 쓰이고, 부드럽게 들리며 친근한 느낌을

주는 어미: -아요, -예요, -세요, -군요, -지요, -가요, -나

요, -자요, -라요 등.

주 43) 이현복, pp.12~13.

b)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서로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쓰는 〈갈음말〉은 다음과 같다.

- 공식적이고 존중하는 뜻빛깔을 가지는 어미 : 오, -소 등.

- 허물없이 친근한 느낌을 주는 어미 : -아, -지, -네, -군, -네, -군, -나, -가, -라구, 게, -세 등.

c) 말을 듣는 사람이 아랫사람이면서 보통 잘 아는 사이인 경우에 허물없이 쓸 때는 〈낮춤말〉을 사용한다. 여기에 속하는 어미들은 -다, -구나, -누나, -냐, -니, -자, -라, -렴, -마 등이 있다. 〈낮춤말〉의 어미들을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 올려다 쓸 때는 허물없고 친근한 느낌을 주어,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고 한다.

따라서 상대 존대법의 전통적인 제층인 〈존대〉, 〈하오〉, 〈하계〉, 〈해라〉, 〈반말〉의 다섯 제층은 부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존대법에 있어서 문장 성분 상호간의 호응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어와 술어, 규정하는 말과 규정받는 말, 보어와 술어, 부름말과 술어, 대답어와 술어 간의 호응이 잘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배우는 존대법 이외에도 《문화어 학습》 같은 잡지에 〈생활과 언어〉라는 칼럼을 두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보급시키고 있다.

〈례절 바른 말을 쓰는 것을 학교적인 사업으로〉⁴⁴⁾ 〈여성들

주 44) 주상경, 《문화어 학습》, 1975. 1, p.44.

의 레절 있고 검박한 말씨 >⁴⁵⁾ <전화는 겸손하고 정중하게 >⁴⁶⁾
등의 글을 보면, 학교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윗사람·동무·아랫사
람에 따라 알맞는 말을 벽신문에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
는 모양이다.

또 여성 말씨는 위의 글을 보면 소위 「불굴의 혁명투사 김정
숙⁴⁷⁾ 동지께서는 혁명적 원칙성과 여성다운 품성과 겸손성을 지닌
아름답고 훌륭한 여성 말씨의 본모기를 친히 보여주셨다」고 하
면서 그녀의 말씨를 그대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칭어에 대해서도 한 두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동지·동무·벗>의⁴⁸⁾ 차이점을 구별해 놓은 글을 보면, <동
지>는 일반적으로 윗사람에게 존경의 뜻을 가지고 쓰고, <동무>
는 같은 또래의 동료들 사이에서 쓰인다고 했다. 김일성은 <동
지>의 정의를,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
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동지라는 말은 혁명가들 사이에 불리우는
영예롭고 고귀한 칭호이며 혁명 전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시
입니다」라고⁴⁹⁾ 엄숙하게 내렸다.

<벗>이란 서로 사귀는 사람에 대하여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라
는 데서 <동무>와 같이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벗>은 <동

주 45) 박수영, 《문화어 학습》, 1476. 3, pp.41~42.

46) 리신혜, 《문화어 학습》, 1974. 4, pp.41.

47) 김일성의 첫부인이며, 김정일의 어머니

48) 방린봉, 《문화어 학습》, 1975. 1, p.28.

49) 김일성의 저작선집 제 6권, pp.408~409.

지 > 라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또 윗사람을 존경하여 부를 때에 <선생>이란⁵⁰⁾ 말을 쓴다. 특히 학자나 교원이나 의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를 때 흔히 쓰이게 된다.

젊은이가 노인과 담화할 때에는 <동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반말도 안 된다고 하였다. 노인들에게는 전통적인 호칭인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라고 부르거나, 요새는 노인들을 「겸손하면서도 친근하게 대하는 마음의 표시로서 <아바이>라는 부름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⁵¹⁾ 한다. 영화 같은 장면에서 흔히 <대장 아바이>·<반장 아바이>·<공산주의 아바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부인들은 <아주머니>라던가 <철이 어머니> 등으로 부르는 것이 좋고 윗사람이 나이 어린 여자를 부를 때는 <동무>보다는, 예를 들면 <판매원 처녀>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한다.

남한에서 요사이 젊은 부부나 연인들 사이에 <여보>나 <당신> 대신 <자기>란 말이 유행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궁금하다.

5. 隱 語

억압된 사회에서는 자연히 은어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특히 북

주 50) 방린봉, 「상대편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문화어 학습》, 1979. 4, pp.41~42.

51) 상계서.

한처럼 폐쇄적인 체제에서는 은어가 그만큼 더 다양하고 많이 만들어져서 음성적으로 유행하게 된다.

(1) 일상생활의 은어

그러면 북한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대표적인 은어는 어떤 것인가 보자.

가락국수 : <칼 마르크스주의>를 비꼬는 말. 아침 저녁으로 감행되는 공산주의 교양 때마다 교양을 담당한 당간부가 가락국수 뽑듯 <칼 마르크스주의>를 부르짖는 데서 생겨난 말. 주로 농촌에서 유행되고 있다.

까마귀가 울어 : 우리 나라에서 옛날부터 까마귀가 울면 죽음이나 그밖의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풍습이 전해 내려온다. 그래서 인민재판이나 군중재판으로 무고한 주민이 총살되는 등 피비린내나는 인간도살 참극이 계속되자 인민재판이나 군중재판이 있을 날이면 서로 <까마귀가 울어>하고 소식을 알린다.

까투리 새끼들 : 북괴 노동당의 정치선전과 괴수 김일성을 추켜 세우기에 앞장선 이른바 당 정치 일군이 주둥이만 까졌다고 붙여진 이름. 괴뢰군에서 특히 유행되고 있다.

감박이는 촛불 : 당증 없이 사는 비당원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 폭풍 앞에 감박이는 촛불처럼 언제 강제이주·강제노동소행 등 숙청의 회오리바람에 휘말릴지 모르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주민(비당원)들의 표현.

개똥모자 : 레닌 帽를 비꼬는 말. 예 : 「저기 개똥모자 보인다」고 하면 레닌 모를 쓴 공산당 간부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견본상품 : 이른바 영예 칭호를 받은 노력 혁신자를 비꼬는 말.

예 : 「그래 봤자 견본상품 주제에.」

고급과자 : 옥수수 아니면 깡수수나 깡조로 끼니를 잇는 북한 주민은 누룽지를 일컬어 고급과자라고 한다.

고급 세미나르 : 음담패설을 일컫는 말. 주로 인텔리층이 모이는 술자리에서 많이 쓰인다.

고루고루 메달 : 소위 조국 해방전쟁 (:6.25 도발)에 참가한 피뢰군에게 준 이른바 <공로메달>을 비꼬는 말.

공작 : 공군내에서 쓰이는 말로 흠치는 것. 예 : 「다른 중대에 가서 공작을 해다가 충당시키라우.」

공 타하 동무 : <공산당을 타도하자>는 뜻의 말로 공산당의 共, 타도의 打, 하자의 하 등 낱말 머리 글자를 모아서 쓰이는 말. 예 : 「저 동무도 겉으로 저렇게 설치지만 사실은 공 타하 동무와 가깝다고 ...」 즉, 저 친구도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뜻.

교육대 : 피뢰군내의 영창을 일컫는 별칭.

꿈만 같아 : 처음으로 재일교포가 북송되어 왔을 때 교포들의 사치스러운 차림새와 자유로운 생활양식을 보고 공산 독재에 짓눌리어 헐벗고 굶주려 온 자신들의 처지를 비교해서 북한 주민들이 한탄삼아 입에 올려 유행되었던 말.

꿈은 깨어지고 :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괴나 조총련이 선전하던 이른바 지상낙원의 꿈이 깨어졌다는 뜻으로 북송 교포 사이에 유행했던 말. 예 : 「꿈은 깨어지고 별 수 있나,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귀족학교 : 평양 만경대에 있는 소위 <혁명 유자녀 학원>을 비꼬는 별칭.

기술적으로 하라 : 처녀들과의 교제나 연애는 남몰래 하되 애인의 임신을 피하라는 뜻. 대학생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오고가는 은어.

김마두 동무 : <김일성>은 마적단 두목이라는 뜻으로 김일성의 김, 마적단의 마, 두목의 두 등 각 낱말의 머리 글자만 모아서 만든 은어. 한때 북한에는 「김일성은 마적단 두목이다」라는 글이 적힌 삐라나 낙서가 발견되었는데 그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다. 누구의 창작인지는 아직 모른다. 예 : 「김마두 동무 왔는데 만나 봤어?」

金人白동무 : <김일성은 인간 백정이다>라는 글의 김일성의 김, 인간의 인, 백정의 백 등 세 글자를 모아 만들어진 은어. 이 글은 1960년초에 원산농업대학 변소에 낙서로 발견되었는데 그후 문제화 되어 학생들의 은어로 만들어져 북한 전지역에 퍼졌다.

냄새배급 : 공산 특권층의 결혼식 피로연을 비꼬는 말. 일반주민의 결혼식은 온갖 제지를 가하면서 특권층은 호화스러운 결혼식에 피로연까지 진수성찬으로 하고 있어 일반주민은 그 냄새나 말아야 한다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

눈치밥 : 괴뢰군 사병들의 군대밥. 예 : 「이래 봐도 눈치밥 5년은 먹었어.」

늑대 : 당 비서를 빈정대는 말. 주로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예 : 「늑대가 왜 너를 찾지?」

따지기 : 신분의 成分調書의 별칭. 예 : 「그놈의 따지기 때문에 신세 망쳤어.」

도깨비 軍官 : 성분이 좋대서 일년에도 몇 계급씩 뛰어 오르는 도깨비 인사로 진급된 정치군관을 빗대는 말.

또 벌잠이야 : 농촌에서 강요하는 영화관을 빗댄 은어. 북괴가 이동영사대를 농촌으로 파견하여 그것도 온종일 강제노동에 지친 농민들이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 야외상영하는 영화를 보라고 동원하고 있어 영화구경은 커녕 벌판에서 잠을 자게 됨으로써 생긴 말. 예 : ①「첿! 오늘밤 벌잠 자러 오래」 ②「오늘 밤 또 벌잠이야...」

도살장 : 소위 반동분자 수용소를 일컫는 말. 양강도·자강도 일대에 있는 반동분자 수용소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 살아오지 못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독거미 : 당의 비밀 정보원·사복 안전원, 또는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엮어 놓은 그밖의 감시망을 일컫는 말. 예 : 「독거미 조심하라우!」

豚水大根湯 : 고기는 한점 없이 돼지국물에 무우를 띄운 국을 빗대는 대학 기숙사, 또는 괴뢰군내의 은어이다.

미친 싸바카 : <싸바카>란 개라는 러시아어인데 미친개 즉, 김일성을 빗대어 하는 말. 예 : 「미친 싸바카는 잡아야 돼.」

번덕번덕 유물론 : 그 내용과 실제와는 달리 말로만 그럴싸 하게 광을 내며 걸핏하면 내놓는 공산당의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을 비꼬는 말.

빼다구 동무 : 평안북도 선천군 일대에서 퍼지기 시작하여 의주·용천·정주 그리고 평양에서까지 유행되었던 노래의 한 귀절, 북한지하의 소년단의 노래를 일명 <빼오네르가>라고도 한다. 북한지

역에선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가사를 바꾸어 은밀히 유행된 것이다. 본래의 가사 : 어깨동무 새동무 힘차게 가자 / 우리들은 나아린 삐오네르다 / 원수님의 은혜로 자라는 우리 / 사회주의 조국의 꽃봉오리들 (삐오네르는 소년단을 뜻하는 러시아어). 바뀌어진 가사 : 어깨동무 새동무 뼈다구동무 / 우리들은 나아린 불쌍한 동무 / 우물쭈물하다가 불타 죽는다 / 골목골목 모여서 피난갑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북괴는 가사를 바꾼 노래가 시작된 평북 선천 일대의 각 학교에 안전원을 풀어 그 작사자를 찾아내려고 발악을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한다.

보약 : 박수를 비꼬는 말. 북괴치하에서 출세를 하려거나 혹은 북괴 집단의 미움을 안사고 목숨을 부지하려면 보약을 먹듯 박수를 열심히 쳐야 한다 하여 만들어진 말. 만약 박수를 치지 않았다가는 반동분자, 또는 불평불만분자로 몰리게 되므로 보약을 먹고 몸보신을 하듯 박수 역시 몸보신이 된다는 데서 발상된 은어.

빈 달구지 : ① 말만 앞세우고 실속이 없는 사람 ② 크게 소문을 냈으나 실속이 없을 때 ③ 실천이 안 되는 달콤한 선전 등을 비꼴 때 쓰는 말. 예 : 「체! 7개년 계획이 달성되면 잇밥에 고기국 먹게 된다고 귀아프게 떠들어 대더니 또 빈 달구지야?」

나대양성소 : 북괴치하의 학교를 빈정대는 말. 즉 북한의 교육은 ① 김일성 도당에게 충성을 다하는 노동도구를 연마하는 용광로 ② 어떤 고역도 참고 견디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노동 수용소 ③ 청소년들을 김일성밖에 모르는 무지몽매한 기형아로 만드는 작업장 ④ 남한침략의 대포밥을 만드는 연마장이라고 하여 생겨난 은어이다.

사람잡이 : 안전원을 일컫는 은어. 사람의 목숨을 마치 파리의 목
숨과 같이 함부로 죽이는 그 임무를 빗대어 발상된 것.

살랭이 : 안전원을 말한다.

3 계단 : 북한 주민의 사상을 33종으로 분류해 놓은 성분 분석표
를 빗대는 말. 예 : 「 33 계단이 까맣게 보이누만 」

쌍발이기 : 머리칼을 두 가닥으로 잘라서 단 처녀를 말한다.

새쓰게 : 미치광이를 빗댄 은어. 괴수 김일성이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다.

수령은 짧고 인민은 영원해 : 북괴치하의 대학사회에서 쓰이는 은어
로 괴수 김일성이를 저주하는 소리.

시집살이 : 남한출신 공산주의자들이 북괴집단의 팔시를 받아야 하는
자신들의 신세를 표현한 은어. 시집살이란 1956년 남로당이 서리
를 맞고 쭈발이 되면서부터 북괴치하를 시집으로 비유한 것이다.

신선주 : 인삼주의 별칭. 값이 비쌀 뿐 아니라 일반주민은 맛도 볼
수 없다 하여 붙여진 이름.

야마 : 극도의 식량난으로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던 지방의 공무원
들이 평양에 출장갔을 때 여관에서도 밥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빵 파는 집에 가서 또 빵을 사먹는다. 이것을 〈이중식사〉라고
하는데 동료끼리는 배가 산처럼 불룩나온다 하여 山의 일본 발
음을 따서 〈야마하러 가자〉고 하며 이 〈이중식사〉의 반복감
을 맛보게 되어 그후 유행되었다.

양다리 동무 : 중·소분쟁이 격화되었을 때 김일성이가 이쪽에 붙었
다 저쪽에 붙었다 하며 당황하는 꼴을 보고 괴수 김일성이를 빗
정대던 별칭.

언어에 문화성 : 상대방이 추잡스럽게 상말을 할 때 좀 점잖은 말을 하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 문화성은 지난날의 북괴내각의 한 켤이였다. 예 : ①「동무는 언어에 문화성이 없구만」, ②「동무! 언어에 문화성을 좀 놓으시오.」

언어말이 : 원래 뜻은 냉면의 곱배기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지조 없이 매춘부처럼 놀아나는 여자를 비꼬는 말로 쓰인다.

오락행위 : 야밤중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정사를 일컫는 은어. 예 : 「오락행위로 걸렸대...」

용광로 : 골수당원만을 입학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공산대학을 빗대는 말.

원산말뚝 : 원산지방에서 많이 나는 명태·복어 등을 일컫는 말.

1호대상자 : 피수 김일성을 규탄하는 은어. 피수 김일성이야말로 맨 먼저 숙청해야 할 대상자라는 뜻이다.

임그리워 : 자유대만을 그리는 북한 동포들의 애절한 속삭임. 예 : 「그리운 임(자유대만)을 만나야 살지.」

쟁이 : 폐결핵 환자에 대한 별칭.

주제비 : 북괴치하의 불량아가 사용하는 은어로서 안전원에 대한 별칭.

죽음의 대기소 : 양로원의 별칭.

지주 : 임신한 여자를 풍자한 말. 지주처럼 배가 부르다는 데서 생긴 말.

콩사탕 : <공산당>이란 말의 발음을 변형시켜 만들어낸 말. 예 : 「그 놈의 콩사탕 때문에 입맛 버렸어.」(즉, 공산당 때문에 일생을 잡쳤다는 뜻).

크라이막쓰 : “칼 마르크스”를 변형시킨 은어. 예 : 「또 크라이막쓰

로군.」

표딱지 : 영웅칭호와 훈장을 비꼬는 말. 예 : 「아새끼 표딱지 하나 가지고 으시대네.」

푸주간 : 북괴 노동당의 각 기관을 비꼬는 말. 피비린내 나는 살인 행위를 밥먹듯 일삼는 데서 생긴 격노의 은어.

하모니카 아파트 : 한 칸에 한 집씩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아파트로 창문이 나있는 뒤에서 보면 흡사 하모니카 구멍 같다고 하여 이같은 이름이 붙어졌다.

해방처녀 : 결혼 전에 아이를 낳은 미혼모나 결혼 전에 남녀관계가 있는 처녀를 풍자하는 말.

헛다리 간부 : 진짜 간부는 피수 김일성 뿐이고 나머지 다른 당간부는 모두 헛다리라는 뜻에서 생긴 말.

홀라리 천 : 강냉이 (옥수수) 잎으로 만든 옷감. 바지를 해 입으면 천이 나빠 홀렁거리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2) 김일성에 대한 은어와 존칭어

김일성에 대한 은어가 어느 분야의 은어보다 더 많다. 한편 그를 존칭하여 그의 이름 앞뒤에 흔히 붙이는 수식어도 모아 보았다.

① 은어⁵²⁾

1. 가축돈사 (그의 집을 돼지우리에 비하여 말함)

주 52) 《북한용어대백과》(서울:국민방첩연구소, 흑백문화사, 1976)에서 추렸음.

2. 김마두동무 (마두 : 마적두목)
3. 김인백 동무 (인백 : 인간백정)
4. 김피내 동무 (피내 : 피비린내)
5. 대지주 (북한토지를 깡그리 차지하고 있는 독재자 김일성)
6. 미친 싸바카 (싸바카 : 소련어로 <개>)
7. 번지없는 주막 (김일성 집은 번지가 없다)
8. 사기일군 (사기꾼)
9. 산돼지
10. 새쓰개 (미치광이의 뜻)
11. 「수령은 짧고 인민은 영원해.」
12. 약방에 감초 (어디에서나 인용되는 김일성 교시를 두고 말함)
13. 양다리 동무 (중·소분쟁시 김일성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꼴)
14. 왔다갔다 동무 (중·소분쟁시 김일성의 당황하는 꼴)
15. 1호대상자 (1호 숙청대상자)
16. 콩떡장군 (해방 이듬해 춘궁기에 콩떡을 먹는 것은 김일성 탓이라고 저주하며 부른 칭호)

② 존칭어와 수식어⁵³⁾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93번
2. 「아버이 수령님」 혹은 「아버지 수령님」- 16번

주 53) 《로동신문》, 1976. 8.15, 1~3면, 조사한 통계 회수는 사용빈도.

3. 「경애하는 수령님」- 12 번
4. 「현명한 영도자」- 9 번
5. 「백전백승의 혁명적 당을 영도하는 강철의 령장」- 5 번
6. 「영생불멸의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든 김일성」- 3 번
7. 「건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3 번
8. 「천후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 1 번
9. 「탁월한 영도자」- 2 번
10. 「위대한 사상 이론가」- 1 번
11. 「해와 달이 다하도록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자」- 1 번
12. 「민족의 태양」- 4 번
13. 「불세출」- (여기서 쓰이지는 않았으나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는 유일한 인물이란 표현으로 가끔 북한간행물에서 볼 수 있다.)

6. 속 담

다음 속담들은 「혁명소설에서 나오는 새로운 성구속담」이라고⁵⁴⁾ 하였으나 「젊어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라던가, 「중이 고기 맛을 들이면 부처님 계륵도 안중에 없다」 등은 우리가 흔히 듣는 것들이다.

주 54) 리기원, 「새로운 성구속담」《문화어 학습》, 1979. 2, p.22.

속담이나 민속도 북한에서는 그들의 현재 체재에 맞게 뜯어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은 대표적인 속담의 예로 몇 개만 나열해 본다(실감나게 하기 위해 북한문헌에 인쇄된 그대로 옮긴다).

생감등때기 같다 : 몹시 뻔뻔스럽고 럽치없음을 생감의 껍질에 비겨 이르는 말 (혁명소설 《불멸의 력사(고난의 행군)》, 40 ~ 50 페이지 참고).

자는 범 코구멍 쭈시는 격 >, <자는 범의 코침주기>와 같은 속담으로서 <공연히 건들여 큰 불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에 비겨 쓰인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1부 124 페이지 참고).

젊어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산다 : <젊어서 고생은 은을 주고도 못산다>는 같은 뜻의 속담도 있다. 젊어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사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 것은 장래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 213 페이지 참고).

젊어서 소타보지 않은 령감 없다 : 흔히 젊은 시절 힘꼴이나 썼다는 령감들은 자기 힘을 자랑할 때 어떤 씨름판에서 소를 상으로 땀다고 우쭐렁대기를 잘한다는 데서 나온 말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111 페이지 참고).

정어리 굽는 냄새에 나가던 머느리가 돌아선다 : 정어리가 아주 맛이 있고 그 굽는 냄새가 썩 좋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 216 페이지 참고).

중 고기맛 보듯 : 고기를 못 먹게 되어 있는 중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맛을 들이자 마는 수밖에 없다는 데서 무엇을 시작하

여 재미를 볼까하다가 말게 되는 경우에 비겨 쓰인다 (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 202 페이지 참고).

중이 고기맛 (을) 들이면 부처님 계륵도 안중에 없다 : 나쁜 일에 일단 발을 들여놓고 재미를 붙이게 되면 법도 규률도 아랑곳하지 않고 덤벼치게 된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계륵>이란 불교에서 쓰던 말로서 엄격히 규정된 중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규칙을 말한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1부, 35 페이지 참고).

팔자도망은 못한다 : 숙명론적 관념에서 팔자라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장편소설 《피바다》, 291 페이지 참고).

하늘천 하면 가물현 한다 : 천자문의 차례가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 으로 되어 있는 데서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고 능숙하게 처리해감을 비겨 이르는 말 (혁명소설) 《불명의 력사(1932년)》, 685 페이지 참고).

떼가 사촌보다 낫다 : 지긋게 달라붙어 떼를 쓰고 사정을 하면 인정에 못이겨 요구를 들어주기 일쑤라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371 페이지 참고).

입안의 혀바닥 같다 :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모양을 비겨이르는 말 (장편소설 《피바다》, 479 페이지 참고).

입에 들어가는 밥술도 제가 떠 넣어야 한다 :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제힘을 들여 노력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권리도 바로 행사할 수 없음을 비겨이르는 말 (전기소설 《조선의 어머니》, 43 페이지 참고).

7. 외국어

북한에서 외국어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소련어 교육을 말해 왔다. 1964년부터 외국어 교육을 개선·강화하면서부터 소련어는 대학 1, 2학년 과정에서 소련어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는 3, 4학년에서 영어·불어·독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아랍어 중에서 과외로 한 가지를 더 선택하게 하였다. 1964년에 <외국어 대학>이⁵⁵⁾ 신설되었고, 1967년부터는 중학교 1년(국민학교가 4년제니까 남한의 5학년에 해당)때부터 소련어를 시작한다. 1970년부터는 한문도 포함하여 외국어대학에서는 20여개의 외국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한문도 1시간·영어도 1시간씩 가르치고, 주당 3시간 하던 소련어는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⁵⁶⁾

「회화를 기본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방법」이란⁵⁷⁾ 글은 북한에서도 회화중심의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 주고 있다. 위 글에서 저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외국어교육에서 외국어를 문법으로부터가 아니라 회화로부터 배우며 학교에서도 단어로부터 시작하여 회화를 기본으로 하여 외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탁월한 사상을 밝혀주시었다. 처음부터 힘든 문법을 배워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단어로부터 시작하여 일반회화를 본위로 교육을 줄 때 대

주 55) 최광석 「북한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육」 아세아 연구, 1970. 3월호, p.219, 서울.

56) Kim. Chin-W. p.17.

57) 박제일, 《문화어학습》, 1980. 4. pp.39~40.

하여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외국어교육의 근본원리와
근본방법을 규정해 주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즉, 회화가 문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요지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는 처음에
입말로 생겨났고, 글말은 나중에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
고 어휘가 언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휘교육을 결정적으로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Ⅵ. 맺 음 말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한자폐지를 하고 완전히 한글전용을 한다든가 <혁명적 문풍>을 따라 배운다고 하여 사실상 말과 글에 있어서 남한보다 훨씬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말(言語)이란 사상을 담은 그릇으로서 모든 인간의 생활을 하는 데 수단이 되므로 인간의 정신면을 좌우하는 이념이 다르고 생활양상이 다를 때 그 의식구조가 달라지고 따라서 그 사회에서 형성되는 가치관이 달라진다.

특히 북한 같은 정치와 문화-즉 언어가 밀착된 사회에선 그 언어와 언어생활에 정치적 색채가 더욱 강하게 침투되게 되어 있고, 사실상 그런 점을 우리가 위에서(제2장·제3장·제5장) 자세하게 목격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단 정치적으로 결정만 되면 북한 체제에서는 모든 변화가 가속화될 사회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언어 변화도 마찬가지다. 독재 체제이므로 일사불란하게 언어정책이 실천될 것이고, 말다듬기·문화언어운동으로 한자어는 더욱더 줄어들고, 고유어 방언이 소위 <문화어>로 되는 등, 보수적인 변화상태를 보이는 남한 말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나 문헌을 읽을 때에⁵⁹⁾ 의사소통이나 이해에 큰 지장은 없다. 동일 민족성을 회복하는 첩경은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

주 59) 김종선, 《문화어학습》, 1980. 3, p.6.

는다. 어떤 정치학자나 군사 전문가들은 「언어 차이는 없다.」 「상호이해에 지장없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글에서와 같이 많은 차이가 생겼으며, 지금 차이가 적을 때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믿는다. 어떻게 하여서든지 급변하는 북한의 언어변화 방향의 고삐를 하루 속히 틀어 쥐어야 하며 그래야만 장차 큰 격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남북이 접촉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교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북 양측이 다 글자개혁에 대해서 따로따로 연구해 두었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잡지에 종종 실리는 것을 보면 그들도 남북 공동연구에 관심이 있는 듯하다.

「우리 말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뜨거운 열망」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발전시키자」⁶⁰⁾의 요점을 보면, 그들은 우선 남한 말을 <잡탕말>⁶¹⁾이라고 비난해 놓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보호 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주 60) 류렬, 《문화어학습》, 1981. 1, p.6.

61) 잡탕말: 남한 말이 한자어·영어·일어가 많이 섞여 있다고 하여 북한에서 비난하는 말.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제 9 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79 페이지).

우리 말과 글의 민족적 공통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는 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 민족어가 처한 복잡한 사회력사적 요인과 엄중한 언어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적당한 방침이다. 언어의 전민족 공통성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언어가 민족어로서 존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되며 이것은 나아가서 민족자체의 존망문제와 관련되는 심각한 민족적 문제로 된다.

언어규범에서의 차이를 시급히 극복하고 통일적인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하루 빨리 진행하여야 한다.

발음과 맞춤법·띄어쓰기 등 규범의 통일과 개선문제를 해결하며, 학술용어를 비롯한 용어의 통일·민족어의 순결성과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휘정리와 말다듬기·한자폐지 문제를 풀며 통일적인 조선말사전의 편찬과 문법책의 편찬, 나아가서는 민족글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중대하고도 시급한 문제들을 다같이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말의 귀중한 방언자료와 고장이름(지명)을 전면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묻혀 있는 민족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 발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또 「글자개혁에서 나서는 글자수 문제에 대하여도」⁶²⁾ 참고할

주 62) 권종성, 《문화어학습》, 1979. 3, pp.45~46.

필요가 있다. 그 글의 요지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글자수는 우리말 소리를 가장 합리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

둘째, 글자수는 기계화하는 데 합리적이 되도록 해야한다. 20~40자가 적당한 수이다.

셋째, 글자 모양을 좋도록 정해야 한다. 가로풀어쓰기가 바람직하다.」

물론 남한측에서 공동연구나 문화자료교류 등을 촉구하는 글이나 제안은 수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북한측은 문화문제보다 정치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남북대화는 막히곤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목격한다. 남한에선 정치문제와 문화문제가 뚜렷이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분야이지만, 북한에선 문화가 정치에 예속된 <시녀>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문화>란 곧 <정치> 문제인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북한 문헌

< 김일성의 담화 >

1.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1964. 1. 3.
2.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 데 대하여」, 1966. 5.14.

< 사 전 >

3. 《문학예술 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2.
4. 《방언사전》(김병제 저),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0.
5. 《조선말 사전》(전 6권),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1.
6.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7. 《현대 조선말사전》, 동경: 학우서방, 1969.

< 정기 간행물 >

8. 《문화어학습》,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계간지), 1974~1976, 1979~1981, No.2.
9. 《어문연구》, 「우리말 학술용어를 주체적으로 다듬기 위한 몇 가지 문제」, 김수경,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7, No.2.
10. 《조선어학》, 「빼버려야 할 한자어들」, 박의성, 평양: 사회과학원, 1964, No.3.
11. 《일반책 단어만들기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4.1.
12.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이론(김하명),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7.

13. 《조선말 규범집》, 평양 : 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 1966.
14. 《조선문화어문법》,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15. 《조선어력사문법》 (홍기문저), 평양 : 사회과학원, 1966.
16. 《조선어문법》, 동경 : 학우서방, 1968.
17. 《조선어문체론 연구》 (박용순저),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18. 《조선어 방언학개요》 (김병제 저), 평양 : 사회과학원, (상권) 1958, (중권) 1965, (하권) 1975.
19. 《조선어 어휘론 연구》 (최완호),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20. 《조선어 철자법》, 평양 : 사회과학원, 1954.
21. 《주체사상에 기초한 언어 이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22. (조선로동당 창건 30돌 기념), 《창작의 벗》, 평양 : 사로청출판사, 1974.
23. 《해방 후 서정시 선집》, 평양 : 문예출판사, 1979.

남한 문헌

1.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말다듬기」 자료집》, 서울, 1973. 9.
2. 김창순편저, 《북한문화론》, 서울 : 북한연구소, 1978.
3. 동아일보, 1972. 8.12, 서울, 「제롬, A. 코언 (Cohen) 의 북한방문기」.
4. 이현복 《남북한언어의 음성학 및 언어학적 비교연구》 (국통조 77-9-1166), 서울 : 국토통일원, 1977.
5. 이희영, 《북한언어정책의 특징과 실태》 (대남 언어 전략을 중

- 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74. 7.
6. 중앙정보부, 《북한언어정책 자료집》, 서울: 중앙정보부, 1973. 7.
9.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 현황 비교》,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1977.12.
10. 한글학회 《한글학회 50년사》, 서울: 선일인쇄사, 1971.
11. 한글학회 《한글학회 60돌 기념논문집》, 서울: 남영문화사, 1981.12. 3.
12. 허 응, 《남북한의 언어와 언어정책》, 한글 새소식, 서울: 한글학회, 1974. 2. 5.
13. 허 응, 《우리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 서울: 과학사, 1974.
14. 홍연숙, 《남북한 언어 개념의 이질화 연구》(국통조 77-1-1114), 서울: 국토통일원, 1977.
15. 홍연숙, 《남북한의 언어장벽》(경향신문 연재칼럼), 서울: 1971.11~12.
16. 홍연숙, 《북한체제 및 사회예측》(국통조 78-11-1442) - 문화편 -, 서울, 국토통일원, 1978.

<영 문>

17. Han, Young-Hie(한영희), "Language Policies and their Effects in South and North Korea", Paper [Manuscript], Seoul: Dankook University, 1980.
18. Kim Chin-W. (김진우), "Linguistics and Language Policies in North Korea", Paper presented at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at the Univ. of Hawaii, Honolulu, 1977.

19. Sasse, Verner, "Dialect Studies in North Korea", 《제 1 회 한국
학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923~931.



南北韓語 語彙에 對한 形態論的 · 意味論的 比較研究

研究責任者 全 在 昊
(慶 北 大 教 授)

洪 思 滿
(慶 北 大 教 授)



目 次

I. 序 言	177
II. 語彙 形態의 相異性 對比	181
1. 固有語化된 語彙	181
2. 位相의 差異로 特殊化된 語彙	192
가. 政治·經濟·社會的 位相	192
나. 地域的(方言差) 位相	194
다. 言語狀況的 位相	198
3. 文法的 差異로 異質化된 語彙	202
가. 派生法·合成法	203
나. 被動法·使動法	211
4. 音韻的 差異로 異質化된 語彙	212
III. 語彙 意味의 相異性 對比	217
1. 縮少(narrowing), 特殊化(specialization)	218
가. 金日成 偶像化에 따른 特殊化	219
나. 革命·建設事業에 關聯된 特殊化	221
다. 政治宣傳 및 資本主義의 비난을 위한 特殊化	229
2. 擴大(widening), 一般化(generalization)	234
3. 提喻(synecdoche)	235
4. 格上·上昇化	236
5. 格下·墮落化	238
6. 隱喻(metaphor)·象徵化(symbolization)	248

7. 退化·轉訛 (corruption)	252
IV. 異質化의 樣態 및 原因分析	254
V. 言語統一의 展望과 그 對策	263
VI. 結 言	267
參 考 文 獻	270

I. 序 言

言語는 생명있는 有機體이며, 言語社會와 긴밀한 函數關係를 맺고 끊임없이 進化한다. 言語는 人爲的이든 自然的이든 社會構造의 力學的 作用을 받으면서 新生, 成長 또는 死滅한다. 言語의 變化는 通時的인 時間性を 前提하고 있는 歷史的 產物이다.

그러므로 어느 社會集團의 言語變遷相을 충실히 記述한다는 것은 그 社會構造의 全面을 把握하는 結果가 된다.

本稿는 分斷 35年이 가져다 준 南北言語의 異質性에 대한 研究로서, 특히 語彙語形(form)과 意味(meaning)의 異質化 樣態와 그 程度를 分析·考察하고, 原因分析을 통해 尙차 言語統一의 展望과 對策을 摸索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念願인 南北統一의 길을 追求하고자 함에 目標를 두고 있다.

실제로 35년이란 言語隔離의 期間은 通時的인 歷史性에 의해 自然스런 言語의 變化를 誘發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期間이나, 이 짧은 期間에 同一言語가 것처럼 많은 異質化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필시 北韓의 人爲적이고 強制的인 異質化 政策이 수반되었음을 豫想케 한다.

우선, 南北間의 言語觀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엄청난 觀點差가 있다.

北韓의 言語觀을 要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
- ② 나라의 科學과 技術을 發展시키는 힘있는 무기
- ③ 文化의 民族的 형식을 特徵짓는 중요한 표징

④ 사람들이 社會를 이루고 活動하면서 사상·감정을 나타내며 서로의 뜻을 전달·이해하는데 쓰이는 중요한 수단·매개

⑤ 人民의 革命과 建設을 위한 鬪爭의 무기

위의 規定中 ⑤는 言語의 본질적인 특성이 배제되고, 言語外的 요소인 政治나 鬪爭의 도구로 전락된 것이다.

이에 비해 南韓에서의 言語定義는 간결하면서도 言語自體의 本質的인 特性만을 提示하고 있다.

‘言語란 사람의 思想·感情을 나타내는 音聲的 符號이다.’

參考로 美國의 言語學者인 Sturtevant의 一般 言語學的 言語定義를 덧붙여 보면, 역시 言語本質的인 特性和 機能, 특히 社會性만이 言及되었을 뿐이다.

‘A language is a system of arbitrary vocal symbols, by which members of a social group cooperate and interact.’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Science (1947) p.2

뿐만 아니라, 北韓이 言語를 政治的 유희물로 利用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北韓에서 맹렬히 推進되고 있는 文化語 政策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이 論及하고 있는 文化語의 性格을 뽑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노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는 言語
- ② 전체 인민이 規範으로 풍부하게 발전한 民族語
- ③ 革命的으로 세련되고 文化的으로 다듬어진 言語
- ④ 당과 수령동지의 주체적 言語思想을 구현한 言語
- ⑤ 革命의 붉은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양말
- ⑥ 가장 발달한 아름다운 言語

위에서 ②③④⑥은 소위 標準語의 規定과는 전혀 무관한 項目들이며, 言語를 革命과 階級鬭爭에 관련시키고 김일성 개인 偶像화 의 方面으로 삼고 있는 ③④는 北韓言語가 政治宣傳의 道具로 轉落되고 있다는 事實을 확연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北韓의 言語研究가 주로 反論的(anti-theoretical)이며, 民族主義的 분위기(nationalistic mood)를 자아내는 것에 局限된다고 한 W. Sasse의 指摘과도 相通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北韓言語學者들의 言語研究는 주로 文法標準化, 同音語問題, 表記法, 方言問題, 漢字語, 外來語 廢止, 新造語 등이 中心課題였다.

北韓의 定期刊行物의 內容으로부터 抽出해 낸 Sasse의 要旨를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 theoretical papers as to the basic nature of language.
- papers to standardize grammar.
- papers on how to standardize the vocabulary by discussing homonyms and near-homonyms, finding the right word for a given referent, a.s.o
- papers on problems of the write convention.
- appeals to collect dialect words and reprinting of lists of such with the aim of finding word stem for new words.
- discussing problems raised by the aboli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writing.
- question-and-answer section.
- lists of newly coined words and phrase (and subsequnt discussions of some items in the lists)

- papers on the abolition of loan words and related problems.
- papers on methods of inventing new words.

言語의 正常的인 變化는 成長과 發展을 의미한다. 그러나 南北韓語의 異質化는 北韓의 人工的인 劃策에 緣由된 것이므로 결코 成長이라 할 수 없다. 더우기 말로는 言語統一 운운하면서도 실제로 異質化를 深化시키는 그들은 마치 韓半島의 平和統一을 외치면서 내면으로는 南韓의 瓦解·分裂을 策動하는 수법과도 흡사하다.

國土가 民族의 有形한 몸집이라면, 言語는 民族의 無形한 몸집이다. 民族統一과 國土統一은 言語統一과도 불가분의 단계에 놓여 있다는 事實을 北韓은 自覺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 筆者는 종래 論究된 語形의 異質性보다는 意味의 異質性을 중점적으로 考察하려고 한다. 이는 言語에 있어서 形式인 語形보다는 內容인 意味가 重視되어야 하며, 意味는 言衆의 心理속에 면면히 스며있는 抽象的 要素이며, 言語統一의 問題에 있어서도 語形보다는 더 難題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語彙形態의 相異性 對比

1. 固有語化된 語彙

1964 년과 1966 년의 두 차례에 걸친 金日成 敎示를 통해 전개되어 온 北韓의 이른바 「語學革命」은 주로 語彙의 醇化作業에 국한된 言語政策이었다. 이러한 政策은 현재에까지 推進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外來語 및 漢字語를 불식하고 民族의 固有한 語彙를 되살려 보자는 主體意識에 結付된 것이었다. 이는 최근의 金日成 敎示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말의 주체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힘든 한자말과 외래어를 없애고, 고유한 우리말을 적극 살려 쓰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의 하나의 革命的인 변혁과정으로 보고, 그것을 語學革命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놓았다」(위대한 수령님과 黨中央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우리말과 글이 걸어온 영광의 10년)

<문화어 학습, 1980년 4호>

어쨌든 固有語 開發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는 醇化(말다듬기)運動은 南北韓 共히 해방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벌여온 것으로, 現在 時點에서의 兩方의 差異는 그 方法과 程度의 差에 不過하다 할 것이다.

이 運動은 今後로도 南北韓이 共히 國語속에 우리의 것을 發掘하고 남의 것을 排除하려는 主體的인 新語創造事業으로 계속 전개될 터인데, 피차 統一性 없는 新造語의 濫造 때문에 兩方의 語彙

隔差를 더욱 深化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절실했다. 이렇므로 兩方에서 醇化의 目標, 基準, 方法에 있어서 同一 보조가 要求되는 現實인데, 우선 北韓語의 語彙醇化 實態를 살펴보겠다.

가. 日常生活語의 開發

北韓語의 말다듬기의 근본이념은 民族 및 主體思想 그리고 소위 主體的 言語思想의 創始者라는 김일성과 抗日鬪爭의 시대적 배경을 결부시키는데 特徵이 있다. 固有語와 漢字語가 공존할 때는 固有語로, 적당한 固有語가 없는 外來語는 漢字語로 쓴다는 醇化方向은 南韓語에서도 동일한 原則인데, 여기에 김일성의 主體言語思想 운운으로 塗飾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다.

말다듬기에 대한 北韓 言語學者들의 論文은 그 대부분이 김일성을 論題에 露出시키고 있다.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은 조선어 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이다 / 위대한 수령의 육친적 지도밑에 진행된 항일유격대원들의 모국어 학습 /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영도하시어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내고 주체적으로 발전시키었다 / 김일성 동지의 가르침 따라 우리의 말과 글을 더욱 주체적으로 발전시키자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주체적 언어사상의 창시자이다 /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 속에서 자라온 우리 강좌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을 국어교육분야에서 활짝 꽃피우자 /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언어사용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 배우자 /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말과 글을 쓰기 위한 운동에

서 제일조선 학생들이 거둔 눈부신 성과」

다음 語彙들은 北韓에서 다듬어진 생활용어이다.

가을걷이 (秋收)	그림등 (幻燈)
공기갈이 (換氣)	달 품 (月給)
굳히기 (定着)	미리팜 (豫賣)
미리알림 (豫告)	미리막이 (豫防)
무섭증 (恐怖症)	몸바침 (獻身)
물들이기 (染色)	불도장 (烙印)
받는데 (接受處)	바람물결 (風波)
비취보기 (透視)	본보기 (標本)
불타기 (燃燒)	북잡이 (鼓手)
빈 터 (空地)	소금밭 (鹽田)
소먹이군 (牧童)	손님맞이방 (應接室)
얼굴모습 (容貌)	잊음증 (健忘症)
젖엄마 (乳母)	젖떼기 (離乳)
큰 물 (洪水)	퍼 짐 (擴散)
줄엉킴 (混線)	통 짜 (一切)
꽃댕기 (리본)	내민데 (발코니)
누비뚝자리 (다다미)	들모임 (피크닉)
물맞이칸 (샤우어실)	소리판 (레코드)
창문보 (커어튼)	

나. 分野別 專門用語

北韓의 專門用語 다듬기는 1966 년이래 18 개 분과위원회 (의

약품, 금속, 생물학, 자연과학, 건설수리, 전기체신, 기계, 경공업, 상품
이름, 문학예술, 사회과학, 체육, 수산해양, 운수, 지질광업, 임학, 일반)
가 결성되고 여기서 연구토론을 거친 결과 사정되었는데 분야별로
친숙한 語例들을 들어 보이겠다.

< 言 語 >

거친소리 (激音)	순한소리 (平音)
겉터짐소리 (外破音)	속터짐소리 (內破音)
닫힘소리 (閉鎖音)	터짐소리 (破裂音)
스침소리 (摩擦音)	터스침소리 (破擦音)
입술소리 (唇音)	코소리 (鼻音)
혀소리 (舌音)	목구멍소리 (喉音)
울림소리 (有聲音)	안울림소리 (無聲音)
긴소리 (長音)	마디소리 (分節音)
소리마디 (音節)	소리값 (音價)
소리닮기 (音同化)	소리바뀜 (音變)
홀모음 (單母音)	겹모음 (二重母音)
열린마디 (開音節)	닫힌마디 (閉音節)
보탬말 (補語)	부름말 (呼稱語)
세움말 (主語)	끼음말 (插入語)
보임말 (提示語)	시킴문 (命令文)
느낌문 (感嘆文)	제힘상 (能動態)
입음상 (被動態)	첫째견 (一人稱)
말뿌리 (語根)	말줄기 (語幹)

덧붙이 (接辭)

앞붙이 (接頭辭)

뒤붙이 (接尾語)

합친말 (合成語)

맺음토 (終結助詞)

도움토 (補助詞)

모양본딴말 (擬態語)

소리같은말 (同音語)

소리본딴말 (擬聲語)

새 말 (新語)

준 말 (略語)

낮은말 (卑語)

모양글자 (象形文字)

낱소리글자 (音韻文字)

끝소리 (終聲)

내려쓰기 (縱書)

되풀이법 (反復法)

바로풀이법 (直說法)

물음표 (疑問符)

움김표 (引用符)

<數 字>

같기식 (等式)

여러마디식 (多項式)

안 각 (內角)

바깥각 (外角)

쳐든각 (仰角)

사킴각 (交叉角)

더하기 (合算)

덜 기 (除算)

드림선 (行垂線)

닿이선 (接線)

자름선 (切線)

겉넓이 (表面積)

자름넓이 (斷面積)

바른각기둥 (正六面體)

두리기둥 (圓柱)

원둘레 (圓周)

최대값 (最大值)

두제곱뿌리 (제곱根)

참분수 (眞分數)

데림분수 (大分數)

바꿈법칙 (交換法則)

거꾸셈법 (逆算法)

사이넣기법 (代入法)

열올림법 (十進法)

<經 濟>

세운돈(積立金)

꾼 돈(借入金)

꾸어준돈(貸付金)

내 기(出庫)

돈내기(出金)

거듭률(回收率)

밑 돈(基金)

미리준돈(前渡金)

어김돈(違約金)

들이기(入庫)

본 값(原價)

나눔몫(分配量)

<音樂·美術·文學>

소리표(音標)

소리너비(音域)

돌이(옥타아브)

노래이야기(오페라)

치는줄악기(打絃樂器)

검밝기(明暗)

앞경치(前景)

그림첩(畫帖)

구운흙(테라코타)

옮겨지음(脚色)

엮음새(構成)

에두롬법(婉曲法)

비양(아이러니)

소리사이(音程)

고른소리(樂音)

너성고음(소프라노)

손풍금(아코오디언)

밝음도(明度)

사람그림(人物畫)

그림버티개(畫架)

토막생각(斷想)

이음시조(連時調)

갈 래(장르)

결애기(에피소우드)

<物 理>

견줄무게(比重)

끌 힘(引力)

튀 힘 (彈力)

튀 성 (彈性)

빛느낌도 (感光度)

빛흐름 (光流)

빛묶음 (光束)

빛샘 (光源)

빛축 (光軸)

빛모으개 (集光器)

선늘음 (線膨脹)

열늘음 (熱膨脹)

부피불음 (體膨脹)

자기마당 (磁場)

전기마당 (電場)

자력묶음 (磁束)

흐름선 (回線)

흐름길 (回路)

소리빛갈 (音色)

들어량 (容量)

견줄열 (比熱)

비침도 (照度)

모임점 (焦點)

사진종이 (印畫紙)

물결길이 (波長)

물결모양 (波形)

물결움직임 (波動)

꺾임률 (屈折率)

꺾임광선 (屈折光線)

<天文·氣象>

옹근해가림 (皆既日蝕)

부분해가림 (部分蝕)

고리해가림 (金環蝕)

달가림 (月蝕)

별찌 (流星)

해가까운점 (近日點)

해먼점 (遠日點)

해길 (太陽路)

층더미구름 (層卷雲)

행성별구름 (行星雲)

찬전선 (寒冷前線)

머문전선 (停滯前線)

산골바람 (谷風)

바다바람 (海風)

우뢰비 (雷雨)

<地學·地理>

땅껍질(地殼)	깨바위(花崗岩)
흙기둥(土柱)	화산줄기(火山帶)
뉘은화산(休火山)	탄밭(炭田)
벌창질(汎濫期)	안바다(內海)
옛강바닥(舊河床)	높은물높이(高水位)
같은높이선(等高線)	같은깊이선(等深線)
날자바뀜선(日字變更線)	뜨거운바람(熱風)

<生物·化學>

홀잎(單葉)	헛뿌리(虛根)
여러해살이(多年生)	꽃가루받이(受粉)
모습갈이(變態)	새끼벌레(幼蟲)
더듬뿍(觸角)	뒤뱄(後腸)
붙어살이(寄生)	
풀림질(溶解)	풀림약(溶液)
떠흐림액(懸濁液)	바래기(漂白)
젖흐림액(乳濁液)	엉겨굳기(凝固)
엉겨맺히기(凝結)	엉겨붙기(凝集)
실험고뿌(비커)	

<農學·林學·畜産·蠶絲>

거름농이(施肥)	애벌갈이(初耕)
비달갈이(斜耕)	넓이뿌리기(廣播)
띄어뿌리기(點播)	두그루짓기(二毛作)

그루바꿈(轉作)

그루돌림(交互作)

홀그루(單作)

앞그루(前作)

뒤그루(後作)

마당질(打作)

벼훑기(脫穀)

마른논붙임(田作)

문힘약(接觸劑)

보탬약(添加劑)

알낱이닭(産卵鷄)

먹이(飼料)

숲나이(林齡)

섞인숲(混成林)

고치고르기(選蕪)

고치말리기(乾蕪)

고치실켜기(繰絲)

고치따기(收蕪)

<交 通>

거닐길(遊步道)

두름길(迂回路)

검넘선(橫斷線)

다님표(運行票)

짐(貨物)

지붕차(有蓋車)

얼굼차(冷凍車)

차갈이(換車)

차마당(駐車場)

처음역(始發驛)

마감역(終着驛)

차가름역(操車場)

견인능력(馬力)

<水産·海洋>

고기배(漁船)

고기소(漁場)

배길(航路)

물결길이(波長)

물결높이(波高)

바람물결(風波)

기슭물결(海岸波)

찬물흐름(寒流)

더운말흐름(暖流)

겉층흐름(表層流)

비탈흐름 (傾斜流)

맑음도 (透明度)

물깊이지도 (水深圖)

고기떼찾기 (魚群探查)

<體 育>

첫차기 (始蹴)

맨몸체조 (徒手體操)

문그물 (得點網)

역이어달리기 (驛傳競走)

집단체조 (매스게임)

긴연락 (롱패스)

순간타격 (스파이크)

쳐넣기 (슈우트)

속임동작 (페인트)

모서리빨 (코오너킥)

던지기빨 (서어브)

못 신 (스파이크)

중앙으로 꺾어차기 (센터링)

<醫 學>

마 디 (關節)

들어보기 (聽診)

홀어보기눈 (亂視)

바투보기눈 (近視)

가슴샘 (胸腺)

몸피돌기 (體循環)

피오줌 (血尿)

피 물 (血清)

피 진 (血漿)

피얼룩이병 (血斑病)

따라난명 (合病症)

배막염 (腹膜炎)

숨대염 (氣管枝炎)

위패움 (胃潰瘍)

위쳐지기 (胃下垂)

돌림감기 (流行感氣)

균죽이기 (殺菌)

열내림약 (解熱劑)

설사멧이약 (止瀉劑)

이상의 專門用語 중에서 지나치게 音節이 길어져 言衆들의 共感

을 얻기 어려운 어휘들이 많고 (예 : 소리같은말 (同音語), 바로풀이법 (直說法), 여러마디식 (多項式), 물결움직임 (波動), 해가까운점 (近日點), 고치실켜기 (繰絲), 더운물흐름 (暖流), 바투보기눈 (近視), 중앙으로 꺾어차기 (센터링) 등), 語彙內的 音節전체가 固有語化하지 못하여 漢字語와 雜種이 된 어휘도 많이 보인다 (예 : 열내림약 (解熱劑), 설사 멧이약 (止瀉劑), 견인능력 (馬力), 우뢰비 (雷雨), 비침도 (照度) 등)

이밖에도 생소한 造語法이나 語感이 좋지 않으므로 言衆들에게 受容度가 낮은 어휘들도 제법 많다 (예 : 고기소 (漁場), 알낳이닭 (產卵鷄), 마감역 (終着驛), 견줄무게 (比重), 튜성 (彈性), 거꾸셈법 (逆算法) 등)

이런 식의 억지造語가 濫造되고 있는 한편, 英語系 語源의 外來語는 아직까지 생명을 가지고 多量 쓰이고 있는 것이 北韓言語의 현실이다. 다음의 語例들은 北韓社會에 土着化된 日常外來語이다.

가스, 골덴, 골프, 그람, 글리세린, 나이론, 노트, 니스, 니크롬, 니켈, 니꼬찐, 네온, 벡타이, 다이나마이트, 다이야, 다이알, 도마도, 도크, 드릴, 디젤, 디프테리아, 라디오, 라이타, 레루, 로라, 로켓, 로타리, 리듬, 레몬, 레코드, 렌즈, 마라손, 마이크, 마일, 마크, 맘마, 맘모스, 모터, 메달, 뽏트, 뽏프, 바리톤, 바테리, 바이올린, 발레, 발브, 보이러, 볼트, 뽏스, 브라우스, 브로치, 블로크, 비닐, 비루스, 비스켓, 비타민, 사이다, 샤마니즘, 샤쯔, 삼광, 스키, 스투트, 스케치, 스퀘트, 스틸, 스폰지, 스프, 스프링, 스위치, 자즈, 자켓, 재트, 초콜레트, 츄립, 첼로, 카드, 카메라, 커피, 코스모스, 크림, 타올, 타일, 탱크, 테너, 테프, 텔레비죤, 팔프, 피아노, 필립, 프리즘, 휴즈, 아빠트, 악센트, 에네르기, 엔징

2. 位相的 差異로 特殊화된 語彙

南北韓은 현재 政治的·思想的·理念的 差異로 國土가 分斷되고 相互 敵對視하는 悲運속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諸與件은 兩方の 社會構造와 制度에 있어서도 變異를 招來하게 된다.

더우기 北韓에서는 言語가 政治的인 道具로 利用되고 있기 때문에, 語彙面에서도 그들 集團의 政治理念이나 經濟現象이나 社會制度에 符合되도록 人爲的 또는 自然的으로 變貌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韓에서는 볼 수 없는 政治, 經濟, 軍事, 社會用語들이 個人의 담화 黨政策 樹立가운데 新造語로 탄생되어 住民들의 강제적인 使用을 통해 一般化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言語는 社會的 所産이니만큼 政治體制나 構造가 다른 두 異質社會集團 속에서 그 位相的 差異에 의해 異形화된 特殊語가 派生된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地域的 位相인 方言差에의 南北韓語는 相互 많은 語形의 差異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言語를 驅使하는 言衆의 慣習에 따른 表現들도 兩方이 적지 않은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가. 政治·經濟·社會的 位相

北韓의 共產主義 政治體制와 마르크스·레닌의 社會主義를 추종하는 經濟制度와 革命課業 및 建設事業을 指向하는 人民들의 閉鎖的인 社會構造는 그에 副應하는 여러 特殊語를 要求하게 되었다. 특히 김일성의 偶像시와 黨 유일사상의 高조를 위해 새로 造語된 特殊語彙는 崇高한 言語가 政治的인 유희물로 전락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好例가 된다.

「조선문화어사전」에 登載된 이러한 어휘만도 수 천에 달하는데 그중 몇개씩을 골라서 舉例하기로 한다.

<政治用語>

「정치로선, 정치사상적 통일, 정치적 군대, 전투정치훈련, 로력영웅, 붉은편지, 상층통일전선, 자주로선, 정치사상사업, 정치적 투쟁」

특히 이들은 정치술어 가운데 「운동」이란 말을 즐겨 쓰는데, 얼핏 눈에 들어오는 것만을 들어봐도 많이 있다.

「샷별보기운동, 전국사상총동원운동, 농민운동, 붉은기중대운동, 로동운동, 붉은별따기운동, 혁명운동, 비행기사냥군조운동,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반일민족해방운동, 반전운동, 민족해방운동」

<經濟用語>

「가격일원화, 가격계획화, 가치형태, 경제의 군사화, 간접로동, 간접로력, 결정적담보, 경제관리체계, 경제모연공작, 경제범주, 경제투쟁, 공동소비폰드, 공동축적폰드, 분배법칙, 물질적 부」

<軍事用語>

「간부군대, 군대놀이, 관병일치,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투놀이, 전 인민적 방위체계, 준 전쟁시기」

<社會建設·革命用語>

「방식상학, 발머리총회, 가정혁명화, 간부사업, 경험교환회, 고정적로력협조반, 공무동력직장, 공부놀이감, 공장대학, 긍정감화교양, 계급노선, 계급적각성, 계급정책, 농촌문화혁명, 령도예술, 소년궁전, 전면적 기술개선, 천리마대고조, 청산리정신, 밥공장, 어머니공장」

이상의 特殊用語들은 南韓에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생소한 語彙들이다. 이는 그들의 구호처럼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의 무기」로서의 言語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인민을 革命的으로 고무하고 사회주의 공산투쟁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나. 地理的(方言差) 位相

현 北韓땅은 남립산맥을 분수령으로 하는 동부권(함경도)과 서부권(평안도) 사이의 地域的인 隔離와 對蘇, 對中共 關係의 政治力學的 興件과 특히 地域間的 閉鎖性 등으로 말미암아 그 方言圈에 따른 言語隔差는 클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文化語가 平壤말을 中心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文化語辭典에는 함경도 方言이 登載되어 있지도 않다. 이에 반해 南韓은 근자에 와서 전지역이 1日生活圈이 되고, 지역간에도 출입과 접촉이 빈번하고 특별히 T.V 등의 매스컴 영향으로 固有한 方言이 退色·消滅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閉鎖的인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方言은 아직도 그 固有性과 保守性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에 따라 南北韓語는 地域的 方言差에 의한 語彙의 異質性도 현저하게 대두된다.

「조선문화어사전」에 記載된 方言 語彙 가운데 뚜렷한 것을 뽑아 그것을 品詞別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名詞類>

가다리굴 (가지굴, 걸굴)	고기리특 (고기국물)
기와깨미 (기와)	귀박죽 (귀바퀴)
내굴 (내)	더수미 (덜미)

도드라기 (두드러기)

두리 (둘레)

떡다시 (떡살)

무담 (장담)

냄 (전송)

강보리밥 (콩보리밥)

눈찌 (눈매)

비그이 (비피하기)

사달 (사고, 탈)

상통 (상판)

수더구 (술)

쌈고, 쌈치 (쌈)

잔등패기 (잔등이)

정지 (부엌)

조박 (조각)

게사니 (거위)

궁냥 (생각, 궁리)

노라리 (건달)

진소리 (실없는 소리)

젠걸음 (빠른걸음)

터돌 (주춧돌)

까박 (말대꾸)

동살 (겨울)

되박 (되)

망돌 (맷돌)

별짜 (별일)

번대머리 (대머리)

머드레 (그루퐁)

불범 (표범)

비위짱 (비위)

삿돼지 (삿자리)

솔검덩이 (솔검정)

시켄 (시집쪽)

자짱지 (장아찌)

점심괵 (도시락)

주막다시 (주먹)

뽕 (뽕)

부루 (상추)

노날 (노끈)

맥살 (기운, 힘)

재밤중 (한밤중)

참속 (참마음)

회파람 (휘파람)

어방 (어림)

<動詞・形容詞類>

궁겁다 (궁금하다)

그쫘하다 (그뜬하다)

개잘싸하다 (너절하다)

노드다 (나누다)

다우치다 (다그치다)

두간하다 (드물지 않다)

모둥키다 (모아 옹키다)

말썰다 (거북하다)

미끌다 (미끌어지다)

답새기다 (때리다)

불그렛하다 (불그레하다)

사려물다 (이를 악물다)

서느럽다 (서느렁다)

서뿌르다 (서투르다)

성칼지다 (성깔이 있다)

수겁다 (수줍다)

슴슴하다 (심심하다)

자래우다 (기르다)

절구다 (절이다)

갈람하다 (가름하다)

무연하다 (무질서하다)

마스다 (망가뜨리다)

다발다 (짧고 발다)

그니럽다 (근지럽다)

기우드름하다 (갸웃드름하다)

갖다 (기침하다)

내구럽다 (냅다)

동떼다 (동떨어지다)

맞맞다 (꼭맞다)

모대기다 (몸을 뒤틀다)

메사하다 (쑤스럽다)

개체없다 (체신없다)

부잇하다 (부유스럽하다)

비속하다 (비슷하다)

서겁다

서뻘벌하다

설하다

송그리다

숙보다

시살스럽다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잘망긔다 (알망스럽다)

가털하다 (맹렬하다)

꿀꿀하다 (깨끗하다)

무으다 (조직하다)

고아대다 (소리를 지르다)

무지다 (쌓다)

간고하다 (어렵고 고생스럽다) 즘좃하다 (뚝하다)
 편역들다 (편들다) 허거뜨다 (속이 비고 어이없다)
 홉뜨다 (부릅뜨다) 얼빤하다 (어리벉벉하다)

<副詞類>

망창 (마구)	무중 (갑자기)
걸씨 (어서, 빨리)	고즈너기 (고스란히)
장창 (늘, 언제나)	점도록 (저물도록)
무등 (무척)	주런히 (가지런히)
지내 (너무 지나치게)	지씨 (끊기있게)
지어 (더 나아가)	하냥 (같이)
허턱대고 (허청대고)	여직 (여태)

한편 北韓方言 가운데는 古語의 殘滓를 아직껏 維持하고 있는 語形들도 있다.

가시어머니 (丈母)
 가시아버지 (丈人)
 별하다 (特別하다)
 허물하다 (허물로 탓하다, 꾸짖다)

위의 語形들은 다음에 提示하는 古語가 維持된 形態이다.

- 妻는 가시다 <月驛 1: 12>
- 別爲所有去等 (別흔바 잇거든)

<吏讀>

- 別爲無亦 (別흔거 업시)
- 허물홀 견 (謹) <字會下: 29>

다. 言語狀況的 位相

慣用語(idiom)는 한 言語에 있어서의 特有的 表現方法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生成되는 要因으로는 言衆이 평소에 구사하던 表現方法으로는 부족을 느끼게 되어 새롭고 적절한 表現形態를 要求하는데 있다. 당초에는 臨時語(nounce form)의 形態로 나타나지만 言衆들이 유사한 言語場面에서 즐겨 애용함으로써 하나의 公同된 의미 단위로 適用될 때 慣用語는 成立되는 것이다.

北韓社會에서 形成된 慣用語 중에는 南韓과 形態나 意味構造가 유사한 것도 많으나, 兩斷의 異質化된 言語社會는 慣用語의 變異도 초래하여 많은 相異語들을 産出시켜 놓았다.

慣用語는 대체로 ① 故事 ② 古語 ③ 世界特殊用語 ④ 比喩的인 것 ⑤ 強意化 ⑥ 柔軟化 등과 關係를 맺고 있는데, 北韓語에서 새로 形成된 慣用語들은 故事나 古語와의 關係는 적으며, 그들의 高립적 閉鎖된 社會속에서 人民들이 世界의 特殊用語를 接觸함으로써 形成될 可能性도 희박하며, 주로 比喩的인 것과 強意化의 影響을 받음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北韓語의 慣用語 중에서 南韓과는 表現的 差異를 보이는 것을 사전으로부터 뽑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을 뜨다 : 짐승의 머리와 네 발을 잘라내다.

값이 눅다 : 값이 싸다.

결을 주다 : 속을 터주다.

급해맞다 : 사정이 매우 다급하다.

기운꼴이 박히다 : 꽤 센 힘이 있다.

게목을 지르다 : 듣기 싫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다.

게바라 다니다 (오르다) : 함부로 이리 저리 다니다.
 귀맛이 나다 (돌다) : 들을 재미가 있다.
 나무람을 타다 : 나무람을 당해서 마음에 언짢음을 느끼다.
 난탕을 치다 : 난잡스레 행동하다.
 남의 달을 집다 : 아이가 날 달에 나지 않고 달을 넘기다.
 뉘살이 나다 : 몹시 혼이 나다.
 뉘을 놓다 : 정신없이 멍하게 되다.
 뉘이 오르다 : 신바람이 나서 흥이 오르다.
 노라리를 치다 : 건달을 부리다.
 노염이 들다 : 노여운 느낌이 생기다.
 노염을 사다 (타다) : 성을 내지 않아도 될 일에 성을 내다.
 녹장이 나다 : 완전히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눈표가 나다 : 눈에 잘 뜨이다.
 눈썰이 나다 : 보기가 불쾌하다.
 늦줄을 놓다 (주다) : 긴장을 풀다. 긴장을 풀어 주다.
 내심이 있다 : 속이 깊고 참을성이 많다.
 냄을 내다 : 배웅하다.
 네굽을 놓다 : 몹시 급히 뛰다.
 네굽을 안고 : 아주 빨리
 더위가 들다 : 여름철 더위로 병이 나다.
 동안이 뜨다 : 사이가 뜨다.
 등쌀이 달다 : 몹시 등이 달다.
 등쌀을 놓다 : 남에게 짓궂게 귀찮게 굴다.
 대중을 치다 : 어림으로 셈치다.

뒤편에 걸리다 :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
 뒤배를 보다 : 뒤에서 일을 보살피 주다.
 뒤설레를 놓다 : 서두르며 수선을 피우다.
 뒤꼬리를 따르다 : 무슨 일에 소극적 피동적으로 움직이다.
 뒤끝을 보다 : 일의 진행결과를 보다.
 마련이 아니다 : 사정이 너무 딱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말깃을 달다 : 남이 말하는 옆에서 덩달아 말하다.
 말씨를 심다 (뿌리다) : 뒤에 이야기가 퍼지도록 사람에게 말해놓다.
 망태기를 치다 : 아주 못쓰게 만들어 버리다.
 면전을 돌다 : 관심은 있으면서 직접 관계하려 하지 않는다.
 모대기를 치다 : 괴롭고 안타까와 몸을 뒤틀다.
 목대가 세다 : 고집 · 주견이 세다.
 목대를 잡다 : 휘어잡고 거느리다.
 맥살이 나다 : 기운과 의욕이 떨어지다.
 바람을 맞다 : 몹시 마음이 들뜨다.
 발씨가 서투르다 : 길이 익숙하지 않다.
 불을 걸다 : 제기된 문제에 집중적인 작용을 가하다.
 비위를 부리다 (팔다, 쓰다) : 체면도 없이 짓궂게 굴다.
 배가 맞다 : 서로 뜻이 맞다.
 배짱을 대다 : 배짱을 부리다.
 사자밥을 지다 : 언제 죽을지 위험속에 있다.
 산코를 끌다 : 헛코를 끌다.
 선코를 매다 : 남보다 먼저 시작하다.
 성수가 나다 : 일이 잘되어 기세가 오르다.

성화를 대다(먹이다, 바치다) : 자꾸 몹시 귀찮게 굴다.
 손을 걸다 : 손찌검을 하다.
 자국을 밟다 : 발자국을 따라 뒤쫓다.
 장달음을 치다 : 출달음을 치다.
 장알이 지다 :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히다.
 조화가 나다(들다) : 이상하고 묘하게 되다.
 중을 뜨다 : 수단을 써서 낚지시 남의 속을 뜨다.
 질탕을 치다 : 질팡거리며 돌아치다.
 첫 코를 떼다 : 남보다 제일 먼저 시작하다.
 축을 잡히다 : 모자라는 약점을 잡히다.
 코빵을 맞다 : 거절을 당하다.
 큰 코를 떼우다 : 크게 봉변을 당하다.
 통이 들다(앉다) : 배추 등이 속이 들다.
 헛거미가 잡히다 : 욕심 때문에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다.
 호박을 잡다 : 힘들이지 않고 뜻밖에 호사를 만나다.
 혼쌀을 먹다 : 되게 혼나다.
 흙통에 넣다(빠뜨리다) : 극도에 이르러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빠
 지게 되다.
 홀으로 보다 : 대수롭지 않게 보다.
 해가 설핏하다 : 어두워 오다.
 꿈에 네뚜리 : 아주 하찮게 여김.
 어리손을 치다 : 미리 환심을 사느라고 서두르다.
 오구탕을 치다 : 법석을 떠들며 야단을 치다.
 우통을 치다 : 실속없이 겉으로만 큰소리를 치다.

3. 文法的 差異로 異質化된 語彙

해방이후 北韓이 걸어온 언어정책의 시기는 철자법의 개혁을 기준으로 하여 흔히 3기로 나누고 있다.

제 1기를 맞춤법시대(1945~1954)라 하고 제 2기를 철자법시대(1954~1966), 제 3기를 규범집시대(1966~)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제 1기는 주로 해방이후 철자법과 한자어 폐지에 주력한 시기였으며, 제 2기는 사전편찬, 외래어 표기법, 문법문제를 많이 다루던 시기였으며, 64년, 66년의 김일성 교시로부터 말다듬기가 시작된 제 3기는 文化語의 보급 및 文化語 文法을 규범화하는데 역점을 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文法에 관한 집대성은 규범문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선어문법 1,2」가 1960~1963년에 과학원 언어문학 연구소에서 출간되었다는 것과 1966년 「조선말규범집」에 이어 1972년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에서 간행한 「문학어문법규범」이 전부이다.

특히 「문학어문법규범」은 「문화어」의 民衆普及을 위한 人工的이고 強制的 拘束性을 띤 것으로, 南韓의 一般文化法書와는 매우 異質적인 性格을 띠고 있다. 즉 學術的 文法內容에다 實際 言語驅使面의 規範的 要素가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책이다.

北韓語에서 語形에 영향을 주고 있는 判明되는 文法要素는 接辭나 補助語幹 등의 形態素이다.

그러므로 造語法(word formation)에 있어서 接辭에 의한 派生法과 語結合에 의한 合成法이 南北 相互 特異形態를 導出시키고, 補助語幹에 의한 被動法과 使動法에 있어서 다소 相異性을 보이고 있다.

가. 派生法 · 合成法

(1) 副詞化接尾辭 「이」「히」

南北韓語 공히 形容詞類가 副詞로 轉成될 때에는 接尾辭 「이」「히」등을 語根에 接合시키는데, 北韓語에서는 이때 語根의 特質과는 관계없이 接辭의 接合이 自由롭다.

다음 語例의 轉成副詞들은 南韓에서는 매우 生소하고 어색한 感覺을 주며, 이들은 거의 「-하게」로 活用化하여 쓰이는 것이 一般的이다.

「-히」:

- | | |
|-------------|-------------|
| 날씬-히 (날씬하게) | 낮춤-히 (낮춤하게) |
| 녹진-히 (녹진하게) | 녹신-히 (녹신하게) |
| 도툼-히 (다툼하게) | 드문-히 (드문하게) |
| 대견-히 (대견하게) | 맞춤-히 (맞춤하게) |
| 멍-히 (멍하게) | 명랑-히 (명랑하게) |
| 무난-히 (무난하게) | 병병-히 (병병하게) |
| 분분-히 (분분하게) | 살랑-히 (살랑하게) |
| 시들-히 (시들하게) | 실-히 (실하게) |
| 심장-히 (심장하게) | 준엄-히 (준엄하게) |
| 지루-히 (지루하게) | 혹심-히 (혹심하게) |
| 억울-히 (억울하게) | 음산-히 (음산하게) |

「-이」:

- | | |
|--------------|--------------|
| 무직-이 (무직하게) | 방긋-이 (방긋하게) |
| 부잇-이 (부잇하게) | 불긋-이 (불긋하게) |
| 상서로-이 (상서롭게) | 정의로-이 (정의롭게) |

하찮-이 (하찮게)

어려-이 (어렵게)

아름다-이 (아름답게)

영화로-이 (영화롭게)

옳-이 (옳게)

외따로-이 (외따로)

(2) 形容詞化 轉成接尾辭

語根이나 語基에 接尾辭가 붙어 形容詞로 轉成될 때는 南北韓語 공히 「스럽다」「하다」「차다」「롭다」「지다」「나다」 등이 쓰이는데, 이러한 派生法에서 兩方語는 다소의 차이를 나타낸다. 다음의 派生語形은 南韓語에서는 매우 어색하게 들린다.

「-하다」:

낮춤-하다 (낮은 듯하다)

맞춤-하다 (비슷한 정도로 알맞다)

물론-하다 (가리어 말할 것 없다)

맥-하다 (술이나 약기운이 날아가 싱겁다)

별-하다 (이상스럽게 다르다)

좁-하다

직심-하다 (마음이 참되고 곧다)

여간-하다 (이만저만하다)

유감-하다 (마음에 차지 않아 섭섭하고 한스럽다)

응당-하다 (마땅하다)

「-스럽다」:

망측-스럽다

명랑-스럽다

무난-스럽다

무안-스럽다

미타-스럽다

소견-스럽다 (제법 소견이 너르다)

잘망-스럽다

푸접-스럽다

역-스럽다 (역겹다)

우연-스럽다

「-롭다」:

고드-롭다

저주-롭다

초소-롭다

「-비다」:

나무라-비다 (나무랍게 생각하여 마음에 언짢다)

「-차다」:

기승-차다

자랑-차다 (몹시 자랑스럽다)

정-차다

영광-차다

희망-차다

우람-차다

「-지다」:

맑-지다 (맑은 티가 있다)

주렁-지다

차레-지다

「-긋다」:

잔망-긋다

잘망-긋다

「-맞다」:

급해-맞다

바빠-맞다

증상-맞다

「-찍다」:

의아-찍다

(3) 動詞化 轉成接尾辭

語根이나 語基에 接尾辭가 붙어 動詞化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의 派生語들은 南韓語에서는 모두가 어색한 語形들이다.

「-하다」:

모두-하다(모두 합치다)

토대-하다(기초나 근거로 하다)

허물-하다(허물로 여기다)

설-하다(설사하다)

「-되다」:

몽상-되다

애-되다(어린티가 있어 보이다)

「-거리다」:

자랑-거리다(자꾸 자랑하다)

「-치다」:

지동-치다

「-나다」:

아파-나다

(4) 派生語의 量産·雜居

北韓語는 前項의 接尾辭 發達과 함께 接頭辭의 造語生産的 機能도 過大히 強化시키고 있다. 이는 接辭의 派生性 즉 語彙生産性을 最大로 活用한 經濟性을 의미하기는 하나, 이로 말미암은 兩方語의 語彙的 異質性도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이다.

다음 語例에서 接頭辭가 形成하고 있는 派生語는 南韓語에서는 使

用하지 않는 생소한 것들이다.

〔내-〕:

-돌다, -돌치다, -덩쿨리다, -밟다, -버티다, -벌리다,
-띄우다, -뿔다, -질리다, -짚다, -흔들다

〔드-〕:

-놀다, -바쁘다, -소문나다, -춧다, -설레이다

〔나가-〕:

-너부러지다, -곤드라지다, -넘어지다, -눅다, -번지다,
-뻘드러지다, -쓰러지다

〔다가-〕:

-들다, -세우다, -쓰다

〔내리-〕:

-다지다, -달다, -달리다, -덜다, -덜이다, -드리우다,
-디디다, -딩쿨다, -붓다, -비치다, -숙이다, -심다,
-쉬다, -조기다, -죽치다, -짚다, -호르다, -뿐지다,
-꽃다, -꽃히다, -꺾다, -쓰다, -쏘다, -엮다, -읽다,
-외다, -외우다

〔지르-〕:

-갈다, -누르다, -디디다, -밟다, -보다, -숙이다,
-끼다

〔짓-〕:

-구기다, -달리다, -두들기다, -대기다, -마스다, -맞다,
-모다, -몽개다, -부르다, -숙이다, -조기다, -태우다,
-꺾다, -갈리다, -떠들다, -뚜드리다, -쭈시다

위의 派生語들은 用言에 接頭辭가 붙은 例들인데 주로 의미를 강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強勢接頭辭로서, 이들의 발달은 北韓語의 억양과도 같이 強硬化되어가는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 名詞類에 붙는 接頭辭에 있어서도 그 派生形이 南韓語에서 는 찾아 볼 수 없는 語例들이 많이 눈에 띈다.

「늦-」:

-달, -종, -장

「단-」:

-마디, -모금, -무릎에, -매

「마-」:

-가을, -바람, -해, -쪽, -여름

「무리-」:

-매, -매질, -주검, -떼

「미루-」:

-등, -매, -벌

「결-」:

-쿨, -다리, -도랑, -불

「갓-」:

-병아리, -뿌리, -밭이

「빈-」:

-소리꾼, -소문, -이름, -인사

이밖에 接尾辭類에도 造語的 生産機能을 最大로 부여하여 生소한 新派生語를 濫造해 놓았다.

「-질」:

말공부-, 말다툼-, 말대꾸-, 개-, 무리매-, 닭음-,
더듬-, 가루-

「-군」:

농민-, 배-, 빈소리-, 모-

(5) 合成語의 亂舞

北韓語에서 두 개의 實辭形態素가 복합되어 쓰이는 合成語도 派生語와 더불어 散亂한 形態들로 擴張되어 있다.

「가루」:

-담배, -떡이, -모이, -비료, -쇠돌, -즙, -질, -채,
-탄, -씨, -잉크

「사상」:

-사업, -성, -수양, -동원, -개조, -전선, -적요새,
-투쟁, -혁명, -의식

「강냉이」:

-겨, -국수, -기름, -눈, -다락, -속, -질, -튀기,
-쌀, -오사리

위의 合成語들은 北韓社會의 特産物이나 政治社會體制와 관련있는 語彙이나 南韓에서는 쓰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특히 「달걀」은 語根을 밝혀 「닭알」이라 表記하고 있고, 「닭의란」 「닭의발」 「닭의살」 등의 特異한 語形을 보여 주기도 하는데, 北韓語의 合成語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사이스”을 插入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사이스”은 形態上, 意味上, 音韻上으로 매우 重要

한 機能을 가진 形態素로써, 이의 階지는 더욱 兩語의 語形的 異質化를 深化시키고 있다.

해빛 (햇빛)	기밭 (깃밭)	바줄 (밧줄)
뒤집 (뒷집)	고기배 (고깃배)	비물 (빗물)
비방울 (빗방울)	비자루 (빗자루)	배노래 (뱃노래)
시내가 (시냇가)	새벌 (셋벌)	세방 (셋방)
저가락 (젓가락)	주추돌 (주춧돌)	주대 (줏대)
초불 (촛불)	표말 (뿔말)	꽤불 (햇불)
이몸 (잇몸)	코등 (콧등)	

이밖에도 복합용언 가운데 다음과 같은 特異語形들이 있고,

옥붙다 (안으로 옥아 붙다)

얼눅다 (얼다가 눅다)

업고들다 (상관없는 남을 끌어 들이다)

타끓다 (타고 끓다)

헐잡다 (헐하게 어림잡다)

트고지내다 (스스럼없이 가까이 지내다)

겹쌓다 (겹으로 쌓다)

먹고담다

괴짚다

副詞語形도 特異形態들이 많이 散見된다.

든다처음,

말말끝에,

말대로,

면바로,

자기절로,

내절로,

단매에,

어디라없이

나. 使動法·被動法

兩方語의 文法體系에서 一般 用語言이 使動詞 또는 被動詞로 轉成될 때는 「이」「히」「리」「기」 등의 補助語幹을 挿入한다.

南韓語에서 이들 補助語幹은 造語의 機能으로 보아 다소 不具的인 形態素의 性格을 띠고 있어 모든 用言에 挿入·適用될 수 없는데 反해, 北韓語에서는 보다 多樣·廣範圍하게 挿入될 수 있는 造語力을 가지고 있다. 이는 南韓語에서 반드시 補助語幹을 挿入하는 方法외에도 다른 補助的 用言을 取하여 쓰는 使動·被動法이 더 자연스런 傾向을 띠기 때문이다.

다음에 提示하는 北韓語의 使動詞, 被動詞들은 南韓語에서 쓰이지 않는 語形으로서 주로 南韓語에서는 「-게 하다」와 「-어 지다」의 形態로 쓰는 것이 一般的이다.

〈使動詞〉

- | | |
|---------------------|----------------|
| 노엽히다(노엽게 하다) | 말이다(말게 하다) |
| 묵이다(묵게 하다) | 묻히다(묻게 하다) |
| 불구다(붓게 하다) | 비뚤이다(비뚤게 하다) |
| 빛내이다(빛나게 하다) | 베우다(베게 하다) |
| 봐우다(보게 하다, cf. 보이다) | |
| 설리다(설게 하다) | 시달리우다(시달리게 하다) |
| 시들리다(시들게 하다) | 쉬우다(쉬게 하다) |
| 자래우다(자라게 하다) | 깊히다(깊게 하다) |
| 쥐우다(쥐게 하다) | 얇히다(얇게 하다) |

〈被動詞〉

- | | |
|--------------|--------------|
| 내놓이다(내놓아 지다) | 몽개이다(몽개어 지다) |
|--------------|--------------|

분질리다(분질어 지다)

볶이다(보아 지다, cf. 보이다)

시들키다(시들어 지다)

퍼이다(퍼어 지다)

패이다(파 지다)

활이다(활아 지다)

헐벗기다(헐벗어 지다)

엮이다(엮어 지다)

잇히다(잇어 지다)

또한 北韓語의 被動詞 語形 가운데는 「(이, 히, 리, 기)우다」형을 많이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特異하다. 南韓語에서는 이를 方言的 現象으로 補助語幹 두 개가 잘못 疊用된 것으로 다루고 있는데 反해 北韓語에서는 文化語사전에 도 이들 語形을 표준어시하여 登載하고 있다.

깎이우다(깎이다)

끌리우다(끌리다)

따돌리우다(따돌리다)

엮히우다(엮히다)

읽히우다(읽히다)

튀기우다(튀기다)

팔리우다(팔리다)

물리우다(물리다)

잡리우다(잡리다)

잡히우다(잡히다)

4. 音韻的 差異로 異質化된 語彙

北韓語의 音聲學的·音韻論的 實態는 이미 洪妍淑(1977), 李炫馥(1977)에 의해 記述되었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項目만 提示할 詳論을 피하기로 한다.

北韓語에서 音韻的 諸現象이 語彙의 形態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대체로 母音變異, 「ㅣ」母音順行同化, 前舌母音化, 母音交替, 濃

音化, 音韻倒置, 絶音現象, 頭子音 등이다.

가. 母音變異 (umlaut)

先行하는 後舌母音이 後行하는 「ㅣ」母音의 逆同化作用을 받아 變音되는 것으로, 南韓에서는 주로 方言的 現象으로 많이 나타난다.

北韓語에서는 同化變異된 것으로서 語形을 삼는 例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ㅏ+ㅣ→ㅕ+ㅣ, ㅑ+ㅣ→ㅗ+ㅣ의 분포가 많고, ㅓ+ㅣ→ㅕ+ㅣ, ㅜ+ㅣ→ㅑ+ㅣ는 잘 보이지 않는다.

「ㅏ>ㅕ」:

담쟁이 (담장이)

배추쪼랭이 (쪼랑이)

소금쟁이 (소금장이)

곰팡이 (곰팡이)

아지랭이 (아지랑이)

잔내비 (잔나비)

실오래기 (실오라기)

지푸래기 (지푸라기)

「ㅑ>ㅗ」:

말쌩꾸레기 (말쌩꾸러기)

불구덩이 (불구덩이)

엉덩이 (엉덩이)

무더기 (무더기)

꾸레미 (꾸러미)

웅덩이 (웅덩이)

나. 「ㅣ」母音順行同化

先行하는 「ㅣ」母音의 영향을 後行하는 母音이 받게 됨으로 「j」반자음을 介입시키는 現象으로 語彙는 주로 ㅑ>ㅗ가 많다.

가슴헤엄 (가슴헤엄)

드디어 (드디어)

비여지다 (비어지다)

되였다 (되었다)

헤여지다 (헤어지다)

떠엄떠엄 (떠엄떠엄)

다. 前舌母音化

齒音 (스, 스, 츠)에 연결된 「ㅡ」나 「ㅍ」가 前舌母音인 「ㅣ」로 바뀌는 현상이다.

수집다 (수줍다)

부시시 (부스스)

비실거리다 (비슬거리다)

부시시 (우수수)

부시다 (부수다)

라. 母音交替 (ablaut)

對立母音 (ㅏ/ㅑ, ㅓ/ㅕ)끼리 서로 交替되는 現象으로 이도 方言的 영향과 母音調和의 붕괴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

거마리 (거머리)

거차리 (거저리)

갈구리 (갈고리)

차집다 (차갑다)

도드라기 (두드러기)

주막 (주먹)

마. 子音의 濃音化

音聲強化現象의 하나로 表音式 綴字法을 취하는 한 形態이다.

논뚝 (논둑)

원쭈 (원수)

복쭈 (복수)

바. 頭子音 再生

南韓語에서 頭子音法則은 철저히 지켜져, 음절 첫소리로 「ㄹ」이나 「ㄴ」을 회피하고 있다. 즉 「라, 러, 로, 루, 르」가 頭音에서 「나, 너, 노, 누, 느」로 바뀌고, 「랴, 려, 료, 류, 리」 또는 「냐, 녀, 뇨, 뉴, 니」가 頭音에서 「야, 여, 요, 유, 이」로 바뀌는

법칙인데, 北韓語에서는 意圖적으로 維持·再生시켜 쓰고 있다.

력사(역사: 歷史)

로동(노동: 勞動)

리정표(이정표: 里程表)

료금(요금: 料金)

랑만(낭만: 浪漫)

사. 絶音

두 개의 名詞語가 복합할 때, 앞音節에 받침이 없고 冠形格의 의미를 가지며 뒤音節의 첫소리가 硬音으로 발음될 때는 “사이스”을 插入하여 絶音效果를 내게 되는데, 이러한 表記法조차도 北韓語에서는 당초 [']로 표시하다가 이제 완전히 폐지했다(語例는 前出 參照).

아. 音節倒置

音節倒置現象은 現代 北韓語에서는 주로 學生語나 特殊集團의 隱語 또는 卑語에서 많이 發生하고 있는데(예: 총알→알총, 지갑→갑지, 극장→장극), 北韓語에서도 이와같은 語例들이 文化語에서도 散見된다.

돌망(망돌: 멧돌)

자. 音節縮約

北韓語에서 音節이 줄어들어 쓰이는 語彙는 매우 많이 나타난다.

그닥(그다지)

떡(미역)

모다 (모으다)

밈 (미음)

꽤 (무에)

뵤 (배알)

주물다 (주므르다)

흠탁 (흠타기)

한접에 (한꺼번에)

이상의 諸 音韻現象에 따른 語形의 表記形態에서 나타나는 北韓語의 특징은 表音式 表記法을 採用함으로써 발음나는 대로 충실히 적는 경향이 있고, 同化作用의 영향을 받는 범위에서는 同化된 발음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表音式 表記法을 重視하면서도 다음 예처럼 用言語尾의 「ㄹ」下 硬音表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과, “사이스”의 폐지 등은 이러한 原則에 相衝되는 現象이다.

-르가 (-르까)

-르수록 (-르쭈록)

-르지라도 (-르찌라도)

-르고 (-르꼬)

-르진대 (-르찐대)

게다가 音韻의 同化現象에서 同化된 音價를 표준시하여 表記하는 것은 일종 勞力經濟의 原則을 重視하려는 의도인데, 頭子音「ㄹ」을 되살려 쓰는 것은 이에 逆行되는 現象이다.

Ⅲ. 語彙意味의 相異性 對比

意味의 變化는 概念 (sense)과 名稱 (name) 사이의 關係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同一名稱의 語彙가 지닌 意味域 (meaning scope)이 擴張, 또는 縮小되는 현상이 있고, 意味價値 (meaning value)가 上昇 또는 下落하는 현상도 있다. 또한 一般的인 意味가 特殊化되는 경우도 있으며, 역으로 特殊한 意味가 一般化되는 變化도 있다. 이 밖에도 因果關係나 隱喩에 의한 轉義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語彙는 本有의 主意 (primary meaning)를 잃어 버리고 副意 (secondary meaning)가 浮上되는 變化도 보여 준다.

실제로, 言語의 內容이 되는 意味는 形式이 되는 形態보다는 짧은 기간에 쉽게 變貌하지는 않는다. 더우기 語形이나 綴字 등의 問題는 政策的인 拘束力의 發動으로 修正 또는 改定이 可能하지만 意味의 問題는 人間의 心理的 諸要素들과 結付되어 있기 때문에 政策에 의한 交替가 容易하지 않다.

그러므로, 南北韓語의 言語隔差에 있어서 語形의 異質性보다는 意味의 相異性 言語統一에 대하여는 더 심각한 問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言語의 意味變化는 ① 心理的 要因, ② 社會的 要因, ③ 歷史的 要因, ④ 言語自體의 要因 등에 의해 誘發되는데, 南北言語는 歷史的으로 分斷 35年의 그리긴 期間이 못되니 變化의 要因으로 無視될 수 있겠고, 言語自體도 同一國語가 對象이 되니만큼 直接的인 要因이 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南北言語의 意味變化를 誘導한 것은 社會的 要因과 心理的 要因이 主要因이 될 것이다.

즉,北韓集團의 政治的 理念, 思想的 指向性, 社會的 構造 등과 이에 따른 制度的인 面貌는 人民들의 思考와 心理를 改造시키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言語의 意味도 그에 맞는 變化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同一語形을 취하는 北韓의 語彙가 韓國과는 意味의 範疇를 달리하는 實例를 들고, 그 變化樣相을 考察해 가겠다.

1. 縮小(narrowing), 特殊化(specialization)

意味의 縮小, 特殊化는 당초 一般的인 意味의 넓은 意味域을 占有하고 있던 語彙의 意味가 좁아지고 特殊한 것에 限定되는 類型的 意味變化를 말하며, 北韓語의 意味變化 가운데 中心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政策的이고 人爲的인 制約에 의해 어떠한 語彙에 관련된 一般的인 意味를 어느 特定人이나 特定事實, 特定集團이나 特定場所에 限定 結付시킴으로 特殊化된 것이다.

특히 刮目할 사실은 北韓 語彙意味의 特殊化는 그 對象이 매우 分明하여, 金日成의 偶像화에 따른 人工的인 特殊化, 革命·建設事業에 관련된 特殊化, 政治·思想 宣傳의 方便化에 따른 特殊化가 主潮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言語가 意味面에서도 순수가치를 상실하고 政治道具로서 社會를 統制하는 方便으로 使用되고 있는 轉落된 存在임을 認識할 수 있다.

▽가. 金日成 偶像化에 따른 特殊化

語彙 中에서도 崇高하고 英雄的이며 偉대한 말을 選擇하여 金日成 個人的 專有物로 指定하는 形態의 特殊化이다. 즉, 누구나 가질 수 있는 崇高的 屬性, 누구나 할 수 있는 英雄的 活動, 누

구나 所有할 수 있는 높은 地位를 金日成의 獨占物로 限定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個人偶像化, 神格化에 直結되는 것이다.

다음에 例示하는 語彙의 意味는 누구에게나 該當될 수 있는 一般性이 배제되고, 으레히 金日成을 指稱하는 것으로 縮小된 것이다. 참고로 一般的 意味를 提示한 韓國語의 辭典意味로 對比시켜 보았다.

	<韓 國>	<北 韓>
교 시	가르쳐 보임	<u>김일성동지</u> 가 가르쳐 주신 혁명·건설의 지침이 되는 말씀
가르치 십	가르침의 존재	<u>위대하신 수령 김일성동지</u> 가 가르쳐 주신 혁명·건설의 지침이 되는 말씀
경애하는	공경·사랑하는	존경과 친근한 마음으로 우리러 받들어 모시는
로 작	힘들여 만든 작품	<u>김일성동지</u> 가 집필한 혁명·건설에서 지침이 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불후의 저서
문 헌	문물제도의 기록	<u>김일성동지</u> 의 노작
사 령 관	사령부의 장	항일투쟁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 혁명무력을 키워 승리의 한길로 영도하신 <u>김일성동지</u>

	<韓 國>	<北 韓>
사 적 물	역사적으로 남을 사건물	<u>김일성동지</u> 의 혁명적 과정, 활동과 관련된 우리 인민의 역사에 길이 전해질 귀중한 대상물
사 적 비	역사적으로 남을 일을 쓴 기념비	사적지에서 <u>김일성동지</u> 가 투쟁한 혁명활동을 적은 기념비
사 적 지	역사적으로 기념될 장소	<u>김일성동지</u> 의 혁명적 과정, 활동과 관련된 역사에 길이 전해질 유서 깊은 곳
송 가	찬양하는 노래	<u>김일성동지</u> 의 빛나는 업적과 현명한 영도, 고매한 덕성을 절절한 흠모의 정으로 칭송하는 노래
송 시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시	<u>김일성수령</u> 의 빛나는 업적과 현명한 영도, 고매한 덕성을 읊는 서정시가의 한 형태
장 군	장 성	<u>김일성동지</u> 를 존경의 마음으로 전설적 영웅으로 우러러 받들어 부르는 명칭
주 석	주장되는 자리, 주인의 자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
수 령	한 당파나 무리의 우두머리	노동계급의 당파 인민대중의 최고 영도자

	<韓 國>	<北 韓>
수 상	내각의 우두머리	이전시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수반
지 도 자	가리키어 이끄는 사람	당과 국가사업을 지도하여 혁명·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분
지 원		위대하신 수령 <u>김일성동지</u> 의 아버지 김형직 선생님의 높이신 뜻
초 상 기	초상을 그린 것발	<u>김일성동지</u> 의 초상을 정중하게 모신 것발
초 상 화	사람의 용모, 자태를 그린 그림	<u>김일성동지</u> 의 초상을 정중하게 나타낸 그림이나 사진
현 지 교시	현장에서 가르쳐 보임	<u>김일성동지</u> 께서 현지지도 하시면서 주신 교시
어 버 이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u>김일성동지</u> 께서 인민에게 베푸시는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뜨거운 사랑
어 버 이 손길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손길	<u>김일성동지</u> 께서 인민에게 베푸시는 자애로운 손길
어 버 이 정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정	<u>김일성동지</u> 께서 인민에게 베푸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온정

나. 革命·建設事業에 관련된 特殊化

語彙名稱이 指示하는 一般的인 意味對象을 革命·建設事業에 制

限・結付시킴으로 意味域의 外延이 좁아진 特殊化가 되었다.

	<韓 國>	<北 韓>
간 부	단체 수뇌부의 임원	<u>혁명·건설</u> 에서 군중을 교양, 조직 동원하는 사업을 하는 일꾼
도 피	도망하여 몸을 피함	<u>혁명투쟁</u> 의 마당을 피하여 도망하 는 것
독 창 성	혼자힘으로 처음 생각해내 거나 만들어내는 특성	<u>혁명·건설</u> 에서 새로운 문제를 정 확히 밝혀 내거나 자체의 힘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특성
동 무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노동계급의 <u>혁명위업</u> 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혁명동지
동 맹	어떤 목적을 위해 상호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을 맹세하는 약속, 언약	노동계급이 <u>혁명투쟁</u> 에서 그 혁명 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계급이나 계층들과 손을 잡는 것
동 지	서로 뜻이 같은 사람	노동계급이 <u>혁명위업</u> 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대오에서 같은 뜻을 가 지고 싸우는 혁명가
대 사 변	나라의 중대한 큰 변사	<u>혁명발전</u> 에서 결정적 승리를 가져 오게 하는 큰 사변
열 사	절개가 굳은 사람	<u>혁명열사</u>
영 도	거느려 이끔	<u>혁명·건설</u> 에서 어떤 계급·조직·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통솔·지도

	<韓 國>	<北 韓>
맹 목 적	따지거나 분별없이 무턱대고 하는 것	하여 투쟁으로 조직·동원하여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
반 동	역사의 조류에 역행, 진보적 운동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운동	<u>혁명적</u> 역량, 진보적 세력에 항거,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의 노선·정책을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해독 행위를 하는 반혁명적인 운동
변 절 자	절개가 변한 사람	<u>혁명적지조</u> 를 저버리고 조국·인민을 배반하여 반혁명이나 반동으로 넘어간 자
보 검	보배로운 칼	<u>혁명·건설</u> 에 이용되는 위력적이고 귀중한 수단이나 무기
붉은 편 지		<u>혁명·건설</u> 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전당원에게 호소하는 편지
수 양	도를 닦고, 덕을 기르는 일	당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u>혁명노동계급화</u> 의 수령님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자질을 높이며, <u>혁명적 사업방법</u> 과 인민적 작풍을 체득하여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품성을 갖추도록 사상단결에 힘씀

	< 韓 國 >	< 北 韓 >
승 리	겨루어 이김	<u>혁명투쟁·건설사업</u> 에서 이기는 것
시 위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 임	근로자들의 사회·정치적 위력과 <u>혁명적 기세</u> 를 보이기 위한 대중 운동, 행사
신 문		<u>혁명사상·당정책</u> 으로 인민을 교양 하는 힘있는 무기
자 각	<u>스스로</u> 깨달음	객관적 처지, 역사적 사명, 계급적 임무, 맡겨진 과업등을 <u>스스로</u> 판 단하여 깨달아 아는 것
자 녀 교 양	자녀들에 대한 교양	자녀들을 <u>당유일사상</u> 으로 무장, 지 덕체를 갖춘 공산주의 <u>건설의 후</u> <u>비대</u> 로 키우기 위한 교양
자 력 갱 생	<u>자기힘</u> 으로 다시 살아감	<u>혁명·건설</u> 의 모든 문제를 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풀 어나감
자 주 성	남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처리해 나가려는 성질	자연과 사회의 <u>혁명·건설</u> 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는 책 임을 다하는 입장과 태도, 특성
자 주 통 일	<u>스스로의 힘</u> 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	수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 적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 함
자 질	타고난 성품과 바탕	가지고 있는 정치적·실무적 능력 수준

	<韓 國>	<北 韓>
적	서로 대적되는 편사람, 원수	혁명을 반대하고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계급적 원수
적 대 계급	적으로 맞서있는 계급, 사람, 사상, 세력	혁명과 노동계급의 이익에 적대되는 관계에 있는 계급, 사람, 사상, 세력
- 분자		
- 사상		
- 세력		
전 략	전쟁의 방략	혁명의 전반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침
전 술	전쟁의 방법	혁명단계에서 전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강령
전 투	싸움, 교전	혁명과업 수행을 위해 혁명적으로 벌이는 투쟁
종 파	지파에 대한 종가의 계통	당과 혁명의 이익보다 개인야욕을 채우기 위해 분렬·책동하는 반당적 집단, 분자
주 력 군	주되는 병력	투쟁이나 혁명에 참가하는 주되는 영향
대 고 조	가장 한창인 고비	근로자들이 당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영도밑에 사회주의 건설의 전선에서 비상이 빠른 속도로 나아가면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킴

	<韓 國>	<北 韓>
기 수	기를 들고 앞장서 가는 사람	혁명투쟁·건설사업에서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는 사람
기 회 주의	정세에 따라 기회를 관망하며 편의적으로 행동하는 주의	노동운동 대열 안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u>혁명적 진수</u> 를 거세·왜곡하여 혁명에 화를 주는 반동·반혁명적 사상조류
과 도 기	묵은것에서 벗어나 새것을 이루는 동안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노동계급이 정권을 쥘때부터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의 시기
모 락	지모의 방략	침략과 <u>반혁명적</u> 해독행위의 부정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꾸며내는 음모책동
각 성	자기 잘못을 깨달음	노동자·농민등이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를 깨닫고 사상·정치적 의식이 높아지는 것
불 순 분 자	순수하지 못한 사람	정치사상적으로 불건전하여 <u>혁명이</u> <u>익을</u> <u>줍먹는</u> 자
전 략 회	견식을 높이기 위해 진열하는 것	선전교양을 위해 진렬하는 것
정 실 관 계	사사로운 인정에 얽힌 관계	당적 원칙을 떠난 사사로운 정이나 친분으로 맺어진 관계
정 치 범	정치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정치적 동기로 지은 죄	반동통치제도에 싸운 <u>혁명가</u> , 애국적 인사들에게 씌운 <u>죄명</u> , 사람

	<韓 國>	<北 韓>
지 덕 체	지육·덕육·체육	당유일사상으로 무장, 사회·공산주의 건설에 필요한 지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하여 노동과 국방에 필요한 튼튼한 체력을 가지는 것
창 발 력	창조·발전하는 힘	<u>혁명사업</u> 수행에 있어서 당정책 관철사업을 전진시키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사고하고 싸우는 발기나 의견을 내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능력
창 조 력	처음으로 만드는 힘	본따거나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u>혁명발전</u> 의 현실적 요구와 구체적 특성에 맞게 새로 창조·발전시키는 힘
처 단	처리하여 결단함	<u>반혁명분자들</u> 을 없애 버리는 것
천 명	드러내어 밝힘	노선·방침등을 과학적으로 깊게 뚜렷이 밝힘
초 병	파수보는 군사	<u>혁명의 전취물</u> 을 보호하기 위해 초소를 지키는 병사
추 동 력	밀고 나가는 힘	<u>혁명투쟁</u> ·사회발전에 적극 고무하고 밀고 나가는 힘
타협주의	두편이 서로 좋도록 협의하는 주의	<u>혁명</u> 이나 노동계급의 입장을 떠나 적의 편과 타협하는 기회주의

	<韓 國>	<北 韓>
탐 위 분 자	지위를 탐하는 분자	<u>혁명</u> 에는 관심이 없고, 일신의 안 일과 명예를 추구, 높은 지위를 탐 하는 반혁명적 사상을 가진 자
투 쟁	싸워서 다툼	사회역사를 개조발전시키기 위해 넓고 반동적인 것을 반대하여 싸 우는 적극적인 활동
학 습	배워서 익힘	정치·문화·기술수준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
향 도	길을 이끌어 감	<u>혁명투쟁</u> 에서 앞길을 밝혀 주고 승 리의 한길로 이끌어 감
혁 신 자	묵은 조직을 바꿔 새롭게 하는 사람	수령의 교시와 당노선과 정책관철 에서 높은 <u>혁명적 열의</u> 와 창의성 을 다해 사업에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
핵 심	사물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조직체나 집단에서 앞장서서 이끌 고 가는 자각적이며 적극적 성원
희 생 성	희생적인 성품	당과 수령, <u>혁명위업</u> 을 위해 목숨 과 자기 모든것을 바치는 고결한 <u>혁명적</u> 품성
안 일 성	편안하고 한가로운 성품	<u>혁명적</u> 으로 일하고 생활하지 않으 며 긴장없이 마음을 늦추고 한가 히 행동하는 태도

	< 韓 國 >	< 北 韓 >
영웅	재주가 비범하고 용맹이 탁월하여 대업을 성취한 사람	<u>혁명투쟁</u> ·건설사업에서 뛰어난 공훈을 세운 공민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u>영웅칭호</u> 를 받는 사람
우경	보수파, 국수주의, “파시즘” 등의 입장으로 기움	<u>혁명사업</u> 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부르조아지”에게 이익을 주는 경향, 행동
유가족	주인이 죽고 뒤에 남은 가족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u>혁명열사</u> 나 애국열사들의 가족
이색분자	색다른 사람	당의 사상정책을 반대하는 자로서 당과 <u>혁명대열</u> 안에 끼어든 불순분자
일군	값을 받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u>혁명·건설</u> 을 위하여 일정한 부문에서 사업하는 사람
일당백	한사람이 백사람을 당함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군사기술적으로 단련되고 준비된 강철의 <u>혁명대오</u> , 그러한 혁명적전통적인 기상
일편단심	한조각 붉은 마음, 진심	오직 <u>혁명</u> 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몸바치는 붉은 마음

다. 政治宣傳 및 資本主義의 비난을 위한 特殊化

北傀集團이 항시 비난·선전하는 비론바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 그리고 반동통치계급들의 착취와 압박」의 내용을 어느
 語彙에 局限·結付시킴으로서 誘導되는 의미의 特殊化 形態이다.

이러한 語彙들은 그들의 비난대상이 되니 만큼 資本主義(「낡은
 사회」, 즉 封建主義도 이에 포함) 體制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政治理念이나 社會制度나 特徵에 대하여 格下意味로 制限하는 性格
 을 띠고 있다.

	<韓 國>	<北 韓>
간	첩	적의 영역속에 들어가 비
		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자
감	옥	「형무소」의 전이름
고	용	삿을 주고 사람을 부림
기	만책동	속임수로 하는 정치적 책
		략, 행동
괴	뢰	꼭둑각시, 앞잡이, 허수아비
괴	수	못된 짓을 하는 무리두목
약	탈자	폭력을 써서 빼앗아 가는
		침략으로 인민의 재부를 강제로

	< 韓 國 >	< 北 韓 >
	사람	빼앗아 가는 <u>제국주의 침략자들과</u>
매 국	나라를 팔아먹음	<u>착취계급</u> <u>외래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u> 나라를 팔아 먹음
불 한 당	떼를 지어 다니는 강도	“파쇼” 악당이나 군사깡패
전 초기 지	적군과 가장 가까운 곳 에 대치한 군사기지	<u>제국주의자들이</u> 타국 침략을 목적 으로 식민지에 꾸민 최전방 초소 군사기지
서명 운동	어떤 주장, 의견에 관해 찬성을 서명하는 운동	<u>제국주의</u>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세 계평화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민족 적 권리를 요구하는 호소문, 요청 서 등을 지시, 서명방법으로 벌이 는 사회운동
살인 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	<u>제국주의 침략자</u> , 그 앞잡이들이 비 법적으로 쓰는 사람을 함부로 죽 이는 무기
상 전	주 인	<u>제국주의</u> 앞잡이나 괴뢰에 대해 주인노릇을 하는 <u>제국주의자들</u>
죄 수	옥에 갇힌 죄인	<u>반동통치배들이</u>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참 살	참혹하게 죽이는 것	<u>외래제국주의 침략자들</u> 이나 반동통 치배들이 죄없는 인민들을 참혹하 게 죽이는 것

	< 韓 國 >	< 北 韓 >
참 후 상	참혹한 상태	침략자들이나 <u>반동통치자들에</u> 의해 서 빚어진 참혹한 형상이나 상태
창 쥘	병이나 세력이 자꾸 퍼져 서 견잡을 수 없이 되는 것	낡은 사회 <u>반동통치자들의</u> 조작으로 부정적인 세력이 맹렬히 퍼지 는 것
천 막 집	천막으로 만든 집	<u>반동통치자들의</u> 착취·약탈로 헐벗 은 인민들이 쓰고 사는 천조각 비바람을 가리는 살림집
춘 궁 기	봄철 농민이 살기 어려운 때	가혹한 착취·약탈로 햇곡식이 나 기전 봄에 집집마다 식량이 떨어 져 굶주림을 겪는 때
치 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	<u>착취계급들이</u> 더욱 배를 불리기 위해 인민들을 착취, 재산을 늘리 는 것
체 포	죄인을 좇아가서 잡음	<u>반동통치자들이</u> 저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가, 애국인민들을 죄를 들쳐어 마구 붙잡음
탄 압	피지배계급에 대해 압박적 으로 방해·간섭함	<u>제국주의 침략자들과</u> 반동통치계급 이 혁명력량과 진보세력의 인민을 폭력적으로 억누르고 박해를 가하 는 것
폭 동	도당을 짜서 불온한 행동 을 함	<u>착취계급의</u> 국가정권을 반대하여 일으키는 군중적 폭력행동

	<韓 國>	<北 韓>
풍 자	무엇에 빗대어 재치있게 경계하거나 비판함	<u>미제국주의</u> 와 계급적 원수들의 반 동적 본질과 죄행을 폭로·규탄하 는데 이용하는 비웃음을 통한 비 판
학 살	참혹하게 마구 죽임	<u>침략자나 반동무리들이</u> 인민들을 참혹한 방법으로 마구 죽임
학 정	포악한 정치	<u>제국주의자</u> 반동통치자들이 인민을 난폭하게 탄압·약탈하는 포악한 정치
회 유	어루만져 잘 달랠	<u>반동통치배들이</u> 인민의 반항이나 혁명적 진출에 대하여 이를 탄압 하기 위해 거짓과 피임으로 구슬 리는 것
압 박	내리 누름	<u>제국주의 반동지배계급이</u> 착취제도 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그들을 정 치적으로 억누름
앞 잡 이	남의 시킴을 받고 끄나불 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	<u>외래제국주의와</u> 반동들의 끄나불 노릇을 하는 자
어 용 학 자	집권자의 정책을 정당화시 켜 폭학 아세하는 학자	<u>반동적 통치계급과</u> 그 정부의 앞 잡이 노릇을 하는 학자
억 압	힘으로 억누름	<u>외래침략자 반동통치계급이</u> 인민들

	<韓 國>	<北 韓>
우 민 화	배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	에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여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막기위해 정치적으로 억누르고 탄압하는 것
우 호 동 맹	국가간의 우의를 위한 동맹	<u>제국주의자, 반동통치계급</u> 이 인민들에 대한 무제한한 억압과 착취를 목적으로 인민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정치사상적,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게 하는 것
음 모	일을 비밀히 꾸밈	<u>미제국주의</u> 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사회주의 나라사이에 호상원조 및 협조를 위해 맺는 친선적인 동맹
		<u>반혁명분자나 원수들이</u> 몰래 흉악한 일을 꾀하는 것

2. 擴大(widening), 一般化(generalization)

前項과는 相反的으로, 본래 좁은 意味域을 지니고 特殊한 것에 限定되어 쓰이던 語彙가 그 領域이 넓어지고 一般的인 通用性, 普遍性을 띠게 되는 變化를 말한다.

北韓語 中에는 政治的 道具로서 人爲的으로 意味를 特殊化·縮小시키는 語彙는 많은 反面, 擴大·一般化된 것은 극소수이다. 이는 北韓의 言語社會가 閉鎖的이며 制限的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說明

해 주는 好例가 된다.

一般的으로 通時·歷史的인 言語의 순조로운 發達은 그 意味面에 있어서도 좁은 것에서부터 넓은 것으로, 閉鎖的인 것에서부터 開放的인 것으로 進化하는 것이 자연스런 추세인데, 北韓言語의 이와같은 상황은 言語의 자연성을 人爲的·政策的으로 拘束하는 逆流를 助長하는 結果로 확산된다.

극소수의 一般化의 例는 政治·革命과는 무관한 尙간의 日常語에 不過하다.

마누라 : ① 아내

② 나이가 지긋한 여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 이 : ① 형제 중의 순위

② 나이가 남보다 많은 것, 그 사람

3. 提喻 (synecdoche)

意味變化에 있어서 提喻란 서로 範圍가 다른 두 말을 뒤바꾸어 쓰는 것으로서 앞에서 提示한 意味의 縮小·擴大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範圍가 다른 두 말이란 <類와 種>, <複數와 單數>, <全體와 部分>, <普通名詞와 固有名詞>의 範圍를 가리켜 이르는 데, 北韓言語에서 나타나는 提喻의 두드러진 形態는 全體와 部分과의 換置이다. 즉, 全體가 部分을 代身하는 것으로서, 이는 뜻이 制限되고 縮小化되는 意味變化와 直結된다. 다시말하면 어떠한 名稱이 指示하는 의미가 그 全體的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느 部分의 특정사

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制限되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경비대	→	조선인민경비대
렬사	→	혁명렬사
로동당	→	조선로동당
로동영웅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로력영웅
공화국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계획	→	인민경제계획, 국가계획
당	→	조선로동당
대표회	→	당대표회
정부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조합	→	협동조합
최고사령부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회상기	→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요새화	→	전국요새화
“인터나쇼날”	→	국제공산당
전적지	→	혁명전적지

4. 格上·上昇化 (elevation)

意味變化의 결과 語彙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意味價値가 上昇하는 것을 이른다. 즉, 語彙의 意味가 본래의 原意보다 美化·崇高化·善良化·柔軟化·待遇化된 전반적인 格上을 總括하여 上昇化라고 하는 것이다.

北韓語의 語彙에서 散見되는 意味의 格上은 역시 金日成 偶像化

나 革命思想과 建設事業의 絶對觀에 따라 意圖的으로 價値를 부여한 語例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韓 國>	<北 韓>
교 시	가르쳐 보임	위대한 <u>수령님</u> 의 가르치심
들 꿑 다	한곳에 많이 모여 꿑다	<u>혁명적 열의</u> 와 정열이 용솟음치 다
등 대	갈길을 비춰주는 것	<u>혁명투쟁</u> 의 앞길을 환히 비쳐 주는 것
낭 만	실현성이 적고 정서적· 이상적 상태	아름다운 미래지향,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찬 낙천적 상 태
노 동	정신과 몸을 힘써 일함	인간의 부를 창조하기 위한 활 동
선 동	피어서 군중감정을 추기 고 부채질함	<u>혁명과업</u> 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 고무·추동하는 것
숙 칭	엄중히 다스려 불순분자 를 몰아 냄	부정적인 것을 깨끗이 쓸어 냄
정 치 범	정치적 동기에서 죄를 지 은 사람	반동통치에서 싸운 <u>혁명가</u> , 애국 적 인사들에게 씌운 죄명, 사람
몸 소	스스로, 친히	웃어른께 친히
손 수	남의 손은 빌지 않고 제스스로	자기손으로 직접의 존경어
술 하	아버이의 사랑아래	자애롭고 보살피고 이끌어 주는

	<韓 國>	<北 韓>
지하공작	어떤 목적을 위해 비합법적으로 지하에서 하는 공작	웃사람의 몸가까이 외래침략자 반동통치자들을 반대하여 낡은 통치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해 비합법적으로 투쟁을 벌이는 혁명사업
혁 명	급격한 변혁	모든 분야에서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낡은 것을 때려부수고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것을 창조하는 변혁·투쟁
혁 명 가	급격한 변혁을 이끄는 사람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업에 참가하여 승리를 위해 몸바쳐 싸우는 투사
인 민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백성	사회발전에서 진보적 역할을 하는 계급들과 계층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5. 格下·墮落化 (degeneration)

前項과는 對照的으로 語彙가 가진 당초의 意味보다 變化된 意味의 價値가 떨어지는 현상을 이룸이다.

北韓語에서 意味價値가 落下된 語彙는 無수하게 散在해 있다. 그

것의 대부분은 그들과 政治體制와 思想・理論을 달리함으로써 敵對視하고 있는 資本主義 體制의 特徵에 관련된 것이며, 그들이 부르는 소위 「제국주의・자본주의의 “부르조아”적 착취계급」의 政治・社會・文化・經濟・宗教 등을 否定的으로 解釋・宣傳하려는 意圖에서 誘導된 것이다.

또한 그들의 革命的 투쟁의식에 저해되는 요소나 사조들을 배격할 목적으로 意味價値를 格下시킨 語例들도 많이 볼 수 있다.

○ 資本主義・封建主義를 否定

	<韓 國>	<北 韓>
경 찰	사회공공 안녕질서를 위한 기관	인민에 대한 감시, 강제징벌의 특별 무장부대
고 용	살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것	착취계급에서 근로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품을 사는 형식으로 노동자 농민을 부리는 것
관 료	관리들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인민을 억압착취하는데 복무하는 고급관리
민족주의	민족의식을 제일의로 민족생활의 확립・발전을 정치문화의 최고목표로 하는 주의	자기민족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민족을 멸시・배격하고 민족사이에 불화・반목을 조성하는 반동적 사상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	주권을 권 계급이 자유・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계급적 독재의

	<韓 國>	<北 韓>
박 애	한 정치를 행하는 주의 온사람을 평등하게 사랑 함	측면 근로대중과 피압박민족의 계급적 민족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계급을 초월해서 차별없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자선을 베풀 것을 떠드는 착취 계급, 특히 제국주의 “부르죠아” 대변인들의 <u>기만적·반동적</u> 구호
백 만 장 자	재산이 썩 많은 자	근로인민을 착취,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놀고 먹으며 더 많은 치부를 추구하는 자본가 놈
사 환	심부름을 하는 관청·회 사의 심부름꾼	착취계급에 빌붙어 <u>착취, 침략</u> 의 앞 잡이 노릇을 하는 자
소 작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 를 지음	고리의 소작료를 <u>지주</u> 에게 착취 당하면서 농사를 짓는 일
수 전 노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자	돈을 모으기 위해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색하고 악독한 <u>착취자</u>
신 사	품행·예의가 바르고 학 력기풍을 갖춘 남자	“부르죠아”계급의 생활양식에 따 라 행동하는 남자를 지배계급에 서 부르는 말
자 본 가	기업을 경영,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	자본을 가지고 임금노동자를 고 용, 잉여가치를 <u>착취</u> 하는 자

	< 韓 國 >	< 北 韓 >
잡 세	무명잡세, 갑종세	반동통치배들이 인민들을 착취하기 위한 잡다한 세금
재 즈	독특한 무도음악	반동적 “부르조아” 음악 조류의 하나로서 변태적 음악
전 매	국가가 행정상의 목적으로 특정재화를 판매 생산 독점하는 것	자본주의 재정수입을 늘일 목적으로 일정한 대중소비품, 기호품의 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자본주의적 착취형태
점 장 이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업을 하는 사람	점을 쳐 인민들을 기만하고 돈과 재산을 빼앗는 업을 하는 자
정 권	정치상의 권력	계급적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계급의 정치적 지배권
조 차 지	타의 영토내 지역을 빌어 어느기간 통치하는 땅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영토 일부를 일정한 기간 빌리는 강탈된 지역
주식 회사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 회사	주주들이 공동투자하여 노동계급 근로대중을 착취하는 기업형태
중소기업가	중소규모의 기업을 하는 사람	중소규모의 자본으로 경영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기업가
지 주	토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사람	땅을 가지고 농민에게 소작을 쳐 지대형식으로 농민의 노동을

	< 韓 國 >	< 北 韓 >
징 병	국가가 장정에게 병역의무를 과해 징집·복무시키는 일	<u>착취</u> 하여 사는 기생적인 사람, 기본착취계급 일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자들을 강제로 반동적인 군대에 끌어가는 것
징 역	기결 죄인을 구치하여 노역에 복무시키는 것	지배계급이 반동통치제도를 유지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혁명가, 인민들을 잡아 가두고 탄압하는 “부르조아” 독재 수단 하나
제국주의	군사·경제적으로 타국을 정복하여 영토·권력을 넓히려는 주의	<u>착취와 약탈</u> , 침략과 전쟁을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고, 독점과 사회계급적 모순과 부패가 극도에 이르는 망해가는 단계의 자본주의
천 석 균	천석을 추수하는 부자	농민을 가혹하게 <u>착취·약탈</u> 하여 천석곡식을 거둘만큼 많은 땅, 재산을 가진 큰 지주
청 부 업	도급으로 일을 맡아 하는 업	남의 자본을 빌어 노동자들을 고용, 일을 도급으로 맡아 이윤을 중간에서 <u>착취</u> 하는 업
치 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	<u>착취계급</u> 들이 더욱 배를 불리기

	<韓 國>	<北 韓>
	는 것	위해 인민들을 <u>착취</u> , 재산을 늘리는 것
타 작	지주와 소작인이 거둔 곡물을 어떤 비율로 갈라 가지는 소작제도	지주들이 농민에게서 마당질한 곡식을 소작료로 빼앗아 가는 <u>착취형태</u>
향 교	시골에 있는 문물과 거기에 부속된 옛날 학교	봉건사회국가가 지방에 차려놓았던 교육기관으로 봉건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봉건유교사상을 퍼뜨리는 거점
형 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제	범죄자의 투쟁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법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
형 사	형사사건의 수사담당 경찰관	반동적 제도를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사들을 잡아들이는 반동적인 경찰놈
휴 교	학교의 과업을 한 동안 쉬는 것	반동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학교의 교수사업을 한 동안 중지하는 것
아 씨	젊은 부인을 그 아래계급 사람이 부르는 호칭	<u>착취자들의</u> 젊은 부녀자
유 지	좋은 일에 뜻이 있는 사람	어느지방에 일정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정

	<韓 國>	<北 韓>
유 흥	흥취있게 놀	치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을 하는 반동적 지배계급 출신의 인물
이 민	자기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하는 일, 사람	통치계급이 일정한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제나라 사람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긴 결과, 그곳에 강제로 끌려가 살게되거나 그런 사람
임 금	군주국가의 원수, 왕	대로 물려가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u>착취계급</u> 의 최고통치자, 왕
임 금 노동	노동자가 보수를 받고 하는 노동	자본가에게 얽매어 몇푼 안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가혹한 <u>착취</u> 를 당하는 노동
잉여 가치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와 그 지불한 임금과의 차액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u>착취</u> 당하는 가치

○ 反革命的 風潮를 排擊

	<韓 國>	<北 韓>
목 가 적	전원생활을 주제로 하는 것	<u>혁명적</u> 기백이 없이 안온하고 한가로운 것을 비김
무 풍 지 대	딴곳의 재난이 미치지 않아 평화롭고 안온한 곳	낡고 <u>부정한</u> 것에 대한 투쟁이 불활발하여 침체되고 안온한 상태, 환경
선 풍	사회에 돌발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사건	<u>반동적</u> 검거, 폭압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책동
숙 명	날때부터 정해진 운명	어떤 힘에 의해 미리 정해졌다고 하는 <u>반동적</u> , 관념론적, 종교적 견해
자 연 주의	(문)인간생활의 추악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을 본지로 하는 주의	<u>반동적인</u> 부르조아 문학예술 종류의 하나
좌 경	사회주의·공산주의 등 좌익으로 기울어짐	<u>반혁명적</u> 본질을 가리며, 공산주의자를 가장하여 혁명적인듯이 떠드는 기회주의, 반혁명주의

○ 宗教를 否定

	<韓 國>	<北 韓>
교 회	종교신앙을 같이하는 이들의 조직체	정치적 비호밑에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 교리와 종교사상을 선전하는 거점
목 사	기독교의 교직자	예수교의 거짓된 교리를 해설·선전하고 예배를 지도하며 교회를 관리하는 직의 자
선 교 사	종교를 널리 퍼는 사람	예수교 선교의 명목으로 타국에 파견, 종교의 탈을 쓴 침략앞잡이
설 교	종교의 교의를 설명하는 것	억지로 설복시키려 같은 내용의 판박이말을 자꾸 늘어놓는 것
성 경 책	기독교의 교리를 적은 책	예수교의 허위적·기만적 교리를 적은 책
신 부	천주교의 사교자	종교선전을 위해 인민계급적 각성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킴으로서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자
신 학	기독교원리를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관념론적 세계관에 기초, 종교적 도덕을 합리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비과학적인 학문
십 자 가	예수가 못박혀 죽은 표상으로 예배의 대상	예수교의 위선과 박애의 위장물

		<韓 國>	<北 韓>
저 승	사람이 죽은뒤 혼령이 간다는 곳	불교에서 꾸며 낸 사람이 죽어 넋이 간다는 비현실적인 곳	
절	불도수행을 위해 중들이 사는 곳	중들이 부처를 놓고 종교탈을 쓰고 인민을 기만 착취하여 기 생생활을 하는 곳	
조 물 주	우주 간에 만물을 지은 신	만물을 지은 신, 근로대중을 속 이기 위한 허황된 존재	
종 교	초인간적·초자연적 힘에 대해 인간이 경외 존중· 신앙하는 일의 총체	신이 있다며 맹목적으로 믿고 숭배하는 것	
중	불타에 귀의, 불도를 수 행하는 사람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을 기만· 착취 기생하는 자	
지 옥	죄업으로 가서 나게 된 다는 지하의 감옥	인민대중에 대한 억압 착취를 합 리화하며 반동적 통치체제와 법 질서를 절대 순종하도록 꾸민 것	
천 당	천국의 당사	반동통치자들이 계급적 각성을 흐 리게 하고, 착취사회의 현실에서 외면케 하려고 꾸며낸 기만적· 비현실적 세상	
하 느 님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 는 초월 절대자로서의 신	인민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숙명론을 강요하려고 꾸며낸 하 늘에 있으면서 세계의 모든것을 다스린다는 신	

6. 隱喩 (metaphor), 象徵化 (symbolization)

隱喩와 象徵은 轉移의 意味를 가지는 것으로, 對象物의 類似知覺에 의해 形成되는 比喩의 하나이다. 이것은 人間의 心理作用 중에서도 聯想心理 (association)와 關係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두 集團이 처해 있는 言語社會의 構造的 差異는 聯想的 對象을 變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北韓語에서 隱喩나 象徵에 의해 意味가 轉移된 것은 역시 그 元觀念이 革命과 建設事業에 연결되어 昇化된 것과 제국주의 착취제급에 관련되어 卑下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각뜨다 : 약화 · 고립 · 멸망시킨다.

※ 미제 각을 뜨다.

길동무 : 사상적으로 동요, 투쟁대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개 : 민족 계급적 원수의 더러운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

개싸움 : 계급적 원수끼리 벌이는 더러운 싸움

들끓다 : 혁명적 열의와 정열이 넘친다.

등대 : 혁명투쟁의 앞길을 환히 비춰 줌

대포밥 :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끌려 나가 개죽음을 당하는 군대

마굴 : 제국주의 침략자, 반동통치배들이 틀고 앉은 소굴

머리 : 사상의식

발굽 : 제국주의 침략자, 반동통치집단의 압제 · 억압

보검 : 혁명과 건설에 이용되는 위력있고 귀중한 수단 · 무기

보물고 : 사상이론, 과학문화 발전에서 빛나는 공헌을 할 가치있는 것들만이 간직되는 축적

- 기수 : 끝까지 혁명적 절개를 굽힐 줄 모르는 사람
- 불도가니 : 혁명의 정열이 들끓는 사회환경
- 불사조 : 끝까지 혁명적 절개를 굽힐 줄 모르는 사람
- 불장난 : 제국주의자 앞잡이들이 침략적 전쟁의 불을 지르는 행동
- 불길 : 전쟁에 불을 지르는 것
- 불한당 : “파쇼” 악당, 군사강패
- 불다 :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당과 수령을 위해 몸바쳐 싸우는 것
- 붉은기 :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상징하는 깃발
- 비적 : 타국에 불법으로 기어 든 침략자
- 빛발 : 나아갈 앞길을 밝혀 주는 혁명사상
- 백색 : 반혁명을 상징
- 백색 “테로” : 혁명세력에 대한 반혁명의 정치적 폭력 행위
- 살륙장 : 제국주의 침략자, 반동통치계급이 죄없는 인민을 마구 죽이는 살벌한 곳
- 살인강도 (살인귀, 살인마) :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 악당놈들
- 승냥이 법칙 : 착취 · 약탈 · 침략전쟁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인 생활법칙
- 새벽 : 혁명의 새 시대가 다가오는 무렵
- 새세대 :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세대
- 새벽길 : “마르크스 · 레닌”의 가치 밑에 진행되는 혁명의 길
- 새세상 : 착취와 억압이 없는 좋은 세상
- 생지옥 : 지배계급의 혹심한 착취와 억압으로 근로인민의 생활이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착취사회

세포 : 당원들의 당생활 거점·군중을 당 둘레에 튼튼히 묶어
세우고 군중 속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
는 전투단위인 당의 기층조직

자라나다 : 정치·사상적으로 발전되고 커진다.

잡귀신 : 인민대중의 전진을 가로막고 혁명·건설에 커다란 해독
을 주는 종파주의, 기회주의, 소극성, 보수주의, 신비주의
등

잡탕말 :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민족어 말살정책과 사상문화
적침투로 말미암아 언어의 민족적 특성이 사라지고 여
러가지의 외래어들이 섞여 어지러워진 말

전쟁놀이 : 침략자들이 전쟁을 일삼아 하는 것

전쟁온상 : 위험한 침략적 전쟁세력이 자라나고 있는 곳

고열노동 : 높은 열이 있는 작업조건에서 힘들게 하는 생산노동

중심고리 : 혁명투쟁·건설사업에서 복잡하게 나서는 과업들의 연쇄
중 어느 한 과업이 해결되면 다른 모든 과업들도 쉽
게 풀릴 수 있는 중요한 고리

중하 : 혁명·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무겁고 중대한 책
임

사자밥 : 죽음·주검

산아 : 시련이나 투쟁을 통하여 세상에 새로 태어난 존재

신들메 : 어떤 일에 각오와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

지상낙원 : 노동계급과 당의 수령 영도 밑에 인민들이 이룩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 지옥살이 : 더없이 참담하고 고통스런 착취사회의 생활
- 짓어대다 : 적들이 기관총이나 포 같은 것을 자꾸 쏘아 대다.
- 제편잡이 : 반동놈들이 인민과 혁명을 반대하고 못된 흥계를 꾸미다가 제놈들끼리 잘못 알고 해치며 손실을 주는 것
- 천리마 : 근로계급들의 혁명적 기상을 나타냄
- 천정부지 : 반동통치자들의 반인민적 시책으로 물건값이 엄청나게 자꾸 올라가는 것
- 초토화 : 제국주의 침략군대들이 감행하는 모조리 파괴하고 불사르고 죽이는 천인공노할 야수적인 군사행동
- 총알 (탄알)받이 : 제국주의 착취자들이 침략적 목적으로 전선의 맨 앞에 희생물로 내세우는 고용군대, 그 대상
- 탄생 : 노동계급의 당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구들이 생겨남
- 태양 : 노동계급, 인민대중에게 나아갈 앞길을 밝혀 주시며, 그들을 자유와 해방독립과 번영으로 이끌어 주시며, 끝없는 희망과 행복을 안겨 주시는 것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받드는 위대한 영도자
- 향도성 : 혁명투쟁에서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고 승리로 이끌어 주는 존재
- 혁명적 폭풍우 : 혁명의 불길이 거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것
- 흡혈귀 :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노력을 악착스럽게 착취하는 착취자나 인간 학살을 일삼는 제국주의 약탈자
-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 제국주의 자들이 제놈들이 직접 도장을 누른 국제협정이나 조약같은 것을 뒤돌아 서서는 파렴치하게 어기고 짓밟음

7. 退化 · 轉訛

北韓語에서 語彙가 지닌 原意가 退化되고 原意와는 거리가 먼 意味로 轉訛된 語例도 散見된다.

例컨대, 「방불하다」는 原意가 「그럴싸하다」, 「비슷하다」, 「근사하다」 등으로 풀이되는 것이 北韓에서 「눈에 삼삼하다」의 意味로 轉訛되었고, 「부아」는 본디 「허과」, 「폐장」을 가리키던 것이 「노엽거나 분한 마음」이 되어 버렸고, 「모름지기」도 「반드시, 마땅히」의 意味를 가지던 것이 北韓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로 바뀌었다.

더우기, 北韓語의 語彙 中에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혁명의 건설 사업,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주의 발전에 관계되는 다수의 語彙들을 特定人인 김일성의 談話 中에서 발췌하여 辭典的 意味로 定義하려는 策動이 있다. 「조선문화어사전」에 수록된 이와 같은 語彙만도 수백에 달하는데, 이에 通時的으로 傳授되어 온 原意가 人工的으로 埋沒되고, 조작된 意味를 絶對視함으로서 轉訛를 誘導하는 위태로운 劃策이다.

이처럼 語彙意味를 한 個人의 생각으로 定義·規定하여 政策的으로 標準化하려는 것은 個人 偶像化를 피하고 人民의 思想改造를 圖謀하려는 意圖로 간주된다.

그 中 語例 몇 개를 들어 그 出典을 밝혀 보겠다.

가정 :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입니다」(김일성 저작선집 3권 216 페이지)

- 공업화 : 「공업화라는 것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기계화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혁명을 하는 것입니다」(김일성 「청소년 사업과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권, 382 페이지)
- 교육 : 「교육이란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 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입니다.」(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3 페이지)
- 규정 : 「규정이란 것은 다름아닌 집단생활을 하는 성원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입니다.」(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3권, 530 페이지)
- 당세포 : 「당세포는 대중 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 단위이며 모든 당원들이 소속되어 당생활을 하는 우리 당의 말단조직입니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중앙위원회사업 총화 보고, 126 페이지)
- 주체 : 「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 나가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원칙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 저장선집 2권, 500 페이지)

IV. 異質化의 樣態 및 原因分析

1. 語彙形態

가. 醇化運動과 말다듬기

分斷 35 年間 政治的, 文化的, 地理的 斷絶속에 南北韓語가 語彙의 形態問題에 관심을 기울여 온 方向은 醇化運動과 「말다듬기」이다. 이러한 運動은 南北韓 공히 우리의 固有한 語彙들을 開發하고 종래에 汎濫하고 있는 外來語와 漢字語를 拂拭하려는 民族主體意識에 直結된 意識運動의 하나이기도 하다. 즉, 「국어사랑이 나라사랑」이 된다는 南北韓의 공동과제를 성취해 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北韓에서는 그 動機부터가 소위 김일성의 主體言語思想을 말다듬기의 主導的인 原動力으로 浮上·浮刻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差異가 誘發된다.

韓國의 國語醇化 目的과 意圖는 대체적으로,

- ① 民族思想의 統一
- ② 國土의 政治的 統一
- ③ 文化의 振興·發展
- ④ 精神文化의 基本
- ⑤ 民族 主體性 確立

등으로 集約되는데 比해, 北韓의 말다듬기는 아래와 같은 意義를 지니고 있다.

- ①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언어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함」

- ② 「조선말을 더욱 혁명적으로 세련된 아름다운 민족어로 발전 시킴」
- ③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잘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④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함」
- ⑤ 「문화어를 더욱 혁명적으로 세련시키고 주체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함」(김광의, 문화어강습, 창간호, 1968)

이는 言語自體를 다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성취하고 김일성을 偶像視하는 수단으로 言語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外來語와 漢字語를 다듬는 問題만 해도, 우리 固有語에 대한 애착보다는 「그것이 낡은 통치계급의 시대주의적이며 민족허무주의적인 입장과 반인민적인 사상관점의 산물이며, 우리 민족어의 주체적인 발전에 부정적 작용을 하는 요소」이라는 排他的인 意圖가 더 짙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다듬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殺菌」을 「균 강그리 죽이기」로, 「應接室」을 「손님맞이방」으로 바꾼 것 등은, 漢字語가 固有語로 순수해 졌다는 의미밖에는 言語自體의 本質적인 것에는 아무런 有益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들은 音節이 너무 늘어나서 發音이나 書寫, 機械化的 努力經濟에 크게 逆行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억지 造語에 의한 생소감을 주는 것이 너무 많다. 北韓의 言語政策 자체가 그들의 政治形態처럼 強制性和 拘束性を 띠고 있는데, 무조건 인민들에게 規定化하여 強壓的으로 퍼면 된다고 하

는 생각은 言語에 있어서는 排除되어야 한다. 言語는 神이 人間에게 준 고귀한 선물이므로 자연스런 推移와 發展이 바람직할 뿐, 人工的 造作에 의한 強制性이 介入될 수 없는 것이다. 言衆에게 共感을 얻지 못하는 新造語가 濫造되어 강제사용되다가 그 語彙에 生命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韓國에서도 解放直後 「날뜰」(비행기), 「말광」(사진), 「넘보라살」(자외선), 「남꽃가루받이」(타가수분)가 造語되어 당시 國定교과서에 까지 등재되었으나, 그게 몇해를 가지 못하고 消滅된 것을 보면, 言語는 言衆의 共感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는 예가 된다.

한편, 北韓에서 다듬어진 語彙 가운데는 單語의 單位全體가 固有 語化하지 못하고 單語 중간이 잘려 다듬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漢字語가 그대로 남아 있는 반신불수의 인상을 주는 것이 많다. 예컨대, 言語分野의 專門用語 「홀母音」은 「單母音」을 다듬은 것인데, 차라리 그냥 두던지 고칠 바에야 「홀홀소리」로 하는 것이 좋고, 「느낌文」(感嘆文)도 마찬가지로 「느낌월」이라 하는 것이 산뜻하다.

특히, 北韓의 「말다듬기」에서 받는 인상은 強制的이고 政策的이란 비호 아래 너무 그 作業을 서둘렀던 졸속의 느낌이 있다. 言語는 人間이 그의 祖上으로부터 傳受받아 쓰다가 다시 그의 後孫들에게 遺與하여 주는 有機的인 生命體이다. 그러므로 言語政策은 오랜 期間을 두고 分析하고 研究·綜合하는 인내와 철학을 가지고 實行되어야 한다. 그 例로서 外國의 言語醇化만 하더라도 독일은 17 C에 시작해서 1940 年代에 와서야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되었고, 불란서는 16 C에 提唱되고 17 C에 겨우 그 成果를 보게 되어

오늘까지 면면히 추진되고 있는 터이다.

北韓의 「말다듬기」作業의 方向은 무엇보다 韓國의 言語를 考慮함으로써 이뤄져야 한다. 言語의 統一은 民族의 統一이요, 民族意識의 統一이라는 大前提를 沒覺해서는 안된다.

나아가서 古語의 再生開發과 方言 中에도 語感과 語形이 아름다운 것은 活用해서 採用하는 作業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位相的 差異

北韓語의 語彙가 位相的 差異에서 南韓語와 異質化된 것을 여러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異質化를 誘發하는 位相의 範疇부터 살펴보면, 北韓의 政治體制, 經濟形態, 社會構造 등의 現象的인 位相과 소위 方言差에 의한 地域的 位相, 그리고 特殊集團의 慣用的 表現에 관련된 言語狀況的 位相 등을 들 수 있다.

言語는 社會의 반영이며, 社會的 所産이다. 北韓集團의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인 諸與件과 現象들은 그에 副應하도록 言語를 變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말이란 혁명사업의 힘있는 무기」라고 하는 구호를 실현하고 있고, 政治·經濟·社會의 諸政策에 대하여 言語는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造語되고 派生되는 政治用語, 經濟用語, 軍事用語들은 이른바 「정치용어사전」을 편찬하도록까지 多量化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政治理念과 經濟政策에 관한 생소한 特殊語, 軍事戰略上 또는 資本主義 비난선전을 위한 特異한 語彙들이 濫造되어 있어, 言語를 통한 南北韓의 分裂을 高潮시키려는 그들의 劃策을 엿볼 수 있게 한다.

方言的 差異에 의해 異質化된 語彙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다지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정 地域 內에서 方言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南韓語 속에서도 地域方言의 差異와 勢力은 아직도 강하다고 인정되는 터이기 때문이다. 이는 地域住民들의 보다 빈번한 접촉과 교류, 또한 “매스콤” 등의 영향으로 그 勢力이 점차 약화되는 展望을 보이고 있다.

北韓方言은 대체로 東北 咸鏡方言群과 西北 平安方言群 사이에 큰 差異가 있을 것으로 豫想되는데, 소위 그들의 「문화어정책」이 西北方言群 中の 平壤말을 中心으로 표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東北方言이 무시되고 있는 現實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 대로 咸鏡方言 중에도 좋은 語彙는 발굴·채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南北韓의 言語狀況의 位相은 言衆의 慣用的 表現의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이도 역시 言語는 環境的·狀況的 影響을 받는 것이므로 그들 나름의 特殊한 言語狀況에 順應하는 慣用語가 登場할 것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다. 文法的 差異

北韓의 文法研究의 實態는 그들의 政治體制와도 같이 融通性 없는 規範文法の 性格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는 韓國의 文法研究가 解放을 前後로 傳統的 規範文法에서 출발하여, 1960年代와 1970年에 오면서 西歐의 構造主義 文法과 生成文法の 多樣하고 참신한 方法論과 學問的 理論의 影響을 받아 발전해 온 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同一構造의 同一言語가 쉽게 그 文法規則이 변할 리는 없

는 것이며, 다만 그 規則을 기술하는 方法과 解釋에 있어서 多少 變貌가 생겼을 뿐이다.

이 중에 語形에서 나타나는 兩方の 文法の 差異는 派生法 등의 造語上の 問題와 使動法·被動法 등의 形態論的 適用範圍의 差異에 불과하다.

특히, 接尾辭 中에서도 副詞化接尾辭 「이」 「히」의 分布가 北韓語에서는 매우 넓어 語根과의 統合制約을 거의 받지 않는데, 이는 南韓語에서 「-하게」로 活用하던 語彙를 代用하고 있다. 形容詞派生接尾辭 「스럽다」 「하다」 「차다」 「롭다」 「지다」등도 그 위의 語基와 統合하는 樣態에서 南韓語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動詞派生接尾辭 「하다」 「되다」 「거리다」도 마찬가지이다.

北韓語彙의 分布에서 두드러지는 特徵은 派生語彙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接辭를 최대한 生産的으로 活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에 派生된 語彙들도 대체로 政治的 問題와 結付되어 그 形態가 散亂하며 數효가 많아진 것이다.

被動法, 使動法에서 보여 주는 兩方の 差異도 역시 北韓語에서 補助語辭 「이」 「히」 「리」 「기」 등의 分布가 넓다는 점이다. 이는 南韓語의 使動法 「-게 하다」와 被動法 「-어 지다」의 영역을 代用할 수 있는 分布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 音韻的 差異

兩方語의 音韻現象에 의한 語彙·語形의 異質化는 文法的 現象에 의한 差異보다 더 뚜렷하다. 그러나 根本的으로 兩方語의 音韻組織이나 體系가 달라졌다거나 音價가 변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체로 北韓에서는 表音式의 表記法을 採用하고 있기 때문에 同化現象이 誘發되는 音韻環境에서는 同化된 音價대로 적는 것이 一般的이다. 즉, 母音變異된 것, 「ㅣ」母音順行同化된 것, 前舌母音化된 것 등이 그것이고, 子音에 있어서도 濃音化된 것은 音價대로 적는 것이 많다. 이 밖에도 母音交替에 의한 語形, 音節이 倒置된 語形, 音節이 縮約된 語形들이 많이 나타나며, 「사이스」에 의한 絶音表示를 하지 않는 것이 特徵的이다.

특히, 頭子音法則을 廢止한 것은 意圖的인 異質化의 劃策이며, 모든 것이 努力經濟나 簡素化의 原理를 따르면서도 頭音 「ㄹ」을 許容하는 것은 이에 逆行되는 것이며, 語音政策에 있어서 一貫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一面이다. 또한 表音式 表記法을 取하면서도 「ㄹ」下 硬音化現象을 排除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例의 하나이다.

2. 語彙意味

言語에 있어서 意味는 傳達하고자 하는 內容이며 根本되는 言語의 中核이다. 形式인 音聲이나 文字도 결국은 意味를 的確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手段이요 媒體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言語의 意味分野는 다른 어느 分野보다 中樞的인 比重을 가진 것이다.

南北韓의 言語比較에 있어서 形式的인 表記法, 文法, 音聲面의 隔差보다는 意味의 隔差가 더 심각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意味는 一朝一夕에 言衆의 뇌리에서부터 變改시킬 수 있는 可變的인 것이 아니며, 특히 聯想이나 思考, 判斷, 推理, 分析, 綜合 등의 心理的

作用과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複雜·微妙한 構造를 가지고 있다.

本稿에서 調査·分析한 北韓語 語彙意味의 變化樣相은 一般的인 意味에서 特殊化되고, 意味感이 縮小화된 것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 縮小·特殊化의 理由나 方向은 政策的이고 意圖的인 것으로서, 소위 金日成 個人 偶像化에 따른 特殊化와 革命·建設事業에 관련된 特殊化, 그리고 政治宣傳 및 資本主義의 비난을 위한 特殊化가 그 전역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고상하고 崇高하고 위대한 의미를 가진 語彙는 金日成의 專有物로 制限·縮小시켰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열렬한 기상이 있는 語彙는 革命·建設事業에 관계되도록 制限시켜 놓았다. 이에 反한 참혹하고 비참하고 억압적 의미를 가진 語彙는 미국 및 대남비난의 정치선전용어로 特殊化시켰다.

이와 더불어 意味의 價値에 있어서도 본래 낮은 價値의 意味가 格上·上昇化되는 것은 모두 金日成을 가리키는 것이며 革命鬪爭과 革命鬪士들과 관계되도록 指稱하였고, 이에 反해 本意에서 意味가 추락·격하된 語彙들은 자본주의·제국주의 등 소위 그들의 비난대상인 “부르조아” 착취계급 사회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宗教 등에 대한 不正的 意味에서 誘導된 것이다.

北韓의 閉鎖的 言語社會에 있어서는 어떤 特殊한 意味를 가진 語彙가 一般化된다거나 그 意味域이 擴大되는 경향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特殊化에 의한 縮小現象은 提唱의 意味變化와 結付되면서 全體가 部分을 나타내는 많은 例들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北韓語에서는 隱喩나 象徵化에 의해 轉移된 異色的인 語彙

意味들도 發見된다. 이도 좋은 意味로 比喩되는 것은 革命과 建設事業 및 階級鬭爭에 關係를 맺고 있고, 나쁜 意味는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資本主義 國家를 비난하는 것에 집결되어 있다.

北韓語에서 妄動스러운 處사는 一般的으로 쓰이고 있는 어느 語彙를 特定個人(김일성)의 談話나 語錄 中에서 발췌하여 辭典的 意味로 定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 專制國家에서 「짐은 國家라」고 했던 폭군독재국가를 상회하는 個人 神格化에 基因되며, 이러한 策動은 더욱 南北間의 統一의 길을 요원하게 하는 저해요소가 될 것이다.

言語의 意味는 人間의 心理와 自然스런 趨勢에 의해 轉義되어 가는 것인데, 北韓言語에 있어서 이와같은 人爲的이고 造作的이고 政策的인 變化의 誘導는 「전인민」에게 革命的 투지를 지니게 하고 反革命的 반동계급에 대한 鬭爭을 조장하는 「階級教養」을 圖謀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와같은 意圖에서 抽出되는 그들의 기본적인 지표를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 쓰면 다음과 같다.

- ① 김일성에 대한 신격·우상화
- ②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실현하여 “부르조아”사상에 항거
- ③ 계급투쟁에 대한 투쟁정신 고취
- ④ 제국주의 착취계급을 반대, 투쟁하는 정신 양양
- ⑤ 자본가들에 대한 적대감, 그들에 대한 투쟁
- ⑥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함양

V. 言語統一의 展望과 그 對策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일들은 참으로 많다」(「북과 남이 힘을 합쳐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자」<문화어학습 2호, 1981>)

- ① 「무엇보다도 국토양단과 민족분렬의 36년 동안에 생기게 된 언어규범에서의 차이를 시급히 극복하고 통일적인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하루 빨리 진행하여야 한다.」
- ② 「발음과 맞춤법, 띄어쓰기 등 규범의 통일과 개선문제를 해결하며 학술용어를 비롯한 용어의 통일, 민족어의 순결성과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휘정리와 말다듬기, 한자폐지 문제를 풀며, 통일적인 조선말사전의 편찬과 문법책의 편찬, 나아가서는 민족글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중대하고도 시급한 문제들을 다같이 연구하여야 한다.」
- ③ 「우리는 또한 조선말의 형성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유구한 역사를 주체성 있게 연구하며 체계화하여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는 금수강산 온나라의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이 찾아 다니며 우리 말의 귀중한 방언자료와 고장이름(지명)을 전면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묻혀 있는 민족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 발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상은 최근에 발간된 北韓語學雜誌인 「문화어학습」에 게재된 내용을 引用한 것이다. 이 내용을 分析해 보면, 北韓이 韓國과 共同으로 言語를 研究하고 發展시켜야 한다는 골자이나, 이것이 결코

言語統一의 摸索을 위한 提議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北韓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文化語 꽃피우기」의 운동으로 치달리면서, 現在 南韓語를 소위 「잡탕말」이라 하여 전적으로 認定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南北의 言語學者들이 共同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주장은 文化語가 革命的으로 세련되고, 文化的으로 다듬어졌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고, 당과 수령의 주체적 사상을 구현한 민족어라 하여 조국이 통일될 때, 南北韓이 함께 써야 할 言語라고 斷定하는 것을 보면, 공동연구가 아닌 그들의 言語로써 劃一化하겠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이러한 劃策은 우리 民族이 걸어 온 歷史를 沒覺한 소치이다. 우리나라가 歷史적으로 民族史적으로 꽃을 피우게 된 新羅와 李朝의 都邑이 엄연한 韓國땅이요, 言語도 당초 原始朝鮮語에서 北方系統의 言語와 南方系統의 言語가 分派된 후 北方語는 高句麗語를 낳고 日本語에 영향을 준 뒤로는 북쪽 滿洲땅으로 물러갔고, 韓半島의 言語는 어디까지나 南方系統인 新羅·百濟語와 뒤이은 高麗語가 中心이 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순수한 생각으로 언어의 공동연구와 언어통일의 의지를 가졌다면, 南韓語의 歷史的 比重과 서울 標準語를 위시한 韓國의 地域方言에도 깊은 關心을 가지고 重視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言語의 共同研究 운운하면서도 계속 兩語의 異質化를 助長하고 있는 것은 마치 그들이 구호로만 平和統一을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만 땅굴을 하고 韓國의 瓦解劃策을 꾀하는 手法과도 같은 것이다.

筆者는 本 研究를 통해 그들의 言語政策의 뜻이요, 今後의 指針的 法典이라 할 수 있는 「조선문화어사전」 1,050 페이지에 수록된 6만여개의 語彙를 국어사전과 낱말이 대조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전은 국어사전이 아니라, 政治革命사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에 가서 그들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言語와 政治革命이라는 각각 다른 次元을 서로 統一하는 語不成說이 되고 말 것이다. 진정 그들이 言語統一의 순수한 여망이 있다면, 言語에서 言語外的인 諸要素를 완전히 제거한 言語實體를 가지고 共同研究나 統一方案을 提議해 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言語自體보다는 言語外的의 요소가 더 강한 文化語를 가지고 南北韓 言語統一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文化語는 北韓의 政治宣傳 道具요, 革命鬪爭의 方便으로 人工化되고 言語本質의 喪고한 資質이 망실된 言語이다.

더우기 김일성 個人 偶像化는 南北韓의 言語統一의 展望을 흐리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觀點과는 어긋나게 어떤 개인을 종교나 미신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우상처럼 떠 받드는 것」

이상은 北韓 사전에서 「偶像化」를 풀이한 내용인데, 그들이 곳곳마다 김일성의 위대한 영도력과 혁명적 기상으로 전설적 영웅시하는 것은 偶像化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장차 南北韓의 言語統一 問題는 語形의 統一보다 意味의 統一이 더 切實한 難題로 대두된다. 文法體系, 맞춤법, 띄어쓰기, 發音法 등은 새롭게 최선의 기준을 設定하여 政策化하면 統一이 可能하나, 意味에 대하여는 그것이 不可能하다. 前述해 온 바와 같이, 言語

語의 意味는 오랜 세월을 두고 傳統的, 慣習的으로 言衆의 머리속에 支配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一朝一夕에 規制化한다고 可變的인 것이 아니다. 北韓語의 意味 가운데 김일성 우상화, 혁명건설사업에 적용, 자본주의의 비난선전 등을 목적으로 原意가 縮小·特殊化, 格上·上昇化, 格下·墮落化된 것이 그들의 뇌리에 타성 고질화되면, 意識構造와 思想體系가 變改되지 않는 한 그 意味의 回歸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들을 綜合하여 展望한다면, 今後 北韓의 文化語政策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結實을 거두게 되면 될수록 南北言語隔差는 더욱 遠隔化될 것이며, 따라서 兩方의 思想·理念的으로 統一되고 言衆의 意識構造가 統一되지 않는 한, 言語統一의 展望에는 많은 難點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展望 속에서도 韓國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言語統一의 執念으로 가장 쉬운 作業부터 摸索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南北對話가 再開되면 이러한 問題를 가지고 절박한 論議가 서서히 提起·進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南北韓의 言語를 語彙中心으로 對比하면서 語形과 意味에서 露出되는 異質性を 分析했다. 또한 異質化의 特徵과 要因을 抽出하고, 장차의 言語統一에 對한 展望과 對策에 對해 言及해 왔다.

그러면, 이상의 論及을 要約·整理함으로써 結言을 삼겠다.

1. 語彙形態의 相異性

① 北韓에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言語政策은 주로 「말다듬기」로서, 外來語와 漢字語를 拂拭하는 데 主眼點을 두었다. 그 결과, 日常生活語나 專門用語에는 南韓語보다 多量의 固有語가 採用·登場되고 있다.

② 그러나, 억지 造語에 의한 生소한 語感を 주는 語彙, 造語法에 맞지 않는 語彙, 지나친 漢字語 忌避로 音節이 너무 길어진 語彙가 많이 濫造되었다는 것은 言語本質的인 發展에 逆行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③ 政治·經濟·社會的인 位相 差異로 말미암아 北韓에는 特殊한 政治用語, 經濟用語, 社會用語들이 汎濫하고 있다. 이는 言語가 政治道具化로 轉落된 面貌를 보여 주는 것이 된다.

④ 北韓語에서 地域的 方言이나 言語狀況의 位相 差異에 의해 生成된 相異語形도 많으나, 方言에 대해서는 南北 雙方에서 開發하여 씀으로서 語彙不足을 補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⑤ 南北言語가 不法規定의 差異로 語彙語形의 異質化를 招來한 것은 주로 派生法과 被動法, 使動法의 接辭 活用에서 나타난다. 대체로 北韓語에서는 接辭의 派生力에 지나친 生産性과 普遍性을 부여함으로써 그 結果 雜多한 派生語의 汎濫을 가져 왔다.

⑥ 音韻的 差異에서 야기되는 語形의 異質化에 있어서, 北韓에서는 대체로 表音式 表記法을 採用하기 때문에, 母音變異, 「ㅣ」母音 順行同化, 母音交替, 前舌母音化, 濃音化 등 同化나 變異된 音價대로 語形을 삼는 傾向이 있다.

2. 語彙意味의 相異性

① 北韓語의 語彙意味는 南韓語에 비해 그 意味域이 縮小·特殊化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言語의 自然的인 推移에 의한 것이 아니라, 人爲的·政策的인 制約에 의해 誘導된 것이다.

② 縮小·特殊化는 주로 김일성 個人 偶像化로 이뤄진 것, 革命과 建設事業에 制限結付시킴으로 形成된 것이 많다. 또한 政治宣傳 및 제국주의·자본주의 비난을 위해 生成된 意味特殊化도 상당수가 있다.

③ 北韓語에서 語彙意味의 領域이 擴大·一般화된 語彙는 매우 적다. 이는 言語社會學的으로 보아 北韓의 社會構造가 閉鎖的이며 人爲的이며 制約的이란 사실을 단적으로 立證하는 例가 된다.

④ 北韓語에서 意味의 價値가 格上·上昇화된 語彙는 원래 一般的인 意味를 가진 것을 김일성 偶像화와 革命·建設事業에 結付시킴으로서 縮小化되어 誘發된 것이다.

(1977), 南北韓 言語概念의 異質化 研究,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Chin-Wu Kim (1978), Linguistics & Language Policies in North Korea, Korean Studies 2, Hawaii.

Haugen, E.(1969),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nguages in Linguistics edited by A.A. Hill.

Hymes, D.(1964),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New York, Harper & Row.

Ray, P.S.(1963), Language Standardization, Mouton.

Sasse, W.(1979), North Korean Language Policy Since division of Korea, Koreanische Studien IV-1, Hawaii.

< 資 料 集 >

北韓言語政策資料集 (1973), 極東問題研究所.

남북한 비교연구 논총 (1976), 국토통일원.

조선문화어사전 (1973),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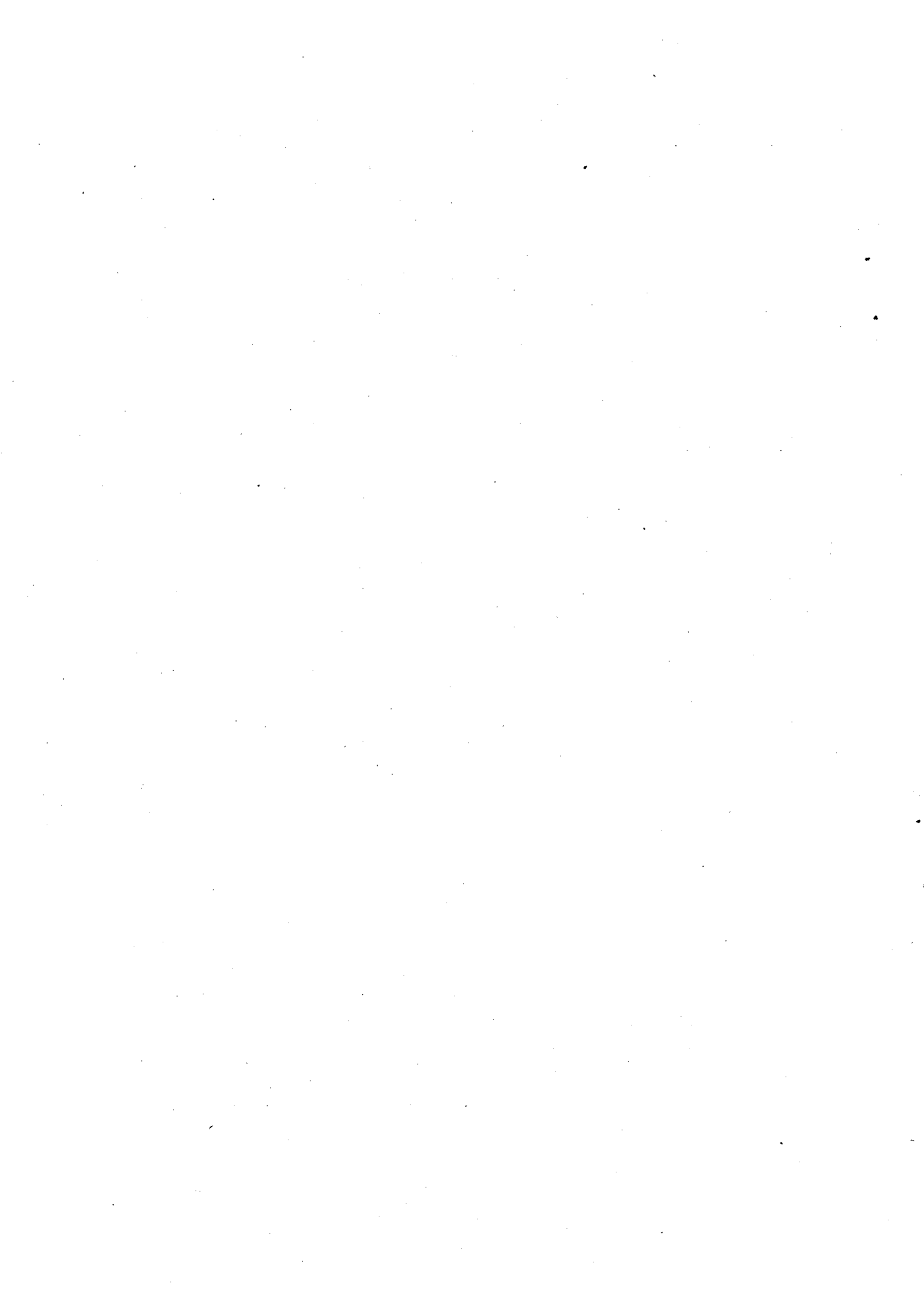
문학예술사전 (1973),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정치용어사전 (1973),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문화어학습 (1968 ~ 1981), Vol. 1 ~ 9, 평양.

로동신문 (1978 ~ 1980).

민주조선 (1978 ~ 1980).



北韓의 言語 異質化 實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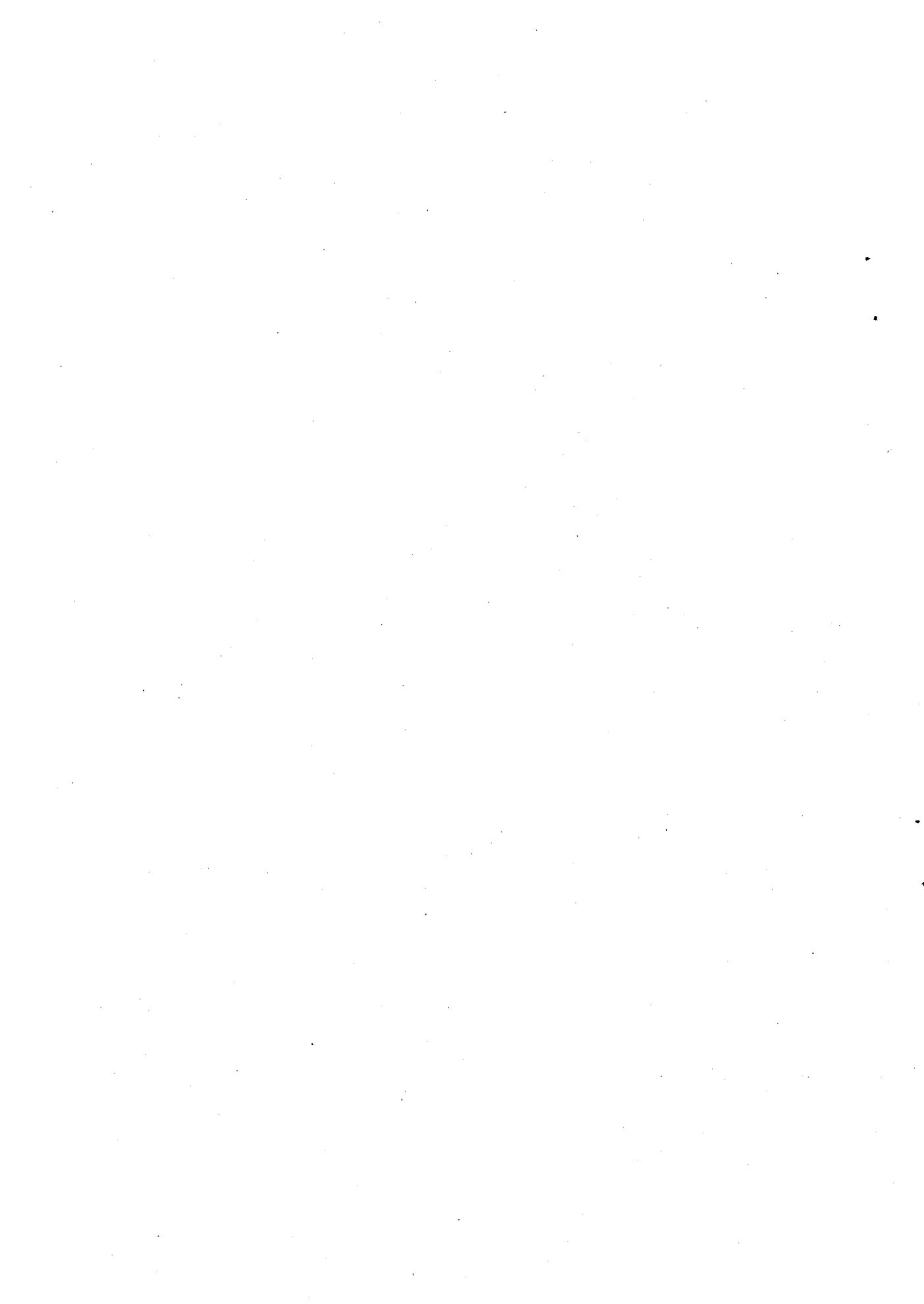
研究責任者 姜 在 倫
(中央日報社 東亞問題研究所 副所長)

THE UNIVERSITY OF CHICAGO

PHYSICS DEPARTMENT

차 례

1. 北韓言語(文化語)의 異質化要因 分析.....	277
가. 階級的 言語觀.....	277
나. 漢字語를 固有語로 다듬는 問題.....	280
다. 獨自的 文化語 追求.....	285
2. 文化語의 異化現象.....	290
가. 言語의 政治道具化.....	290
나. 革命傳統과 文化語.....	297
다. 말다듬기에서 빛은 異化現象.....	300



1. 北韓言語(文化語)의 異質化要因 分析

가. 階級的 言語觀

言語學的 原理에 따라 생각해도 오늘의 南北韓처럼 오랫동안 물샴틈 없는 장벽으로 서로 往來가 끊기게 되면 그 두개의 社會는 점차 言語上의 分열·이화현상을 빚기 마련이다. 더우기 南北이 追求하는 相異한 理念과 價値體系는 그 言語의 自然的 異化現象을 더욱 促進시키고 있다.

특히 北韓의 경우, 言語를 이데올로기와 結付시켜 大衆에 대한 思想教養과 宣傳·煽動의 有力한 武器로 삼는 것을 基本方針으로 하여 政策的으로 獨自의 言語體系를 發展시킴으로써 民族의 共通性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言語의 共通性을 破壞하고 있는 점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共產主義理論에서도 言語를 어느 이데올로기처럼 上部構造(Überbau)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上部構造로 보아서 안된다는 것은 社會主義革命이 遂行되었다하여 이에 따라 言語를 人爲적으로 뜯어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Stalin은 그의 『言語學서한』에서 言語가 全社會를 위한 統一의인 言語로 創造되었다는 점, 그리고 言語라는 것은 어떤 階級에만 寄與하고 다른 階級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全社會에 公平하게 寄與한다는 점을 指摘하고, 言語는 점진적으로 새로운 것과 낡은

것과의 교체에 의해서 發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

Stalin의 이 見解는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 言語問題를 다루는 基本敎理가 되고 있거니와 그 요지는 한마디로 言語에는 階級性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言語의 發展은 時流를 따라 낡은 말이 새 말로 교체되면서 革命的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 言語政策의 基礎가 되는 言語觀은 正面으로 이와 맞서고 있다. 그 言語觀은 요약하면, ①한국에서 쓰이고 있는 말에 대한 反動的 性格規定과 ②北韓의 고유한 言語體系인 소위 「文化語」에 대한 人民性和 革命性 規定으로 되어 있다.

우선 韓國에서 쓰이고 있는 韓國말의 反動性에 대해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인민의 貴重한 민족적 재부이며, 민족의 자랑이 깃들어 있는 우리 말은 오늘 남조선에서 嚴重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우리 말은 그 순수성이 점차 사라지고 잡탕말로 변하여가고 있습니다.」²⁾

註 1) Gustav A. Wetter, Der Dialektische Materialismus, 拙譯『邊證法的唯物論批判』1971年, 206면.

『스탈린 선집』, 3권, 로동출판사, 401~48면, 「맑스주의와 어학문제」參照.

2)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中央委員會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9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하여 解説을 붙인 박홍준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生活樣式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말」에서

「모든 착취사회의 生活樣式이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봉건유교 사상과 복고주의, 개인이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의 반동적 독소들을 퍼뜨리면서 言語의 狀態를 더럽히고」

있다고 혈뜬는다.³⁾

바꾸어 말하면 한국에서 쓰이고 있는 말은 소위 擄取社會의 소산으로서 낡은 思想要素들을 많이 內包하고 있는 점에서 “反動的”이라고 規定된다.

이에 반하여 소위 평양말을 표준으로 하는 北韓의 言語, 즉 文化語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人民性和 革命性이 強調된다.

「해방후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공산주의자들과 수많은 애국적 지식인, 진보적 인사들이 모여 조선혁명의 민족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큰 일들을 하였다. 이리하여 혁명의 붉은 수도 평양에서는 우리당의 령도밑에 민족문화가 찬란히 꽃피었으며, 긴긴 세월에 걸쳐 인민들속에서 자라나고 꽃피어오던 민족어의 모든 아름다운 요소가 더욱 다듬어지고 혁명적으로 세련되었다. 평양말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인민의 지향을 담은 말이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勤勞大衆의 要求와 이

註 3) 『문화어 학습』, 71年 1호)

해를 반영한 규범으로 精密化된 민족어의 最高形態이다」⁴⁾

言語自體에 反動性 또는 革命性的 성격차이가 있다고 보는 이상과 같은 주장들이 北韓側이 그 고유한 言語體系, 즉 文化語를 발전시키게 된 理論的 根據가 되고 있다.

그러나 言語는 意思傳達의 수단 또는 도구에 불과하다. 가령 Marx의 『共產黨宣言』(1848년)은 1840年代에 쓰였던 獨逸語로, 그리고 Lenin의 『國家와 革命』(1917년)은 1910年代의 帝政러시아의 露語로 충분히 쓰여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言語 자체에 反動 또는 革命의 思想性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民族語를 찬미하면서 내막적으로 民族語의 통일성을 破壞하는 行爲이며, 이것은 共產主義의 古典理論에서도 容納되지 않는 見解이다.

나. 漢字語를 固有語로 다듬는 문제

南北韓間에 言語上의 異質化가 深化된 根原을 더듬어 올라가면 결국 文字使用의 차이에서 障벽이 놓이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北韓에서는 1949年9月4日 漢字使用을 公式 廢止하고 한글專用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國漢文混用의 저술활동이 일체 禁止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1954년에 發表된 「조선어 철자법」이 1933년이래 통용되

註 4) 김용구, 『문화어 학습』, 『조선말의 통일적발전을 위하여 그 터전을 굳건히 다지자』, 68년 2호)

어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廢棄한 점도 重視된다. 이 새로운 綴字法에 의거해서 頭音法則의 無視, 「통일안」의 24個 字母의 40個에로의 增加등 綴字上의 差異를 露出시키기는 했으나 이것은 말자체의 共通性을 沮害하는 것은 아니었다.⁵⁾

중요한 것은 한글專用으로 인해서 어려운 漢字語에서 나온 말들이 한글로 表記됨으로써 일반에게 理解하기 어렵다는 점에 着眼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글專用에 따른 漢字語의 固有語에로의 어휘整理가 要求되었다.

金日成은 1964年 1月 3日 言語學者들에게 준 談話文,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問題」에서 이 문제를 提起했다. 이 담화문에서 金日成은 “힘든 한자어를 쓰지 말고 군중이 알 수 있는 쉬운말을 써야한다는 것을 당적으로 널리 선전”하도록 지시하고 한자어 대신에 固有語를 쓰는데 있어서 그 原則을 다음과 같이 提示했다.

한마디로 말하여 같은 뜻의 단어로써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고유어를 쓰며, 일정한 한자어를 쓰되 이미 우리말로 굳어진 것만 쓰고 그 범위를 제한하며, 새로운 한자어를 자꾸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근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말을 더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⁶⁾

註 5) 北韓의 「철자법」에 대한 자세한 것은, 金敏洙 「北韓의 言語觀과 言語政策」, 『北韓文化論』, 北韓研究所刊, 1972年, 參照.

6) 『김일성저작선집』제 4권, 7면.

우선 漢字語를 固有語로 다듬는데서 金日成은 다음의 예를 보이고 있다.

예 :	상엽 → 뽕잎	양잠 → 누에치기
	상전 → 뽕밭	잠견 → 명주
	상목 → 뽕나무	잠사 → 명주실
	연초 → 담배	석교 → 돌다리
	돈사 → 돼지우리	십구세 → 열아홉살

그러나 우리말로 完全히 굳어진 漢字語는 例外다.

예 :	방(房)	삼각형(三角形)
	학교(學校)	과학기술(科學技術)
	사업(事業)	농업(農業)
	공업(工業)	

한마디로 말하면 固有語와 漢字語에 뜻이 같은 말이 있을 때에는 漢字語를 버리고 固有語를 쓰며, 우리말로 굳어진 漢字語는 한글로 表記해도 理解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어휘가 必要할 때에는 漢字로써 造語를 하지 말고 우리 固有語를 語根으로 하여 새로운 말들을 造語해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 金日成은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예 : <뭇> → 나사뭇, 타래뭇, 나무뭇

그러나 이상과 같은 原則은 실제 어휘 정리사업을 벌이는데서 꼭 지켜지지 않고 있다. 즉 이미 우리말로 굳어진 漢字語까지도

무리하게 固有語로 바꾸는 事例들을 어휘 정리사업에서 흔히 볼수 있다.

1964年 1月の 金日成 담화문에 나타난 指示에 따라 어휘 정리사업을 中間決算하는 것이 1968년판 「현대 조선말 사전」(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 편찬)이다.

이 사전에 標題語(올림말)로 실린 單語들 중에는 다음의 例에서 보는 것처럼 무리하게 漢字語를 固有語로 바꾸어 通用性이 없을 뿐 아니라 固有語의 語根이 지니는 본래의 뜻을 完全히 무시한 造語조차 눈에 띈다.

예 : 귀맛 ← 어감(語感)	물주머니 ← 저수지(貯水池)
나무모 ← 묘목(苗木)	설참 ← 휴식시간
남새 ← 소채(蔬菜)	큰물 ← 홍수(洪水)
돌비늘 ← 운모(雲母)	쪽잠 ← 깜박 든 잠
머리곡 ← 서곡(序曲)	

「현대 조선말 사전」에는 새로 다듬은 固有語만을 실고 이와 뜻이 같은 漢字語는 모두 빼고 있다. 그리고 日常用語로 쓰이지 않은 漢字語는 大幅 脫落시켰다. 그래서 이 사전에 收錄된 어휘수는 약 5萬에 불과하다. 그 5萬이라는 어휘수도 개중에는 標題語로서 알맞지 않는 單語들을 끌어 모아 이루어진 숫자이다. 가령 <겨울>이라는 말을 語根으로 형성된 標題語들을 본다.

예 : 어울날, 겨울눈, 겨울랑식, 겨울맞이, 겨울모자, 겨울바람,
겨울밤, 겨울신, 겨울새, 겨울차림, 겨울철, 겨울옷
(12개 단어)

여기서 <겨울눈>, <겨울량식>, <겨울모자>, <겨울밤>, <겨울
신>, <겨울새>, <겨울옷>등은 複合語가 아니라 단순히 단어와
단어를 結合하여 만든 어휘이다. 그래서 사전에 標題語로 올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 「현대 조선말 사전」에 수록되었다는 約 5
萬의 어휘라는 것이 이렇게 단어답지 않은 단어들을 끌어모아 이
루어진 것이다.

어떻든 한글專用으로, 그리고 漢字語 制限使用으로 어휘가 크게
줄어 들고 造語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어휘의 貧困化는 1960年 8月, 즉 金日成의 그 담화문이 發表되기
이전에 발간된 「조선말사전」(전 6권, 어학연구소 편찬)이 17萬단
어를 收錄했던 것에 비하여 「현대 조선말 사전」이 겨우 5萬단
어를 收錄한데서 實感할 수 있다.⁷⁾ 1960년판 「조선말사전」에는
標題語를 한글로 적고, 漢字語에서 나온 말이면 괄호속에 漢字를
넣어 그 어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사전은 그 어휘들이
南北韓에 통용될 수 있는 점에서 南北韓 共同的 文化的 財産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 「조선말사전」에 대하여 「한
자어가 너무 많아서 마치 중국의 옥편같다」는 혹평을 加했다.⁸⁾

이에 반하여 많은 漢字語를 빼버린 「현대조선말사전」은 어휘의
貧困과, 통용성을 지니지 않은 造語로 메워져, 金日成의 言語分離政
策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註 7) 1973년에 「문화어 사전」이 發刊되었다. 여기에 收錄된 어
휘 미상.

8) 『김일성 저작선집』 제 4권 11면.

다. 獨自的 文化語 추구

南北韓言語의 異質化 第1段階는 漢字語 제한사용과 고유어를 語根으로 하는 新生語의 濫造에서 마련되었다. 그리고 異質化 第2段階, 決定的 段階는 평양방언을 중심으로 北韓地方의 方言을 公用語로 받아들인 文化語의 탄생으로 마련되었다.

金日成은 1966년 5월 14일 言語學者들과 한 談話文,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戰略과 技術이 세워지는 革命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말을 基準으로 하여 言語의 민족적 특성을 保存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標準語>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標準語>라고 하면 마치도 서울말을 標準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理解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必要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建設하고 있는 우리가 革命의 수도인 평양말을 基準으로 하여 發展시킨 우리말을 <標準語>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 것이 낫습니다.⁹⁾

註9)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北韓의 言語政策資料集』 21~22면, 中央情報部 1973.

우선 <표준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는 標準語를 “대체로 現在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서울의 중류사회에서 쓰이는 말을 標準語로 規定한 것은 文化의
中心地인 서울만이 언어소통에서 共通性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런 標準言의 概念에서 볼 때 평양말을 標準으로 삼겠다는 것
은 서울을 文化의 중심지, 즉 首都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北韓에서 1972年 이전까지 有效했던 憲法들에서는 그 首
都가 서울로 規定되고 있었다.

이런 首都規定이 서울에서 평양으로 바뀐 것은 1972年 12월에
採擇된 憲法에서였다. 따라서 1966年 5月, 金日成이 평양말을
文化語로 宣言할 때만해도 憲法上으로는 서울이 首都였고 서울을
文化 中心地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金日成
은 政治宣言에 6年餘나 앞서서 言語에서 평양首都宣言을 했던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양말을 標準으로 한다는 것은 政治的 宣言처럼 宣言으
로 끝날 問題가 아니다. 客觀적으로 가장 共通성이 많은 서울말
을 버리고 한 地方의 方言을 標準으로 하는데는 納得할만한 言語
學的 解明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言語에서의 소통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方言을 標準化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標準言로 使用되어온 서울말에
대해서는 階級思想이 반영되었다는, 言語學的 根據가 결여된 理由를
내세워 이를 배격하고 있다.

서울말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잘먹고 잘사는 놈들, 부르조이놈들과 관료통치배들이나 좋아하는 말이지 고생하며 가난하게 사는 노동자, 농민들이 좋아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남조선방송에서는 남존여비사상과 썩어빠진 부르조아적 生活樣式이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에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아양을 떨기 위하여 하는 코맹맹이 소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¹⁰⁾

金日成이 서울말을 舊時代의 遺物처럼 보는 것은 共產圈에서도 예를 들어 中共이 北京語를 그리고 蘇聯이 「教養있는 모스크바市民이 말하고 적는말」을 標準語로 하는 事例에 비추어 보아도 비좁은 소견이다.

그리고 金日成은 서울말이 순수성을 잃어 잡탕말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말은 標準語가 될 수 없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문제는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신문 같은 것을 보면 영어나 일본말을 섞어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자말은 중국사람들도 쓰지 않는 것까지 「망탕」(평양방언) 쓰고 있습니다. 사실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서 한자말과 일본말, 영어를 빼면 우리말은 <을>, <를>과 같은 토만 남는 형편입니다.

언어는 민족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데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이 이렇게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 되다 보니 우리말 같지 않

註 10) 『北韓言語政策資料集』, 41면, 中央情報部, 1973년.

으며 우리말의 민족적특성이 점차 없어져가고 있습니다.¹¹⁾

서울말이 西洋化, 日本化, 漢字化로 잡탕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과연 어떤 말들이 그런가? 다음은 北韓에서 지적하고 있는 事例이다.

- 예: ○ 영어에서 온 말
파라독시칼(역설적)
코믹크(우습강스러운)
- 일어에서 온 말
大賣出(년말이나 명절을 계기로 한몫 보기 위하여 상품을 마구 내다 파는 일)
立見席(서서 보는 자리)
- 부당한 漢字語
立稻先賣, 立麥先賣
胃腸型 家族
至當教授
輪禍(차바퀴에 치여서 당하는 화)
陰護(나쁜 짓을 한것을 몰래 감싸주는 것)¹²⁾

말로는 험뜯기 쉬우나 막상 實例를 든 것을 보면 이처럼 군색하고, 개중에는 날조와 오해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오늘의 서울말이 外來語로 汚染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言語의 民族的

註 12) 최관호, 「잡탕말이 된 오늘의 서울말」, 『문화어학습』, 69年 3號.

특성을 保存하는 길은 金日成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양方言을 基準으로 할것이 아니라 標準語를 發展시키는데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즉 서울말에 「外來的」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標準語로서의 機能을 否定하는 구실은 못된다.

金日成은 다만 固有語를 漢字語에 대치하는데 있어서 固有語가 不足되는 경우 地方의 사투리를 살려 쓸 수 있다고 했다.¹³⁾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漢字語와 外來語를 우리의 固有語로 고치는 過程에서 어휘不足으로 不得已 方言에서 좋은 것을 찾아쓰는 原則은 무시되고 있다. 특 標準語로 고쳐 쓸 수 있는 경우에도 짐짓 方言을 쓰는 事例가 허다하고 그래서 北韓에서 쓰이는 公用語는 方言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實情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살피게 될 것이다.

註 13)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기 살려나갈데 대하여」, 前掲書, 19면.

2. 文化語의 異化現象

가. 言語의 政治道具化

北韓에서 말은 소극적으로는 住民들의 낡은 生活樣式을 반영하는 機能을 가지며, 적극적으로는 勞動黨의 唯一思想으로 住民들을 武裝시키고 그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는데 힘있는 무기 또는 수단 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¹⁾

우선 言語分野에도 「無葛藤理論」이 적용된다. 즉 社會의 갈등과 不條理, 그리고 갖가지 社會的 弊習을 반영하는 말들은 사회주의 사회에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²⁾ 말에는 한 社會의 生活樣式이 반영된다고 보는 言語觀에서 北韓말은 體制가 전혀 다른 南韓말과 根本的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北韓의 國語學界의 주장이다.³⁾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나온, 그래서 北韓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어휘들의 예를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강선속도,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공훈광부, 군중관점, 내리공급체계, 농기계임경소, 닭공장, 밥공장, 오호담당제, 천삽뜨기운동, 청산리방법, 초대소, 평양속도, 협동벌.

註 1) 박홍준,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 말」, 「문화어학습」, 71년 1호.

2) 「언어학개론」, 141면, 교육도서출판사, 1970.

3) 박홍준, 前掲 論文.

「강선속도」,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평양속도」, 「천삼뜨기운동」 등은 勞動과 生産督勵에 관계되는 말들이요, 「오호담당제」는 住民統制와 監視體制의 철저성을 반영하는 북한고유의 말이다. 「닭공장」, 「밥공장」, 「협동벌」 등은 集團生活과 集團所有의 社會相을 나타내고 있다. 「내리공급체제」, 「칭산리방법」 등은 下向式 命令經濟의 양식을 말하고 있다. 「초대소」는 여관이나 호텔에 해당되는 말이나, 자유롭게 유숙이 되지 않은 점을 함축하며 旅行의 부자유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個人主義와 利己主義가 모든 社會道德과 生活規範이 그 기초에 놓여있던 낡은 부르조아社會의 말들이 정리대상이 된다.⁴⁾

예를 들면 「나의 욕망」, 「나의 이해관계」, 「내 물건」, 「내 소유」와 같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말은 社會主義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的 社會主義사회에서는 「우리 마을」, 「우리 조국」, 「우리 행복」, 「우리의 사회주의 전취물」과 같이 「우리」를 중심으로 하며 개인은 「우리」에 종속된다.

이와 같은 集團主義的 思考의 전환은 개별적 단어의 뜻에도 영향을 끼친다. 가령 「살림살이」라는 같은 어떤 개인의 살림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集團의 그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그는 과일군 협동벌의 살림꾼입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과일군 협동농장에서도 자기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기로 이름난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들리나 북한주민에게는 그 협동

註 4) 박흥준, 전개 논문 참조.

농장의 살림살이를 맡은 管理委員長을 말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동일한 단어의 뜻도 思考方式의 차이로 南北韓간에 다르게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부가해서 같은 말을 달리 풀이하게 하는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그것은 「말의 뜻 풀이와 黨的, 階級的 立場의 연계」라는 원칙에서다.⁵⁾

이 원칙은 말의 뜻을 그 본래의 뜻대로 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을 구성하는 單語의 차이뿐 아니라 語義上的 차이까지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상전(上典)」이라는 말은 봉건사회의 主從關係에서 「주인」을 지시하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조선말사전」을 보면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상전 : 앞잡이나 피뢰에 대하여 그들의 <<주인노릇을 하는자>>를 비겨이르는 말. || 남조선피뢰도당은 ~들이 준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서 온갖 악법을 꾸며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전」이라면 북한주민들에게는 소위 남한당국에 대해서 「미제국주의」를 뜻하는 말이 된다. 즉 앞잡이나 피뢰에 대한 「상전」의 관계로만 알고, 봉건사회에서 主從關係를 이르는 뜻을 알 수 없게 말의 뜻을 바꾸고 있다. 이처럼 본래의 말뜻을 정치적으로 왜곡한 말로서는 다음과 같은 어휘들을 들 수 있다.

註 5) 류명은, 「어휘수업을 당정책화하기 위한 몇가지 방도」, 「문화어학습」, 72년 특집호.

예 : 계급 (군대의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생긴 집단) 원수 (怨讐, 개인적 원한관계가 아닌 계급간의 원한관계를 이르는 말)

지주 (地主, 땅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부치게하여 그들을 착취하는 계급 또는 그러한자」)

자본 (그저 돈이나 어떤 사업에 쓰일 밑천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를 착취하여 잉여가치를 생산할 목적으로 들이미는 생산수단이나 돈」)⁶⁾

북한에서는 언어가 社會主義건설 및 교양의 유력한 무기로 간주되지만, 그 실상은 이처럼 말의 본래의 뜻을 왜곡하여 黨政策과 路線을 선전하는데 편리하게 말뜻을 바꾸는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단어의 왜곡된 뜻풀이를 통한 선전효과는 社會·政治用語에 국한되지 않고 물건의 이름에서도 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뜨락또르」에 대해서 「뜨락또르는 밭갈이하는 기계라고 說明할 것이 아니라, 뜨락또르는 농민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일을 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노동계급이 黨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만든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⁷⁾

註 6) 박홍준, 전개 논문 참조.

7) 류명은, 전개 논문에서 인용된 김일성의 교시.

반면 남한사회에 대한 허위·역선전에 대비해서 언어의 부정적 요소들을 完全히 버리지 않는다고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그 뜻풀이에는 「넓은 사회에서」쓰이고 있다는 전제가 반드시 붙는다.

예 : 강도 (넓은 사회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강제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적)

깡패 (넓은 사회에서 폭력으로 행패를 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

불망나니 (넓은 사회에서 말과 행동이 아주 막된 사람)

불한당 (넓은 사회에서 도덕과 염치를 모르며 못된 짓을 함부로 하는 무리)

사기꾼 (넓은 사회에서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짓을 하는자) 8)

이상과 같은 비속한 用語들은 우리 政府當局이나 當局者들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용어로 즐겨 사용되는만큼 언어에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원칙에서 예외가 된다.

더 나가서 生活樣式을 社會主義的으로 개조한데 따라 生活感情도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즉 共產體制에서는 싫으나 좋으나 소위 革命的 樂天主義를 지니고 모든 것을 樂觀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悲觀을 하거나 개인적 감정을 노출시킬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다. 가령 「외롭다」, 「덧없다」, 「고달프다」, 「애꿎다」와 같은 말은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반면, 현실을 긍정하고 樂觀하는 修飾語의 경우에는 매우 강한 力

註 8) 「현대조선말사전」 해당항목 참조.

點이 주어진다. 「보람차다」, 「우람차다」, 「자랑차다」, 「희망차다」와 같은 말들이 그 예가 된다.

본디는 「숨차다」, 「벅차다」와 같은 말에만 사용되는, 어떤 限界를 나타내는 「...차다」라는 形容詞接辭를 광범하게 形容詞語幹에 이어붙여 形容詞의 어세를 강하게 꾸미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본딧말을 변질시키는 造語이다.

그리고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들을 겹으로 즐겨 사용함으로써 그 어세를 강하게 꾸미기도 한다.

예 : 강유력한 해외동포조직 (강력하고 유력한 해외동포조직)

웅장화려하게 솟아올른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솟아올른다)

영원불멸할 뜻깊은 사변

휘황찬란하고 웅대한 전망목표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形容詞의 어세를 강화하는 것은 宣傳·煽動의 效果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 나오는 인쇄물이나 또는 방송을 살펴봐도 形容詞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두가 현실에 대한 극단적 긍정과 樂觀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 :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를 주체성의 맑은 피만이 흐르는 심장으로 뜨겁게 받아안은 생산자들은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불타는 결의밑에 승전고를 높이 울리며 속도전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킨다.⁹⁾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백두의 험한 산밭(산출기)을 헤치

註 9) 평양방송, 「김일성 신년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향」, 1976년 1월 7일.

고 해방후 겹쌓인 시련의 고비를 넘어 오늘로 달려온 항
일혁명투사의 가슴에도,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태어나
전진하는 우리혁명과 더불어 행복의 꽃으로 활짝 피어난
새세대들의 마음속에도, 참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가슴
가슴에 뜨겁게 솟구쳐오르는 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대
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가는 크
나큰 영예와 행복이다。」¹⁰⁾

「평양방송」에서 나온 보도문과 『로동신문』에 실린 글을 인용
해 보았는데 모두 문장투가 雄辯調다. 특히 과장된 形容詞 들이
난무하여 문맥조차 잡기 어렵게 된 점에 文體論的 特徵이 있다.
그리고 말로 들으면 몹시 선동적이고 글로 읽으면 알맹이 없는
수식어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는 것도 이런 文體論的 特徵
에서이다.

그리고 言語의 文化性은 전투적인 글을 짓는에서 보장된다고 한
다. 즉 「근로자들의 장엄한 투쟁모습을 묘사할 때에는 씩씩하고
전투적인 문체로 써야하며 계급적 민족적 원수들을 폭로하며 원수
들에 대한 인민들의 증오와 적개심에 대하여 쓸 때에는 놈들의 가
슴팍을 면바로(정면으로) 찌르는 서리발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문체
로 써야한다。」¹¹⁾

앞서 인용했던 「평양방송」의 보도문을 보아도 「전투적과제」,
「승전고를 높이 울리며」, 「속도전의 불바람」등 전쟁구호같은 용
어들이 많이 구사되고 있다. 文化語의 이러한 전투적 성격은 文

註 10) 「로동신문」, 「자랑찬 승리, 끝없는 금지」, 1980년 12월 31일.

11) 김정웅, 「글의 문화성과 작가」, 『문화어학습』, 68년 9호.

化語라는 그 이름을 무색케하고 있다.

나. 革命傳統과 文化語

말뜻을 정치적 색채로 물들게하는 이상과 같은 시도는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전반에 걸친 抗日遊擊隊시절에서 싹트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뜻의 변질을 자랑으로 여기고도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말과 글을 노동계급의 요구에 맞게, 그들의 혁명투쟁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면서 그 뜻에서 온갖 낡은것, 반동적인 것을 없애버리고 혁명적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뜻으로, 노동계급의 사상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뜻으로」발전시켰다는 것이다.¹²⁾

이런 뜻의 變化는 두가지 과정을 통해서 실현된다. 하나는 일정한 어휘의 뜻에 새로운 政治的 뜻을 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낡은 어휘에 새로운 現實에 맞게 뜻을 바꾸는 것이다.¹³⁾

현재 쓰이고 있는 文化語에서 그런 예를 들어본다.

예 : ① 일정한 어휘의 뜻에 새로운 정치적 뜻을 담은 말→

핵심, 세포, 후방, 반영하다.

② 낡은 어휘에 새뜻을 담은 말→천리마(천리마운동), 왕(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궁전(학생소년궁전, 문화궁전)

註 12)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43면, 사회과학출판사, 1970.

13) 상 동

抗日遊擊隊시절에서 전해지는 어휘로는 「동무」라는 말을 들 수 있다. 「동무」라는 말은 「동지」라는 말과 함께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사상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뜻이 바뀐다. 원래는 「친근하게 지내는 같은 또래의 사람」이나 “같이 어울려 사귀는 사람」이 「동무」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정치적 계급적 색채를 가미하여 思想과 政治目的을 뚜렷이 같이하는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것이다.

「투쟁」이라는 어휘도 마찬가지로 政治的 色彩가 가미되어 뜻이 좁혀지고 있다. 즉 「투쟁」이라면 일반적으로 「서로 다투는 행동」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여기에 政治的 意味를 가하여 「계급투쟁」, 「혁명투쟁」, 「무장투쟁」, 「사상투쟁」등의 用例에서 보는 것처럼 「인민대중의 혁명활동」을 말하는, 制限된 뜻으로 사용된다.

「인민」이라는 낱말도 북한에서는 政治的으로 변질되고 있다. 본래는 社會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뜻이었으나 여기에 階級的 意味를 가미하여 「혁명의 동력인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하는 계급과 혁명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계급과 계층」을 이르게 되었다.¹⁴⁾

「동무」, 「투쟁」, 「인민」등의 용어들에 이처럼 政治的 色彩를 가미하는 것은 말의 순수성에 대한 변질이요, 오염이었다. 그래서 이런 변질된 낱말들은 南韓에서는 사용하기 꺼리게 되었고, 간혹 사용하는 일이 있으면 뜻하지 않는 오해를 사게끔 되었다. 말의

註 14) 「동무」, 「투쟁」, 「인민」에 대해서는 상계서, 143~145면 참조.

본다.

우리黨은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主體思想을 堅決히 擁護固守하는 것과 함께 그에 基礎하여 革命偉業을 繼承發展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理論實踐的 問題들을 빛나게 解決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特히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同志의 革命思想을 定式化하고 그 歷史的 地位를 뚜렷이 밝힌 것은 不滅의 功績으로 된다.²²⁾ 이 글에서 보는 것처럼 政治論文은 그야말로 「이」, 「을」등 토씨만이 고유어로 되어 있을 뿐, 한자어로 꼭 배워지는 것이 통상이다. 이렇게 마구 구사되는 한자어 사용이 과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인가? 되문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문장의 무게를 위해서는 한자어를 많이 써야한다는 선입견이 지배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가령 金日成에 대한 찬사에서 「偉대한」이라고 하기보다 「훌륭한」이라고 하고, 「敬愛하는」보다는 「사랑하는」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그 言語政策에도 맞고 혼란을 빚을 염려도 없음을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어 한자어를 쓰는것은 한자어에 대한, 위에서 지적한 先入見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金日成을 비롯한 高位幹部에 대해서는 고유어인 「동무」로 호칭하지 않고 한자어인 「同志」로 호칭하는데서도 한자어를 고유어로 다듬는 言語政策의 소위 主體性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반적으로 政治論文이나 軍事論文중에서도 金日成이나 또는 黨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위의 예에서 본것처럼 한자어가 많이 사용 되는 것은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어휘구사의 특징으로 되고 있다.

이처럼 政治論文 등에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서 주목되는 하나의 경향은 한자어의 고유한 뜻을 轉義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흔히 발견된다는 점이다.

예 : 혁명가극 「피바다」가 것처럼 내외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공연을 성과적(成果的)으로 진행한 것은 우리나라 주체적 문학예술발전에서 하나의 커다란 사변(事變)으로 된다.²³⁾

올해 과업을 진공적(進攻的)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설비들을 만가동(滿稼動)하고 있을 신포조선소의 근로자들은 세소(細小)고기잡이배들을 한척이라도 더 무어내기(만들어내기)에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²⁴⁾

여기에 나오는 말들, 「성과적」, 「사변」, 「진공적」, 「세소」(零細의 뜻), 「만가동」 등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예문에 넣어서 새기기 않으면 그 어휘들이 지니는 독특한 뜻을 짐작할 수 없거나 또는 그릇된 해석을 하기 쉽다.

그밖에도 표준어의 한자慣用과 다른 몇개의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출선수법 → 이신작칙(以身作則)

결과 → 후과(後果)

상호 → 호상(互相)

註 23) 『평양방송』, 「주체예술의 화원을 빛내인 혁명가극 피바다」.
1981년 7월 17일자.

24) 『중앙방송』, 「산업기사」, 1975년 1월 29일자

만부하 (滿負荷 : 짐이 가득 실림)

기상대 → 기상수문국 (氣象水文局)

전시물 → 직관물 (直觀物)

「이신작척」, 「후과」, 「호상」, 「기상수문국」, 「직관물」등은 日本式 한자어를 기피하려는 뜻에서 만들어낸 말 같으나, 日本式 漢字語를 배격한다고 해서 「이신작척」, 「후과」, 「호상」과 같은 中國式 用語를 빌려쓰는 것이 과연 주체적 언어정책일까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반면 「역할(役割)」, 「립장(立場)」, 「시험(試合)」등 순수한 日本式 한자어를 그대로 쓰고있는 면도 있어 일관성이 없는 言語政策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²⁵⁾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꾼다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쓰는 면이 있는가하면 外來語의 경우에도 이를 정리하여 고유어로 바꾼다고 하면서 외래어를 적지않게 쓰고도 있다.

의 경우는 露語가 압도적으로 많다. 개중에서도 흔히 쓰이는 의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예 : 빨럭불가담국가 (비동맹국가) [英]
- 그룹빠 (단체) [露]
- 깜파니아 (군중운동) [露]
- 테제 (綱領) [獨]
- 뜨락또르 (트랙터) [露]
- 뱀플레트 (팜플레트) [露]

반면 外來語를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도 광범하게 펼쳐지고 있다. 몇가지 예를 다음에 본다.

예 : 라지 에타 → 덩히개, 식히개

레알리즘 → 사실주의

레포르따즈 → 보도문학

레파토리 → 올림픽종목

레코드 → 소리판

레스 → 무늬그물

레테르 → 이름표

리듬 → 흐름새 (문학에서),

장단 (음악에서)

마다라스 → 침대 깔개

마후라 → 목수건

마스트 → 돛대, 기중기대

모찌브 → 계기, 동기

물탈 → 반죽

모델 → 본보기

모자이크 → 쪽무늬그림

모타 → 전동기

다음에 부기해 두어야 할 것은 發音上의 남북간 차이다. 1966년 6월에 공포된 『조선말규범집』을 보면 「표준발음법」이라는 것이 붙어있다. 이 「표준발음법」은 모두 11장, 43항목으로 되어있다. 이 「표준발음법」, 제5항과 제6항에는 頭音法則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

제5항 <ㄹ>은 모든 모음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 단 어	음 음	그 림
로동당	[로동당]	[노동당]
락동강	[락동강]	[낙동강]

제6항 <ㄴ>은 모든 모음앞에서 [ㄴ]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 단 어	음 음	그 림
녀 학생	[녀 학생]	[여 학생]
뇨 소	[뇨 소]	[요 소]
뉴 대	[뉴 대]	[유 대] 26)

「낙동강」을 「락동강」으로, 또는 「여학생」을 「녀학생」으로 표기하고, 또 발음하는 것은 평양말에서 나온 것이요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규정과 다른 점이다.

그런가하면 口蓋音化는 인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 7 장, 제 23 항)

받침 <ㄷ, ㅌ, ㄹㅌ> 위에 토나 접미사인 <이>가 올때 <ㄷ, ㅌ>는 [스, 츠]로 발음한다.

예 : <해돋이> - [해도지]	<날날이> - [난나치]
<미달이> - [미다지]	<같이> - [가치]
<굳이> - [구지]	<벼훑이> - [벼훑치]
<쇠붙이> - [쇠부치] 27)	

본래 평양말에서는 <굳이, 같이> 등은 口蓋音化하지 않고 [구디, 가티]로 발음한다. 그러나 이 부분만은 평양말의 발음법에 따르지 않고 표준어 발음을 따르고 있다. 만약, 평양지방의 방언에 따라 口蓋音化를 부정했다라면 남북간에는 발음에서도 소통하기 어려운 장벽이 가로놓이게 될뻔 했다.

註 26)에는 『조선어』, 교육도서출판사, 1970, 63 면에서 인용.

27) 상계서, 68 면.

